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100-01

시간제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델 개발 연구

김은설·김지현·최정원·윤유나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100-01

시간제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델 개발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 은 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지 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 정 원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윤 유 나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연구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시간제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델 개발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3100-01

시간제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델 개발 연구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전화 044) 202-3565
팩스 044) 202-3910
홈페이지 www.mohw.go.kr
인쇄처 경성문화사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요약	1
I. 서론	13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 내용	17
3. 연구 방법	18
II. 연구배경	21
1. 시간제보육 사업 개요	23
2. 시간제보육 현황	35
3. 선행연구	48
4. 해외 사례	58
III. 시간제보육 운영 실태	69
1. 설문조사 분석	71
2. 사례 분석	117
IV. 시간제보육 운영 개선 요구	125
1. 간담회 결과 분석	127
2. 전문가 의견 분석	153
V. 시간제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델 개발	163
1. 모델 안(案)과 현장 의견 수렴	165
2. 시간제보육 활성화를 위한 모델 제안 (최종)	176
3. 시간제보육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183

참고문헌	188
-------------	------------

부록	189
-----------	------------

부록1. 시간제보육 활성화 설문지(원장 대상)	189
---------------------------------	-----

부록2.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전문가 제안 자료)	200
--	-----

〈표 Ⅰ-3-1〉 간담회 개최 일정, 참석자 및 주제	18
〈표 Ⅱ-1-1〉 시간제보육 이용 및 지원 시간	25
〈표 Ⅱ-1-2〉 시간제보육 이용 방법	26
〈표 Ⅱ-1-3〉 별점 기준	26
〈표 Ⅱ-1-4〉 결제 방법	27
〈표 Ⅱ-1-5〉 시간제 보육실 설치 기준	27
〈표 Ⅱ-1-6〉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력 기준	29
〈표 Ⅱ-1-7〉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인력 기준	29
〈표 Ⅱ-1-8〉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원 내용	30
〈표 Ⅱ-1-9〉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지원 내용	32
〈표 Ⅱ-1-10〉 기관별 담당 업무	34
〈표 Ⅱ-2-1〉 연도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및 반 수	36
〈표 Ⅱ-2-2〉 어린이집 유형별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수	36
〈표 Ⅱ-2-3〉 시도별 시간제보육 운영 현황	37
〈표 Ⅱ-2-4〉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운영 반 수 분포	38
〈표 Ⅱ-2-5〉 시도별 시간제보육반 수 및 양육수당 수급 영아 1만명 당 시간제보육 반 수	38
〈표 Ⅱ-2-6〉 연도별 시간제보육 이용아동 수(중복제거)	40
〈표 Ⅱ-2-7〉 아동연령별 시간제보육 이용건수	40
〈표 Ⅱ-2-8〉 시도별 시간제보육 이용아동 수: 2019년	41
〈표 Ⅱ-2-9〉 시도별 시간제보육반 당 이용건수 및 시간: 2019	41
〈표 Ⅱ-2-10〉 시간제보육 이용 이유: 1순위	43
〈표 Ⅱ-2-11〉 시간제보육 이용 시간대(복수선택)	43
〈표 Ⅱ-2-12〉 시간제보육 1회 이용시간	44
〈표 Ⅱ-2-13〉 시간제보육 이용 회수	44
〈표 Ⅱ-2-14〉 시간제보육만족사항: 1순위	45
〈표 Ⅱ-2-15〉 시간제보육 이용 불편사항: 1순위	45
〈표 Ⅱ-2-16〉 시간단위 예약에 대한 의견: 이용 부모	46
〈표 Ⅱ-2-17〉 점심시간 이용 아동	46

〈표 II-2-18〉 이용시간 제한 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	47
〈표 II-2-19〉 2개반 기본배치 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	47
〈표 II-3-1〉 시간제보육 선행연구	48
〈표 II-3-2〉 일본 보육시설의 시간제보육 운영 시간 사례	60
〈표 II-3-3〉 일본 시간제보육 이용 보육료	61
〈표 II-3-4〉 일본 시간제보육 이용 부모에게 안내되는 유의사항(사례)	62
〈표 II-4-1〉 Part-time 보육과 세션 보육 보육사 대 아동 비율	63
〈표 II-4-2〉 Part-time 보육과 세션 보육 최소 공간 기준(아동 당)	64
〈표 II-4-3〉 Part-time 보육과 세션 보육 최소 공간 기준	65
〈표 II-4-4〉 서비스 유형별 최대 시간당 보조금	66
〈표 II-4-5〉 아동 연령별 보육사 대 아동 비율 및 최대 보육 가능 아동 수	67
〈표 III-1-1〉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	71
〈표 III-1-2〉 시간제 보육 운영기간	72
〈표 III-1-3〉 2020년 11월 기준 시간제 보육 운영 반 수	73
〈표 III-1-4〉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게 된 계기(1순위)	74
〈표 III-1-5〉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게 된 가장 큰 계기(1+2순위)	75
〈표 III-1-6〉 시간제 보육 이용 아동 현황	76
〈표 III-1-7〉 시간제 보육 이용 형태	77
〈표 III-1-8〉 시간제 보육 이용 사유에 대한 원장의 인식	78
〈표 III-1-9〉 월평균 시간제 보육료 수입	78
〈표 III-1-10〉 시간제 보육 운영 관련 수입과 지출: 1개월 기준	79
〈표 III-1-11〉 현재 시간제보육료 수준에 대한 의견	80
〈표 III-1-12〉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제 보육료 수준	81
〈표 III-1-13〉 시간제보육료 정부 3천원+부모 1천원 지불 방식에 대한 의견	82
〈표 III-1-14〉 현행 시간제 보육 운영비 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의견	83
〈표 III-1-15〉 시간제보육 운영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	84
〈표 III-1-16〉 시간제보육 운영에서 어려운 점	85
〈표 III-1-17〉 시간제보육 담당 교사가 겪는 어려움(1순위)	86
〈표 III-1-18〉 시간제보육 운영 기준에서 개선 필요 사항	87
〈표 III-1-19〉 개선 요구 1: 월 80시간 이용까지 제한된 보육료 지원	88
〈표 III-1-20〉 개선 요구 2: 일일 9시부터 18시까지의 운영 시간	88
〈표 III-1-21〉 개선 요구 3: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예약 방식	89
〈표 III-1-22〉 개선 요구 4: 당일 이용 전화 신청 방식	90

〈표 Ⅲ-1-23〉 개선 요구 5: 시간당 보육료 4천원	91
〈표 Ⅲ-1-24〉 개선 요구 6: 시간제 보육 전용 공간 기준 요건	91
〈표 Ⅲ-1-25〉 개선 요구 7: 시간제 보육프로그램의 다양화	92
〈표 Ⅲ-1-26〉 개선 요구 8: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93
〈표 Ⅲ-1-27〉 개선 요구 9: 운영비 지원 기준	94
〈표 Ⅲ-1-28〉 개선 요구 10: 교사 대 영유아 비율 1:3	94
〈표 Ⅲ-1-29〉 시간제보육 운영 제도 중 개선 우선 순위 의견	95
〈표 Ⅲ-1-30〉 현행 시간제 보육 운영 시간 기준의 개선 방향(복수응답)	96
〈표 Ⅲ-1-31〉 현행 시간제보육 1:3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시, 적정 수준	97
〈표 Ⅲ-1-32〉 시간제 보육 운영 권유 의향	98
〈표 Ⅲ-1-33〉 향후 정부의 시간제 보육 확대 정책에 대한 생각	98
〈표 Ⅲ-1-34〉 시간제 보육 제도 인지 여부	99
〈표 Ⅲ-1-35〉 시간제 보육 운영 고려 여부	100
〈표 Ⅲ-1-36〉 시간제보육 운영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101
〈표 Ⅲ-1-37〉 차후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 모집 시 신청 의사	101
〈표 Ⅲ-1-38〉 시간제 보육을 도입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정도	102
〈표 Ⅲ-1-39〉 시간제보육을 도입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정도 - 월 80시간 이용까지 제한된 보육료 지원	103
〈표 Ⅲ-1-40〉 시간제 보육 도입의 장애물 인식- 일일 9시부터 18시까지의 시간제보육 운영 시간	104
〈표 Ⅲ-1-41〉 시간제 보육을 도입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정도 - 3) 시간당 보육료 4천원(정부3천원 + 부모1천원)	104
〈표 Ⅲ-1-42〉 시간제 보육을 도입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정도 - 시간제 보육 전용 공간 기준 요건	105
〈표 Ⅲ-1-43〉 시간제 보육을 도입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정도 - 5) 시간제 보육 프로그램의 불충분	106
〈표 Ⅲ-1-44〉 시간제 보육을 도입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정도 - 6)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107
〈표 Ⅲ-1-45〉 시간제 보육을 도입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정도 - 7) 시간제 보육 담임 교사 경력 기준	107
〈표 Ⅲ-1-46〉 시간제 보육을 도입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정도 - 8) 시간제 운영비 지원금 수준	108
〈표 Ⅲ-1-47〉 시간제 보육을 도입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정도 - 9) 교사 대 영유아비율 1:3	109

〈표 Ⅲ-1-48〉 현재 시간제 보육 운영 시간 기준의 개선 방향(복수응답)	110
〈표 Ⅲ-1-49〉 시간제 보육 전용 공간 기준 요건 완화 시, 시간제 보육을 운영할 의사	110
〈표 Ⅲ-1-50〉 현재 시간제 보육 기준인 1:3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시, 적정 수준	111
〈표 Ⅲ-1-51〉 시간제 보육의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생각	112
〈표 Ⅲ-1-52〉 시간제 보육의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생각 - 1) 기존 영아반 보육실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독립된 교실이 아니 더라도, 일반 영아와 함께 시간제 보육을 운영할 수 있게 함	112
〈표 Ⅲ-1-53〉 시간제 보육의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생각 - 2) 6시 이후 야간 시간제 돌봄을 제공함	113
〈표 Ⅲ-1-54〉 시간제 보육의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생각 - 3) 점심시간(12:00-13:00)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추가비용을 부과함	114
〈표 Ⅲ-1-55〉 시간제 보육의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생각 - 4) 현재 1시간 단위인 이용 예약을 2시간 단위로 묶어서 하도록 함	115
〈표 Ⅲ-1-56〉 시간제 보육의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생각 - 5) 어린이집이 원하는 경우 일반 보육 없이 시간제 보육만 전담으로 할 수 있게 함	116
〈표 Ⅲ-2-1〉 광명시 시간제 보육 운영형태의 변화	120
〈표 Ⅲ-2-2〉 광명시장 시간제 보육 운영	122
〈표 Ⅳ-1-1〉 시간제 보육 운영 기관장 면담 대상자 정보	127
〈표 Ⅳ-1-2〉 시간제 보육 이용 부모 면담 대상자 정보	147
〈표 Ⅳ-2-1〉 월령별 보육사 대 아동 비율 조정안	153
〈표 Ⅴ-1-1〉 시간제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델 안	165
〈표 Ⅴ-2-1〉 시간제보육 전담형 어린이집 운영 모형	176
〈표 Ⅴ-2-2〉 시간제보육 전담형 어린이집 운영 시 보육료 월 수입 예상 액 (사례 1)	178
〈표 Ⅴ-2-3〉 시간제보육 전담형 어린이집 운영 시 월 지출 예상 액	179
〈표 Ⅴ-2-4〉 정원 내 시간제 포함형 운영 모형	180
〈표 Ⅴ-2-5〉 보육실 공유형 운영 모형	182



그림목차

〈그림 I-3-1〉 시간제보육 운영 모델 개발 과정	20
〈그림 II-1-1〉 시간제보육 사업 운영체계	33
〈그림 II-2-1〉 연도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및 반 수	35
〈그림 II-2-2〉 시도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및 반 수: 2020년	37
〈그림 II-2-3〉 연도별 시간제보육 총 이용건수 및 이용시간	39
〈그림 II-2-4〉 2019년 월별 시간제보육 총 이용건수 및 이용시간	42
〈그림 III-3-1〉 광명전통시장 시간제 보육실 외부와 내부	122



1. 서론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영아를 위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3년 정부는 국정과제로 시간제보육을 선정하고 주요 양육 지원 제도로써 도입을 추진함.
- 시간제 보육은 정부가 일시적 또는 긴급 상황 시의 보육 지원, 가정양육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등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본격 추진한 사업이며, 시간제 보육의 확대를 논의함과 더불어 현재까지의 사업성과를 근거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시간제 보육의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임.
- 시간제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 부모의 높은 필요성 인식과 수요자 맞춤형 보육 제공이라는 제도의 의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처의 한계로 접근성에 제한이 있으며, 영유아 부모의 서비스 인지도가 낮고, 안정적이지 못한 만족도 등에 문제의식을 갖고, 본 연구는 개선안과 더불어 시간제 보육 확대와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천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시간제보육 제도의 구조와 이용 현황 및 수요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함.
- 시간제보육 운영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시간제 보육 활성화를 위한 적정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기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다. 조사 방법

- 문헌 및 기존 자료 검토
 - 시간제 보육 현황, 문제점 및 개선안 관련 선행연구 검토, 분석
 - 시간제 보육 이용 및 수요 파악을 위한 기존 조사 자료, 통계 자료 등의 검토
 - 관련 법령, 사업 운영 지침 등 운영 근거 자료 수집 및 검토
 - 시간제보육 관련 해외 사례 분석

□ 간담회 개최

- 대상: 시설 유형, 지역, 이용 영아 수 등을 고려한 시간제 보육 운영자
- 내용: 운영 방식, 장점, 운영상 애로점, 개선 필요 사항, 확대 방대 방안 등
- 방법: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집단(4명) 대면 면접 방식의 간담회 8회.

□ 심층면담

- 대상: 시간제 보육 제공 시설 유형 및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한 이용 부모
- 조사 내용: 이용 이유, 이용의 장점 및 장애물, 접근성 정도, 개선필요 사항 등
- 면담 방식: 반구조화된 질문지 및 자유토의를 활용한 소규모 집단 대면 면접

□ 사례조사

- 시간제 보육 운영 우수 사례 지자체 담당자 면접, 운영 현장 사례 답사 등 진행

□ 설문조사

- 목적: 시간제 보육 확대 운영 실태 및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 대상: 시간제 보육 운영/미운영 유형별 어린이집 원장 총 200명
- 방법: 온라인 웹을 통한 설문조사

□ 전문가의견 조사

- 목적: 시간제보육 운영 모델 의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대상: 보육 분야 대학 교수, 한국보육진흥원 관계자 등 총 20명
- 방법: 이메일을 통한 의견 조사지 송부 및 수신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보건복지부 시간제 보육 업무 담당자와의 지속적 업무 협의

2. 연구배경

가. 시간제보육 사업 개요

-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임.

- 지원대상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 대상이며, 제공기관은 시·군·구로부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며, 관리기관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있음.
- 시간제보육 지원대상은 양육수당 수급 가구, 지원기간은 월 최대 80시간임. 보육료는 시간당 이용단가 4천원, 그 중 정부 지원 3천원, 부모 자부담은 시간당 1천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시간제보육의 반 구성 기준은 기본보육 정원 내 3명 이상이며, 교사 대 영아 비율은 1:3으로, 운영시간은 원칙적으로 월요일~금요일, 09:00~18:00임.
- 인력 기준은, 시간제보육 담당교사는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이며, 총 보육경력 3년 이상으로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를 원칙으로 함.

나. 시간제보육 현황

- 2014년 시범사업 이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및 반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2020년에는 정부의 시간제보육반 지원 확대 방침에 맞춰 전년 대비 159개소, 173반이 증가, 큰 폭의 증가율을 보임.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총 이용 건수 및 이용시간을 비교해 보면 2017년은 전년도 대비 약 45%의 이용 건수와 44%의 이용시간 증가율을 보이며, 2018년은 각각 16%와 20%, 2019년은 11%와 10% 정도 증가함.
- 2019년 기준 이용 아동의 규모 및 특성을 연도별,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간제보육 이용아동 수(중복제거)는 20,388명임. 연도별 증가율을 보면, 2016년에는 전년 대비 83.3%의 증가율을, 2017년에는 35.4%, 2018년은 약 1.8%, 2019년은 약 10.5%의 증가율을 보임.

다. 선행연구 및 시사점

- 이용자 대상 조사에서 시간제보육은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만족도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더 많은 부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 **2019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91.7%로 만족도가 나타남.**
- 시간제보육 활성화 방안 및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운영 모델의 다양화, 접근성 확보, 보육료 개선, 홍보, 시간제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 예약시스템 보완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됨.

라. 해외사례

1) 일본

- ☐ 일본은 시간제보육을 통해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부모의 육아스트레스를 완화해주고 휴식과 분위기전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요한 목표를 두고, 시간제 보육 이용 부모에 대한 육아상담과 어린이집 개방을 중요하게 봄.
- ☐ 시간제보육 대상 아동은 지역 내 거주 생후 10개월 이상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으로 제한됨.
- ☐ 시간제보육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며, 연장보육(오전 8시에서 오후 7시 사이)이나 반일제보육도 실시함.
- ☐ 아동이 1세일 때 4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미만은 1,600엔(한화 약 17,000원), 4시간 이상 이용일 때에는 3,200엔(한화 약 34,000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급식, 간식은 추가로 부모가 부담함. 저소득층의 경우는 보육료가 면제됨.

2) 아일랜드

- ☐ 아일랜드의 미취학 아동 대상 보육 서비스는 아이돌봄(childminding), 하루 5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일제 보육(Full Day Care), 하루 총 3.5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보육 서비스를 의미하는 시간제 보육(Part-Time Day Care), 야간보육, 이용 회당 3.5시간 미만 보육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세션 보육(Sessional pre-school service), 간헐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롭인 센터와 일시 드롭인 센터로 구분될 수 있음.
- ☐ 보육사 대 아동 비율을 보면, 0에서 1세 1:3, 1에서 2세 1:5, 세션 보육의 경우 2.5에서 6세까지 보육사 대 아동 비율을 1:11로 정하고 있음.
- ☐ 최소 공간에 대한 기준 또한 상이하며, 세션 보육은 아동 당 1.81m²의 공간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Part-time 보육은 아동의 연령별로 상이한 기준임.
- ☐ 세션 보육은 한 반당 최대 2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회당 3시간, 주 5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이상의 서비스 이용료는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함.

3) 호주 및 캐나다

- 호주는 Occasional Care(OC), 캐주얼 보육(Casual Care), Flexible Care 등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시간제보육과 비슷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모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기, 임시적인 보육 서비스를 의미하며, 가족의 근무 여건, 응급 상황, 행사 참석 등에 따라 필요시 이용 가능함.
- 캐나다의 OC(Occasional Care)는 18개월 이상의 미취학 아동에게 비정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하루 최대 8시간, 월 최대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용 제한을 두고 있음.
 - 정원은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경우 16명,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명이며, 아동 대 보육사의 비율 역시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경우, 아동 4명 당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1:8로 규정함.

3. 시간제보육 운영 실태

가. 설문조사 분석

- 2020년 12월에 시간제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104개소, 운영하지 않는 시설 152개소의 원장 총 2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1) 시간제 보육 운영 어린이집 대상 조사

- 2020년에 시간제 보육 운영을 시작한 원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4년 이상 운영한 경우가 많고, 가정어린이집의 80%는 1년 미만으로 답하여, 최근 가정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운영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게 된 계기로는 부모 수요에 부응(39.4%) 및 지자체의 요청(22.1%), 정원 충족에 유리(16.3%)의 순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냄.
 - 국공립의 경우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30.4%), 민간(34.4%)과 가정의 경우 부모 수요에 의해(61.5%)의 이유로 운영하게 된 곳이 많음.
- 이용 아동 현황의 경우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평균 이용 일수 17일, 이용 시간 113.7시간 이용건수 32.2건, 이용 아동 수는 5.6명으로 나타남.

- 평균 이용 아동 5.7명 중 2.1명이 매일 몇 시간씩 지속이용하고 있었고, 주기적으로 지속이용 1.8명, 지속적으로 가끔 이용이 1.0명으로 나타남.
- 시간제 보육 이용 사유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기간 동안 이용’이 24.0%, ‘가정양육자녀의 사회성 함양 필요’가 20.6%, ‘파트 타임 직장에 다녀 해당시간만 이용’이 18.3%로 높게 나타남.
- 월평균 시간제 보육료 수입은 2020년의 정상운영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63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9년의 경우는 월평균 132만7천으로, ‘19년이 ‘20년 월 수입의 2배가 넘게 나타남.
- 시간제 보육 운영관련 지출은 ‘교재교구 구입’, ‘기타’, ‘보조교사 인건비’, ‘소모성 물품 구입’, ‘교사처우 개선 비용’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시간제 보육료 수준에 대한 의견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43.3%, ‘적절한 정도임’이 31.7%로 나타남.
- 시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50%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 민간은 68.8%, 가정어린이집은 77%가 부족하다고 응답함.
- 시간당 4천원의 보육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65명의 원장을 대상으로, 적절한 보육료 수준을 물은 결과 52.3%가 5000원~6000원, 6000원~7000원 사이가 18.5%의 순서로 나타남.
- 시간제 보육료 4천원을 정부 3천원, 부모 1천원으로 지불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68.3%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정부2:부모2 방식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방식이 15.4%로 그 다음을 차지함.
- 현재 정부의 시간제 보육 운영비 지원 수준에 대한 의견으로는 ‘적절한 정도임’이 45.2%, ‘조금 부족함’이 36.5%로 나타나, 운영비 수준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였음.
- 운영의 어려움으로는 ‘이용 아동 수 예측이 어려움’이 59.6%, ‘부모의 예약시간 미준수’가 13.5%로 나타났음.
- 시간제보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반을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는 응답자의 35.6%가 ‘신규 이용 아동의 적응’을 33.7%가 ‘혼합 연령동시 보육’을 지적하였음.
- 시간제보육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45.2%), ‘시간당 보육료 4천원’(44.2%), ‘운영비 지원 기

준'(42.3%)의 순으로 나타남.

2) 시간제 보육 운영 어린이집 대상 조사

- 조사에 참여한 시간제보육 미운영 어린이집 152개소 중 96.1%는 시간제보육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65.1%의 어린이집이 시간제 보육 운영을 고려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음.
 -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보육실 공간이 충분치 않아서(39.2%), 부모들의 이용 수요가 충분치 않아서(21.6%)가 높게 나타났고, 시간제 보육 운영을 전혀 고려해 보지 않은 이유역시 보육실 공간이 충분치 않아서(51.6%), 부모들의 이용 수요가 충분치 않아서(23.2%)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제공기관 모집 시 신청의사가 '있음'이 37.2%로 나타났고, 시간제 보육을 도입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정도 중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한 영역이 '시간제 보육 전용 공간 기준요건이 50.7%, 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이 39.5%, '시간제 운영비 지원금 수준'이 28.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수가 높은 영역으로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1:3'(46.7%), 일일 9시-16시 운영(42.1%), 시간제 보육 전용 프로그램의 불충분(41.4%)의 순서로 장애로 여기지 않고 있는 정도를 보임.
- 시간제 보육의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에서는 '점심시간(12:00-13:00)에 이용을 제한하거나 추가비용을 부과함'에 53.1%, 현재 시간 단위인 이용 예약을 2시간 단위로 묶어서 하도록 함이 44.5%로 매우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남.

나. 사례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 보육 사업 운영주체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11, 12월에 거쳐 서초구청 시간제 보육 담당자와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면담하였음.
- 서초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사업 참여 저조로 현재 어린이집에서 1군데만 운영하고 있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이 6군데가 있음.
 - 서초구형 시간제 보육으로 공간기준을 완화시킨 유형, 유아반을 허용한 유형을 운영중이었음.

- 광명시에서는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닌 시장내 유휴 공간을 이용하여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음.
- ‘광명시장 보육센터’사례는 시장 내의 공실이 생긴 공간을 개조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지역상권활성화의 의지와 어머니들의 시간제 보육 수요가 맞물려 진행이 되었음.
- 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공간이 멀고, 주차비가 발생하여 접근성의 어려움이 존재하여, 시간제 보육 공간의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4. 시간제보육 운영 개선 요구

- 시간제 보육 운영자 대상 면담은 2020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총 5차례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대상으로 한 개인 및 집단면담 3차례, 민간 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한 집단면담 2차례를 통하여 총 17명의 원장 및 센터장이 참여함.
- 시간제 보육 운영 초기 시점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여유 공간이 없어 도서관 및 교사실 등의 기존 이용하고 있던 공간을 이용해서 시간제 보육 공간을 만든 경우가 많았음. 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는 센터에 시간제보육을 위한 공간 마련이 용이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줄어드는 원아수로 남는 공간이 생겨 시간제 보육을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음.
- 시간제 보육에 적절한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설하는 어린이집에 시간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기존 원아들과 분리되어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시간제 보육 특성에 맞게 설계를 함이 좋다는 제안이 있음.
- 초기에는 긴급한 일이 있을 때 맡기는 긴급 돌봄의 형태로 오는 아이가 많았으나 점차 정기적으로 2-3시간 이상 이용하는 영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정기적인 이용이 많아지면서 정기적 이용자가 한달치를 미리 예약함으로써 긴급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하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긴급보육을 위한 자리를 비워두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시간제 보육의 초기 취지처럼 정말 급한 경우의 긴급보육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에, 시간제 보육은 두

반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함.

- 처음 오는 아이들은 적응을 위해 1시간만 오게 하거나, 1명만 신청을 받게 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가 있기를 바램. 갑작스럽게 맡겨지는 긴급보육의 경우 사전 적응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 대 교사 비율이 1:3으로 유지가 어려움.
- 시간제보육은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영아가 한 반에 1:3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인데, 6개월과 36개월 사이에는 큰 발달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활동이 불가능함.
- 이용 중간에 36개월 연령이 되는 영아는 연도 중간에 이용을 중단해야 함.
- 시간제보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꾸준히 오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썸. 교사들이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두 반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시간제 보육반의 교사는 시간제 반만 운영하고 다른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일반 교사와 업무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일부 어린이 집에서는 시간제 보육반의 업무량에 따라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고 함.
- 3~5월은 아동이 없어서 홍보나 인건비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외의 달에는 업무 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용이 어렵고 교사의 질을 확보하지 못함.
- 시간제 보육반의 특성상 수요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많이 올 때는 업무가 많고 아이가 없을 때는 업무가 없지만, 보육 아동 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인건비 100%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3~5월에는 아이들이 정규 어린이집 입소를 시작하여 시간제 보육이용 아동이 많지 않아, 시간제 보육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운영비 사용에 있어서 어린이집 정규보육의 운영과 시간제 보육 운영의 회계 체계가 따로 이루어져서 번거로움이 있고, 별도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사용범위가 넓혀지기를 희망함.
- 결재시스템에 있어서 부모가 시간제보육 이용 시 직접 결재하는 시스템이라, 교사의 업무가 부담이 됨.
- 별점제도 규정상 별점이 -7점이 되면 그 달 예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별점이 월초가 되면 초기화가 되는 점을 이용해서, 월 말이 되면 예약해 놓은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나오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있음.

- 시간제보육은 이용 만족도가 높고 아이들도 적응이 잘 되어 시간제를 이용하던 아이가 정규 원아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신규원아 모집에 도움이 됨.
-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점으로, 선생님들이 직접 밖으로 나가 홍보물을 돌리거나 하는 경우도 많음. TV를 통한 공익광고 형식의 홍보에 대한 효과를 기대함.

5. 시간제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델 개발

가. 시간제보육 활성화를 위한 모델 제안

1) 모형 1: 시간제보육 전담형 어린이집

- 시간제전담형 어린이집은 시간제보육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접근성이 높은 가정어린이집을, 일반적인 정규 보육은 하지 않고 시간제 아동만 수용하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보육 시설임.
- 최대 보육 아동 수 20명 이내에서 다양한 월령별 다수 반 구성이 가능하고 보육형태는 ‘정기보육반’과 ‘일시보육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일일 단시간씩 지속 이용을 원할 때, 월 기준으로 주 2회 또는 주 3회 등 정기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요일을 미리 예약하고 이용하는 방식이 정기보육반임. 일시보육반은 부모의 갑작스러운 외출이나 병원 이용 등으로 일시적인 아이 돌봄이 필요할 때 부정기적으로 예약하고 이용할 경우가 이에 해당함. 시간제보육 전담형 어린이집은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보육반을 모두 운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운영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간제 전담형 어린이집의 운영 사례와 비용을 가상으로 산출해 보면,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간제 보육료 수입 예상액이 10,640,000원 이므로, 교사 인건비 지원액 14,525,000원을 포함하면 총 수입은 25,165,000원이 되어 필요 비용 예상액 24,575,000(비점직 원장 인건비 포함)원을 넘어서는 수준이 됨.

2) 모형 2: 반 정원 내 시간제 포함형

- 어린이집의 정규 보육반 현원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 빈자리만큼 시간제보육 영아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모델임. 이 때 시간제 아동은 해당 연령에 맞는

반의 정원에 포함되도록 배정되어야 하며, 월별로 예약을 하고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는 시간제보육 이용을 보장해 주어야 함.

- 시간제 이용 아동이 지속적으로 있고 정규반으로 3개월 이내 변경할 의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 시간제 아동 지원을 위한 보조교사를 채용하도록 함. 보조교사가 시간제 아동의 등하원지도, 부모접견, 비용 결제 업무를 담당함.
- 시간제보육 아동 수는 해당 연령 반 정원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영아는 소속된 정규 보육반 아동들과 동일한 보육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정규보육반의 담임교사가 시간제 아동을 함께 보육함.
- 운영시간은 기본보육과 동일하게 최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며, 이용은 최소 일일 3시간으로 제한을 두어 교사의 보육프로그램 운영 안정성을 꾀함.

3) 모형 3: 보육실 공유형

- 시간제 운영을 위한 별도 반 구성을 위한 어린이집내 여유 공간 없어 공간 조건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만일 기존 0세 또는 1세반 보육실에 해당 연령에 맞는 시간제보육 1개 반이 추가되어도 될 만한 공간이 충분하다면 (아동당 면적 기준 1.65㎡) 정규보육반과 시간제보육반이 한 보육실을 공유하며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임.
 - 2개 반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명 (정규반) ‘2-담임제’와 유사한 방식이며 다만 한 반은 정규반, 한 반은 시간제 반으로 구성된다는 차이점이 있음.
- 두 반의 아동은 동시에 동일한 보육프로그램으로 활동할 수 있고 다만 시간제 아동이 예약이 끝나는 시간에는 다른 시간제 아동으로 대체되는 단점이 있음.
- 국내외 면적 기준을 참고로 하여, 0세반(0~24개월)은 1인당 3.3㎡, 1세반(25~36개월)은 1인당 3.1㎡를 기준하고 결과적으로 0세반 보육실 면적이 19.8㎡이상, 1세반 보육실 24.8㎡이상을 갖추고 있을 때 시간제보육 1개반을 한 공간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함. 이 때 시간제 보육반의 정원은 3명이므로 0세반 보육실은 총 6명, 1세반 보육실은 총 8명이 최대 동시 보육 활동 집단이 될 수 있음.

나. 시간제보육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 시간제보육 이용 아동의 70% 이상이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일일 평균 이용 시간은 3시간 32분이므로, 대다수가

1~2시간의 단기 이용보다는 일일 3~4시간씩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정기적 장시간 이용 수요가 많음을 감안하여 시간제보육 반이나 프로그램 구성, 시설 운영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시간제를 운영해본 많은 원장들이 시간당 4천원인 현 보육료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음. 인상 시에는 시간 당 5,000원 내지 6,000원이 적당하며 정부지원 대 부모부담은 3:1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37.5%의 원장은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음 또한 주목할 만함.
- 교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간제운영 어린이집에서 100% 지원 기준 준수가 어렵고 특히 3, 4, 5월에는 자리가 많이 비게 되어 인건비 지원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음.
- 조사에 참여한 원장의 71.2%가 시간제보육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었고, 현재 시간제보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 중 40%가량이 시간제보육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임. 시간제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 인구구조(영아가 많은 지역), 영유아 어머니 취업률(비취업모가 많은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접근성을 감안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간제 전담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이 경우 인건비지원이 필요하며 타인건비지원 시설의 관리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지자체 장기임차 등 제도를 활용하여 국공립 전환을 선제 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시간제보육반의 독립보육실 공간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정규보육반 보육실의 공유 방법이 있으며 이때에는 교사 간 원활한 협업, 추가인력 투입, 공간 규모에 대한 기준 준수 등의 검토를 통해 승인되어야 함. 일본이 독립 시간제실 규정을 이후 수요 대응을 위해 폐지한 선례를 고려해보아야 함.

I

서론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영아를 위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3년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시간제보육을 선정하고 주요 양육 지원 제도로서 도입을 추진하였다. 시간제 보육은 정부가 일시적 또는 긴급 상황 시의 보육 지원, 가정양육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등을 목적으로, 2013년 일시보육 시범 사업 추진 후 ‘시간제 보육’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확대, 개편하여 2015년부터 본격 추진한 사업이다(신수진 외, 2017).

시간제 보육은 2020년 10월 기준 전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561개 반을 지정·운영 중이며, COVID-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이용아동 수가 줄기는 했으나 2019년 12월 기준으로는 2만 명이 넘는 아동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육진흥원, 2020). 이에, 정부는 그간 연평균 60개씩 증설해오던 시간제보육 반을 2020년에는 166억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207개 신설을 목표로 하였고 향후 접근성 제고를 위해 확충 정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12. 18).

시간제보육 이용 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로서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가정의 자녀이며, 월 80시간 동안 시간당 3천원 정부 지원과 개인 부담금 1천원의 보육료로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시간제보육 이용률은 전체 영아의 3.6% 수준이며, 회당 평균 199.6분 동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유해미 외, 2018).

시간제 보육은 이용자 대상 조사에서 다수가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여 지지하고 있으며 만족도 또한 이용자의 91.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한국보육진흥원, 2019: 보건복지부, 2019 재인용), 더 많은 부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필요성

이 타당성을 얻고 있다. 높은 사업 만족도로 인해 2020년도에는 국민참여예산평가단으로부터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한국보육진흥원 관계자 면담, 2020. 11).

이러한 맥락에서, 시간제 보육 확충에 방향성을 두고 이에 어려움이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시간제 보육의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71.4%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나 2018년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는 만족 비율이 68.7%로 나타나 연도에 따라 낮아진 결과를 보인 바도 있어(김은설 외, 2015; 이정원 외, 2018) 운영 제도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 진행된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과의 면담에서, 시간제 보육 확대의 필요성에는 대다수 동의하였으나 서비스 자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영유아 부모의 인지율이 낮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시간제보육 제공 기관 담당자 간담회, 2020. 10).

정부는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2022년부터 0~1세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3년간 월 50만원까지 증액 지원할 것을 공시하였다(문화일보 12. 15일자). 영아 수당이 많아지면 0-2세 영아기에는 어린이집으로 보내기보다는 육아휴직 등을 활용해 가정내 양육을 선택하고 보완적으로 시간제 이용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시간제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 부모의 높은 필요성 인식과 수요자 맞춤형 보육 제공이라는 제도의 의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처의 한계로 접근성에 제한이 있으며, 영유아 부모의 서비스 인지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시간제 보육의 확대와 활성화, 제도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실천적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 가정 양육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집 이용 부모와의 지원 비용 형평성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도 시간제 보육 사업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 목적

시간제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제공 시설을 확충·다양화하여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용에 대한 부담이 없고 돌봄에 관한 부모의 신뢰

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정혜진, 2017). 그러므로 시간제 보육 제공 시설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국공립뿐 아니라 민간 또는 가정 어린이집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시간제로 전환하거나 일반보육과 병행,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며, 운영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간제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운영의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던 비용, 인력, 시설 환경, 프로그램 등 개선이 필요한 관련 부분을 재검토하고 적절한 운영 모델이 될 수 있는 시범적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시간제 보육 활성화에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제시하며, 이와 같은 필요조건이 작동하기 위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간제보육 운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환경 구성을 비롯하여 필요 인력 구조, 적정 비용 및 예산 규모, 지원 방식, 보육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최적의 운영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여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의 가정 양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세밀하고 실용적으로 설계된 시간제 보육 서비스 모형의 적용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보육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체감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제시된 시간제보육 모델을 적용하여 실제 운영의 적합성과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근거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2. 연구내용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제보육 제도의 구조와 이용 현황 및 수요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간제보육의 정책적 의의 및 성과를 확인하고 시간제보육 이용자의 행태 분석, 시간제 보육 수요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둘째, 시간제보육 운영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시간제 보육 운영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 실태와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시간제 보육 운영 수요 파악 및 사업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시간제 보육 활성화를 위한 적정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적정한 방식의 시간제 보육 제공을 위한 인력 기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즉,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 보육료 수준, 최대 지원 시간 등을 포함하여 시간제보육 운영 개선을 위한 모델을 제안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시사점 도출과 더불어, 시간제 보육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문헌 및 기존 자료 검토

- 시간제 보육 현황, 문제점 및 개선안 관련 선행연구 검토, 분석
- 시간제 보육 이용 및 수요 파악을 위한 기존 조사 자료, 통계 자료 등의 검토
- 관련 법령, 사업 운영 지침 등 운영 근거 자료 수집 및 검토
- 시간제보육 관련 해외 사례 분석

○ 간담회 개최

- 대상: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설 유형, 수도권-비수도권 등 지역, 이용 영유아 수 등을 고려한 시간제 보육 운영자
- 조사 내용: 운영 방식, 사업의 장점, 운영 상 애로점, 개선 필요 사항, 확대 방대 방안에 대한 의견 등
- 방법: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집단(4명) 대면 면접 방식의 간담회 8회.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라 모든 간담회는 화상회의(Zoom프로그램)로 진행함.

〈표 I-3-1〉 간담회 개최 일정, 참석자 및 주제

차수	일시	참석자 대상	주제
1차	2020. 10.	시간제보육 운영 어린이집 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4인	운영 현황, 개선요구 등
2차	2020. 10.	시간제보육 이용 영아 부모 4인	이용 소감, 요구사항 등

차수	일시	참석자 대상	주제
3차	2020. 11.	시간제보육 운영 어린이집 원장(국공립) 및 센터장 수도권/ 비수도권 총4인	운영 효과, 요구 등
4차	2020. 11.	시간제보육 운영 어린이집 원장(민간, 가정) 수도권/비수도권 총 4인	운영 현황, 개선요구
5차	2020. 12.	시간제보육 운영 어린이집 원장 4인	시간제보육 운영 모델 안 관련 의견
6차	2020. 12.	시간제보육 미운영 어린이집 원장 4인	시간제보육 운영 모델 안 관련 의견
7차	2020. 12.	시간제보육 운영 어린이집 교사 4인	시간제보육 운영 모델 안 관련 의견
8차	2020. 12.	시간제보육 미운영 어린이집 교사 4인	시간제보육 운영 모델 안 관련 의견

○ 심층면담

- 대상: 시간제 보육 제공 시설 유형 및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한 이용 부모
- 조사 내용: 이용 이유, 이용의 장점 및 장애물, 접근성 정도, 개선 필요 사항 등
- 면담 방식: 반구조화된 질문지 및 자유토의를 활용한 소규모 집단 대면 면접
- 진행 일정: 2020. 12. 진행. 부모 4명 대상

○ 사례조사

- 시간제 보육 운영 우수 사례에 해당하는 지자체 선정 후 담당자 면접, 운영 현장 사례 답사 등 진행
- 담당 공무원, 현장 관련자 등 면접 진행, 시설 구조 및 운영 방식, 프로그램 등 자료 수집
- 참여 대상: 서울시 서초구청, 경기도 광명시 육아종합센터

○ 설문조사

- 목적: 시간제 보육 확대 운영 실태 및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 대상: 시간제보육 운영 및 미운영 전국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원장 총 200명 (시간제 운영 100명, 미운영 100명) 대상 웹 설문조사 실시
(※ 최종 참여자는 시간제 운영 시설 104명, 미운영 시설 152명임.)
- 기간: 2020년 12월 4일부터 12월 13일
- 방법: 온라인 웹을 통한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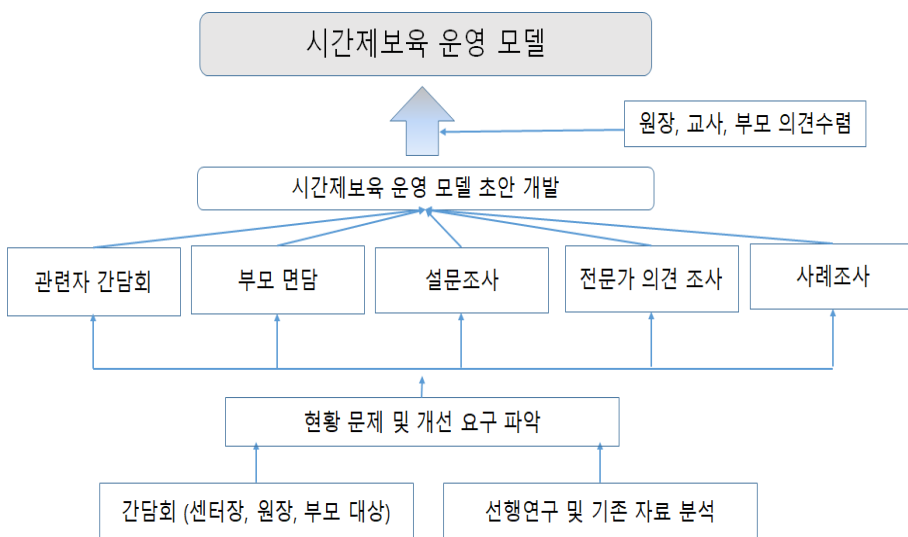
○ 전문가의견 조사

- 목적: 시간제보육 운영 모델에 대한 의견조사 및 보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대상: 보육 분야 대학 교수, 한국보육진흥원 관계자 등 총 20명
- 기간: 2020년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
- 방법: 이메일을 통한 의견 조사지 송부 및 수신

○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

- 보건복지부 시간제 보육 업무 담당자와의 지속적 업무 협의

〈그림 1-3-1〉 시간제보육 운영 모델 개발 과정



II

연구배경

- 01 시간제보육 사업 개요
- 02 시간제보육 현황
- 03 선행연구
- 04 해외 사례

II. 연구배경

1. 시간제보육 사업 개요

가. 사업 내용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이다(보건복지부, 2020a: 3).

지원대상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 대상이며, 제공기관은 시·군·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며, 관리기관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0a: 3)

나. 추진 과정

2012년 영아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와 함께 보육시설 이용보다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부모들의 보육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여성근로자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응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일시보육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었다(신수지 외, 2017). 이에 2013년 정부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국정과제로 추진, 일시보육 시범사업을 도입하였다.

일시보육 시범사업은 4개 시도 15개소 21개반으로, 긴급히 일시적으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양육 서비스로 출발하였다(신수지, 이승연, 2017). 2014년에 일시보육 시범사업의 명칭을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 내용을 강화하고 규모를 확대였다(신수지, 이승연, 2017). 서비스 제공기반을 확충하고, 근로형태에 따른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맞춤형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시간 및 단가를 추가 지원

하는 유형별 지원을 도입하였다.

2014년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모형 및 효과성을 확인하고 2015년부터는 이를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원화된 자격 기준을 없애고, 맞벌이 자부담 1,000원, 일반 자부담 2,000원에서 자부담 1,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후 2019년 3월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 역시 기존 1:5에서 1:3으로 조정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 사업 기준

1)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보건복지부, 2020a: 7)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② 어린이집

③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¹⁾

회계 관리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보건복지부, 2020a: 50)을 준수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은 해당 규칙을 따르고 있다(제2조의2)

1) ‘보육 관련 시설’은 ①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예시 : 아동회관), ② 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육 관련 시설로 함

2) 운영 방법

가) 운영 기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간제 보육 이용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이며, 지원대상은 양육수당 수급 가구, 지원기간은 월 최대 80시간이다.

보육료의 경우 시간당 이용단가는 4천원, 그 중 정부 지원은 3천원이며 부모 자부담금은 시간당 1천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a: 13).

〈표 II-1-1〉 시간제보육 이용 및 지원 시간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 가구
지원기간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정부지원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

주: 1)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원)
 2)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16일 이후 변경 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2020a). 2020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p. 13

시간제보육의 정원기준은 기본보육 정원 내, 시간제보육을 위한 3명 이상의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 교사 대 영아비율은 1: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간제보육반의 탄력편성은 불인정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원칙적으로 월요일~금요일 (09:00~18:00)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a: 13). 예약이 없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담임교사의 휴게시간으로 활용 가능하며, 제공기관의 임의적인 운영 요일 및 시간 변경은 불가하다.

시간제 보육 이용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이 가능하며(보건복지부, 2020a: 15), 이용 부모가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수) 및 아동등록이 어려울 경우, 관리기관 및 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시간제보육 예약은 전화로만 가능하다.

〈표 II-1-2〉 시간제보육 이용 방법

구분	내용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전화신청(☎1661-9361)	전화신청(☎1661-9361)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아이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전 아이사랑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 	

주: 1)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음. 다만, 이용부도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

2) 아이행복(사랑)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4,000원)

3)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 불가(의사의 완치 소견서 제출 시 이용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20a). 2020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p. 15

예약 가능 기간은 이용일로부터 30일 전이며, 예약시간 연장은 1시간 단위로 가능하며 예약종료시간 20분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0a: 15). 예약 취소 시 별점제를 운영(이용일 5일전까지 별점 없이 예약취소 가능)하고 있으며 별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II-1-3〉 별점 기준

이용 전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당일			
3~4일 전까지	1~2일 전까지	예약 시간전	예약시간내	미이용	초과이용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주: 초과이용은 사전 연락 및 예약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함

자료: 보건복지부(2020a). 2020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p. 16

당월 누적 별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 불가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a: 716). 단, 당일 긴급신청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별점은 이월되지 않으며 별점 취득 시 SMS로 고지하고 있다.

별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9.2.15 시행) 제18조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 시 별점 부과 없이 예약 취소 가능

- 그 밖에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기관 관할 관리기관(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으로 관련 증빙서류(처방전, 진단서, 영수증 등) 제출 시 별점 부과 없이 예약 취소 가능

결제는 이용할 때 마다 방문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제기준은 예약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표 II-1-4〉 결제 방법

구분	아이행복카드 결제	기타 결제
결제방법	◦ 이용할 때 마다 결제(방문결제)	
종류별 결제방법	◦ 아이행복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	◦ 현금 및 계좌입금
결제기준	◦ 예약시간 기준 (예: 3시간 예약 후 2시간 이용 시 결제비용은 3시간 금액 결제)	
준비물정부지원	◦ 이용시간 기준(정부지원금은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생성)	
비고	◦ 현금으로 결제 시 제공기관은 '보육료 수납 영수증' 제공 및 보관 (관련서식 [서식 11호] 참조) - 단, 30일 이내 아이행복카드로 재결제 및 현금 환불 가능 - 30일 이후에는 부모 동의에 따라 현금 수납으로 대체(제공기관은 '아동명'으로 계좌입금) ◦ 초과 이용한 시간에 대한 금액은 현금으로 결제	

자료: 보건복지부(2020a). 2020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p. 16

나) 시간제 보육실 설치 기준

시간제보육 정원은 1개반 기준 3명이며, 시간제보육반 정원은 총정원 내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20a: 7). 시설설비는 면적,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방설비 기준, 보험 가입 등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표 II-1-5 참조).

〈표 II-1-5〉 시간제 보육실 설치 기준

필수항목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정원	◦ 3명 (1개반 기준) - 시간제보육반 정원은 총정원 내 포함	
보육실 확보	(공동) 시간제 보육실 13.2㎡ 이상(1개반당)	
	◦ 어린이집 전용면적 4.29㎡(영유아 1인당)	◦ 영유아의 실제적 보육 공간 21.45㎡ 이상 - 영유아의 실제적 보육 공간: 영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따른 보육실 기준 충족	

필수항목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별표 1]의 제1호 및 제3호 중 충수제한, 조리실, 목욕실, 놀이터는 제외 가능 	
비상재해 대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가목의 3)의 아)' 요건 충족 필수 	
소방설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노유자 시설'중 아동관련 시설로서 요구되는 ①소화설비, ②경보설비, ③피난설비 등의 요건 충족 필수 	
보험가입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5항	
	안전공제회 '시간제보육 특약' 가입 의무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시간제보육 아동' 적용여부 확인 또는 추가 가입 의무
평가 등	(공통)「2019년도 보육사업 안내」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개원, 또는 인가변동사항(대표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B등급 이상으로 평가 시 계속 운영 가능 - 법령위반, 행정처분, 그 밖의 사유로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 단, 2019년 5월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19. 6. 12.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시행 이전의 종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인증통과(유효기간 내 2차 지표 90점 이상 또는 3차 지표 85점 이상 또는 통합지표 B등급 이상 유지) 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하며, 신규 인가, 인증 종료, 혹은 인증 취소된 기관의 경우, 사업개시일, 인증 종료일 또는 인증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증 획득 시 지속 가능 - 단, 신규 인가된 기관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해당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 인증 결과 발표 시까지 시간제 보육반의 계속 운영 가능 	
	* 동 규정은 '19. 6. 12.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충족률 50% 이상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공고 후 지정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 정원* 총족률(현원/정원*100)이 평균적으로 5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연장형, 시간제, 방과후 아동은 정원, 현원에서 제외 ** 신규참여 기관에 한함(반증설의 경우 제외)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설치기준은 운영기간 내 유지되어야 하며, 운영 중 설치기준 변경사항 발생 시 지정 취소될 수 있음
 2) 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제보육반 정원은 어린이집 총정원에서 기충족된 것으로 보며 시간제보육반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2020a). 2020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p. 7-8

다) 인력 관리 기준

인력관리 기준을 살펴보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담당교사는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이며, 총 보육경력 3년 이상으로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a: 10).

〈표 II-1-6〉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력 기준

구분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직종(직위)	보육교사(담임교사)	
채용기관 및 관리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1~3급) 경력: 총 보육경력 3년 이상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 채용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피하게 사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담당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등 그 외 시간제보육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운행, 어린이집 행사 등 시간제보육과 관계없는 지원업무 수행 불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이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이용하는 보육교사(담임교사)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음 	

주: 1) 어린이집 외 제공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 채용하여 파견하되, 참여 기관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2)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의 시간제 보육반 담임교사의 호봉인정 및 승급기준은 이 지침이 정한 '국고보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호봉인정기준'을 준용함

자료: 보건복지부(2020a). 2020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p. 10

관리기관의 관리자는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자로, 보육교사 1급 자격자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3년 이상 경력자를 원칙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20a: 10).

〈표 II-1-7〉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인력 기준

구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종(직위)	시간제보육 관리자(경력시스템 상의 직위분류: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채용조건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자를 관리 인력으로 채용〉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구 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 이용자 상담 ◦ 시간제보육 예약·취소 관리 ◦ 시간제보육 이용자 및 제공기관 모니터링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 지원(이용실적 및 운영현황관리, 서비스 개시지원, 컨설팅 등) ◦ 시간제보육 홍보 및 안내 ◦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교사 채용 및 관리 ◦ 그 외 시간제보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관할 제공기관 30개반(지정 기준) 당 관리자 1인 추가 배치 ◦ 2017년도부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기관 역할 담당

주: 1) 시간제보육 관리자의 경력 반영

- (시·군·구)행정지원시스템 경력 수동 입력(직위: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적용시점: 2015. 1. 1.~)

자료: 보건복지부(2020a). 2020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p. 10

라) 지원 내용 및 기준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이나,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부담금 100%로 규정하고 있다.

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은 시간제보육 교사의 근무시간 준수, 월 시간제 보육 이용건수 기준 충족,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교사를 채용한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제공기관 사업 개시일부터 지원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0a: 11-12).

또한, 개소당 2천만원 이내 실비 지원하고 있으며,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았으나 리모델링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 취소된 경우, 1년에 10%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a: 11-12).

〈표 II-1-8〉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원 내용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 시간당 4,000원(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부담금 100% ※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16일 이후 변경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p>(지원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 이용아동수, 이용시간 등 이용실적(1개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건수 20건 이상, 이용아동수 2명 이상, 이용시간 40시간 이상에 모두 해당할 경우 70% 지원 이용건수 30건 이상, 이용아동수 4명 이상, 이용시간 80시간 이상에 모두 해당할 경우 100% 지원 ※ 단,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제공기관은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100% 지원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단, 참여 포기의 경우 지원 기준에 따라 지정취소일까지 지원 가능) 자율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현장점검 또는 수시점검 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로 교사를 채용한 경우만 지원(대표자·원장의 교사겸직 지원 제외) 제공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지원 <hr/> <p>(인건비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 호봉별 단가, 4대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 4호봉 단가, 4대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공통) 교사수당 18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기타 보육교사 대상 수당은 각 요건 충족 시 별도 지원 가능 <p>(운영비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조건에 따라 월 22.4만원 또는 32만원(1개반 기준)
리모델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소당 2천만원 이내 실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았으나 리모델링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 취소된 경우, 1년에 10%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

주:1) 지원기준 미충족 시 인건비 및 운영비 미지원(※ 단, 개시 1년 미만 제공기관은 사업 개시 월 미포함)

2) 사업개시일: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 반 등록 기준

3)이용실적은 전월 기준으로 판단

자료: 보건복지부(2020a). 2020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p. 11-1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은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관리기관 사업 개시일부터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a: 12).

〈표 II-1-9〉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지원 내용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 관리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지원
	(인건비 지원내용) - 지원단가: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단가(5호봉을 시작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 승급* 가능), 4대보험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18. 3. 1.부터 적용
	(운영비 지원내용) - 관할 제공기관 10개소까지는 기본 50만원 지원, 이후 관할 제공기관 5개소 단위로 5만원 추가 지원 ※ 단, 1곳의 관리기관이 여러 개의 제공기관을 관리하며, 원거리 출장비 등으로 월 50만원 이상 초과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20a). 2020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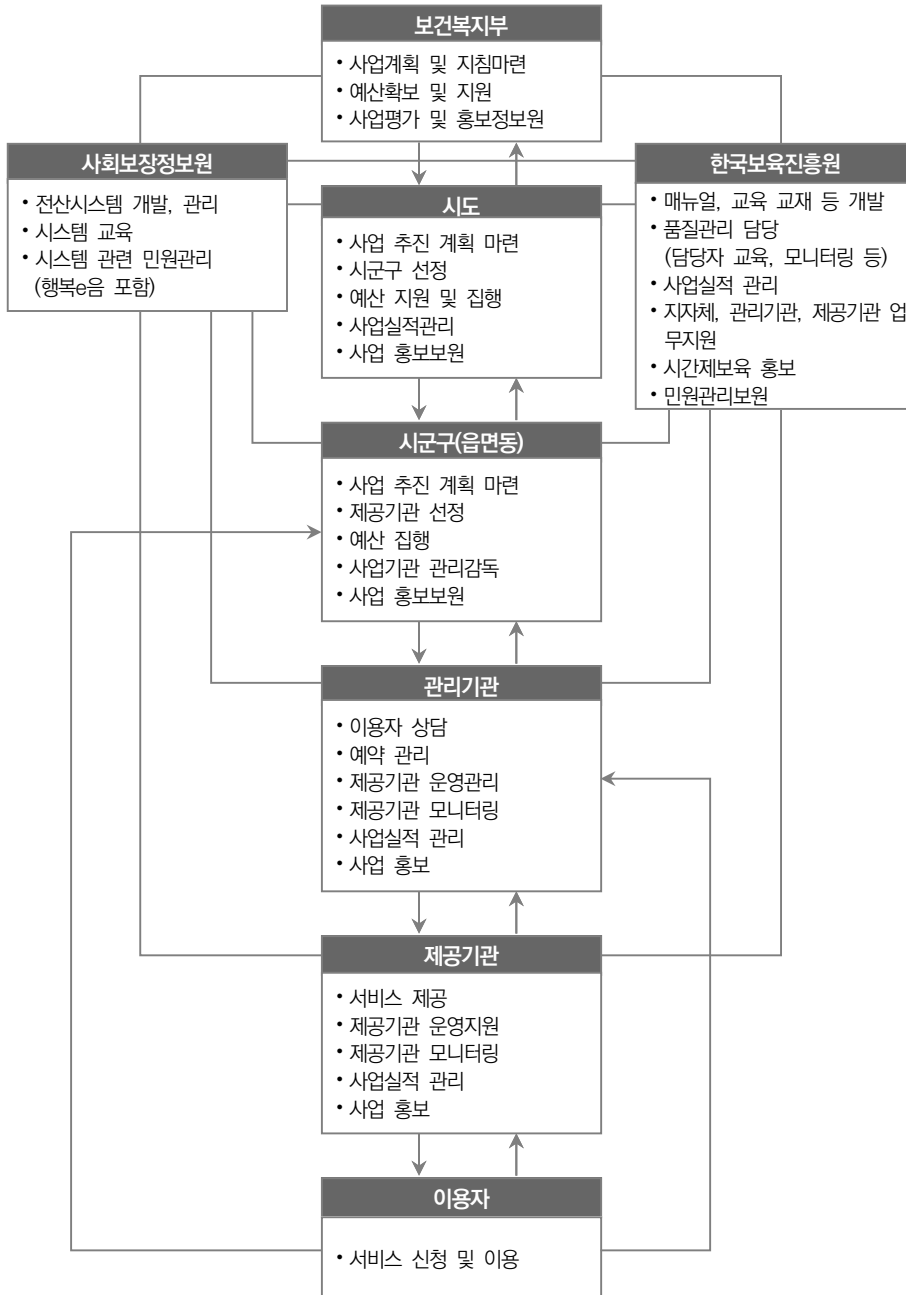
3) 운영 체계

시간제보육의 사업 주체는 시간제보육에 참여하는 시도·시군구 지자체, 서비스 제공기관과 관리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시군구로부터 지정받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관리기관은 사업에 참여한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해당 지역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관리한다([그림 II-1-1] 참조).

각 기관별 담당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1-10〉와 같다. 시도 담당자는 시간제보육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에 사업량을 조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며, 사업 관리 감독과 홍보, 실적 관리 및 평가를 추진한다.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기관 선정 및 관리, 모니터링, 담당인력 임면관리, 지정 취소 및 참여포기 관리, 보조금 교부 등 예산집행 및 실적관리, 홍보, 사업평가 등을 추진한다. 읍면동에서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안내 및 사업 홍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 기관은 시간제보육 상담 및 지원, 시간제보육 예약 관, 제공기관 운영 지원, 제공기관 모니터링(컨설팅), 홍보 및 안내, 그 외 시간제보육 관련된 업무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시간제보육 홍보, 시간제보육 자율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II-1-1〉 시간제보육 사업 운영체계



자료: 보건복지부(2020a). 2020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p.21

〈표 II-1-10〉 기관별 담당 업무

추진 주체		기 능
보건복지부	사업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 예산확보 및 지원 ◦ 사업평가 및 홍보
시·도	사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시군구에 사업량 조정 및 예산 지원 ◦ 시군구 사업 관리 감독 ◦ 사업 홍보
시·군·구	사업 중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제공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모니터링) ◦ 예산집행 및 실적보고 ◦ 사업 홍보 ◦ 사업 평가
읍·면·동	서비스정부지원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안내, 사업 홍보
한국보육진흥원	운영 총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교육 교재 등 개발 ◦ 품질관리 담당(담당자 교육, 모니터링 등) ◦ 사업실적관리 ◦ 지자체 업무지원 ◦ 관리기관 업무지원 ◦ 제공기관 업무지원 ◦ 시간제보육 홍보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운영시스템 관리 ◦ 민원관리
사회보장정보원	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 이용 및 운영* 시스템 개발(개선) 및 운영 * 신청·접수, 예약·이용·결제, 관계 정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 ◦ 시간제보육 관련 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 등 ◦ 시간제보육 시스템 관련 교육 ◦ 시간제보육 시스템 관련 민원관리
시간제보육관리기관	사업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 상담 및 지원 ◦ 시간제보육 예약 관리 - 제공기관 운영 지원 (이용실적 및 운영현황관리, 서비스 개시지원 등) ◦ 제공기관 모니터링(컨설팅) ◦ 홍보 및 안내 ◦ 그 외 시간제보육 관련된 업무
시간제보육제공기관	사업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 시간제보육 홍보 ◦ 시간제보육 자율점검보고서 작성, 제출

자료: 보건복지부(2020a). 2020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p.22

시간제 보육의 질은 시간제보육 담당자 교육, 시간제보육 모니터링 (신규기관 현장방문 컨설팅, 제공기관 자체점검, 지자체 현장 점검, 수시점검), 지역 시·도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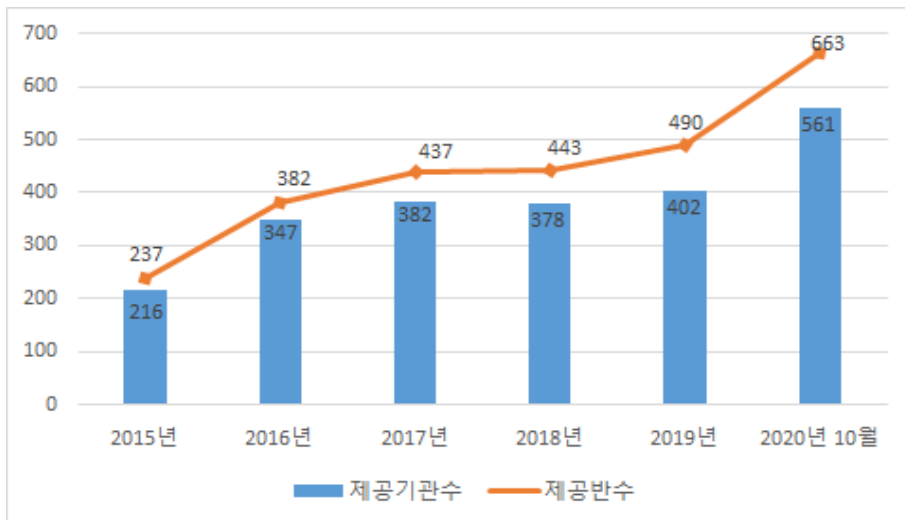
시·군·구 담당 공무원, 관리기관, 제공기관 대상 지역별 간담회 및 담당 공무원, 관리기관, 제공기관 대상 전체간담회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2. 시간제보육 현황

가. 서비스 제공 시설 현황

2014년 시범사업 이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및 반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정부의 시간제보육반 지원 확대 방침에 맞춰 전년 대비 159개소, 173반이 증가,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림 II-2-1 참조).

〈그림 II-2-1〉 연도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및 반 수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0.10.31.). 내부자료.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유형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기타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타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개소 수 및 반 수의 꾸준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표 II-2-1 참조). 2020년 10월 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 89개소, 어린이집이 471개소, 기타 1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표 II-2-1〉 연도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및 반 수

단위: 개소, 반,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0월)
제 공 기 관	전체	216	348	382	378	402	561
	육아종합지원센터	48	57	68			89
	어린이집	166	289	312			471
	기타	2	2	2			1
반 현 황	전체	237	382	437	443	490	663
	(전년 대비 확충률)		(61.2)	(14.4)	(1.4)	(10.6)	(35.3)
	육아종합지원센터	61	75	96			144
	어린이집	174	306	339			518
	기타	2	2	2			1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0.10.31.). 내부자료.

2020년 어린이집의 유형별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 138개소, 법인 36개소, 민간 190개소, 가정 93개소로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이 약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표 II-2-2 참조).

〈표 II-2-2〉 어린이집 유형별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수

단위: 개소, 반

구분	2017		2020 (10월)		증감	
	기관	반	기관	반	기관	반
국공립	86	102	138	157	△52	△55
법인	30	30	36	41	△ 6	△11
민간	134	143	190	207	△56	△64
법인·단체	9	10	12	15	△ 3	△ 5
가정	51	52	93	95	△42	△43
직장	1	1	1	2	-	△ 1
부모협동	1	1	1	1	-	-
기타	2	2	1	1	▽ 1	△ 1
전체	382	437	471	519	△160	△180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0.10.31.). 내부자료.

전국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17개 시도에 분포되어 있으며, 2020년 기준 시간제보육 반수는 2015년 대비 모든 시도에서 확대되었으며, 특히 서울, 부산, 광주, 세종, 경기, 경남은 최근 큰 폭 증가를 보였다. 서울, 경기와 부산이 매해 전체 시간제보육 제공 반수의 43-47% 정도의 비율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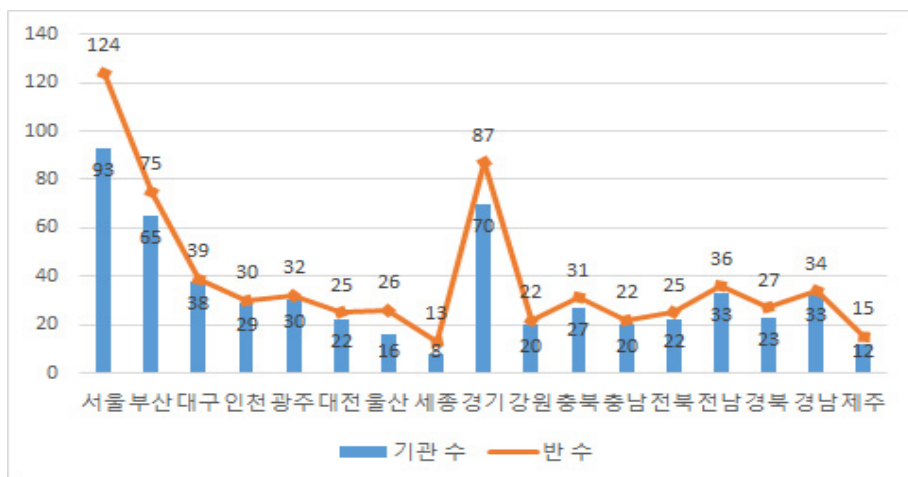
〈표 II-2-3〉 시도별 시간제보육 운영 현황

단위: 반수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0월)
서울	65	80	91	99	111	124
부산	23	38	39	42	49	75
대구	12	29	32	32	29	39
인천	7	16	18	18	23	30
광주	3	10	12	12	15	32
대전	7	21	23	19	18	25
울산	4	12	20	20	19	26
세종	3	3	5	6	10	13
경기	34	52	62	66	72	87
강원	8	12	12	12	13	22
충북	5	13	14	15	17	31
충남	7	11	16	18	17	22
전북	15	18	18	18	19	25
전남	12	17	19	20	26	36
경북	11	19	20	17	20	27
경남	10	16	17	14	18	34
제주	8	15	19	15	14	15
합계	237	382	437	443	490	663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0.10.31.). 내부자료.

〈그림 II-2-2〉 시도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및 반 수: 2020년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0.10.31.). 내부자료.

2020년 지역별 개소수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93개소, 경기 70개소, 부산 65개소로, 경기와 부산이 약 4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II-2-2 참조).

시간제보육은 제공 기관에 따라 1개에서 3개까지의 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1개 반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전체 제공기관 중 1개 반을 운영하는 시설은 464개소로 전체의 8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개반 운영은 92개소로 16.4%, 3개반 운영 시설은 5개소로 0.9%에 그쳤다 (표 참조). 이는 2017년 1개반 329개소 (86.1%), 2개반 (13.4%), 3개반 2개소 (0.5%)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수진 외, 2017)

〈표 II-2-4〉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운영 반 수 분포

단위: 개소(%)

구분	1개반	2개반	3개반	합계
2020년	464(82.7)	92(16.4)	5(0.9)	663(100.0)
2017년	329(86.1)	51(13.4)	2(0.5)	382(100.0)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0.10.31.). 내부자료.

시간제보육 이용 지원 대상인 양육수당 수급 만0-2세 영아 1만 명당 시간제보육반 비율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하면 부산, 울산, 세종, 전북, 전남 등이 서비스 제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2-5〉 시도별 시간제보육반 수 및 양육수당 수급 영아 1만명 당 시간제보육 반 수

단위: 반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반수	영아 1만명 당 반수	반수	영아 1만명 당 반수	반수	영아 1만명 당 반수	반수	영아 1만명 당 반수	반수	영아 1만명 당 반수
서울	65	4.1	80	5.8	91	6.3	99	9.1	111	11.8
부산	23	4.3	38	7.7	39	7.6	42	10.6	49	14.8
대구	12	3.9	29	8.3	32	8.6	32	10.9	29	11.4
인천	7	1.4	16	3.3	18	3.7	18	4.8	23	6.9
광주	3	1.3	10	5.6	12	5.6	12	7.5	15	10.4
대전	7	2.9	21	9.6	23	10.0	19	11.3	18	12.6
울산	4	1.7	12	5.9	20	9.1	20	12.1	19	13.4
세종	3	5.8	3	4.9	5	8.2	6	9.0	10	15.3
경기	34	1.6	52	2.6	62	3.0	66	3.9	72	4.8
강원	8	4.0	12	6.5	12	6.5	12	8.2	13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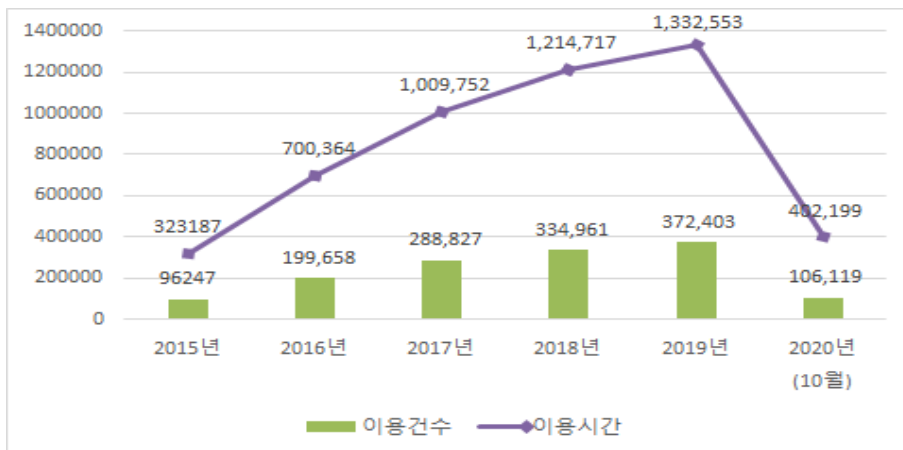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반수	영아 1만명 당 반수	반수	영아 1만명 당 반수	반수	영아 1만명 당 반수	반수	영아 1만명 당 반수	반수	영아 1만명 당 반수
충북	5	1.9	13	5.7	14	5.7	15	7.8	17	10.1
충남	7	2.0	11	3.4	16	4.9	18	6.9	17	7.4
전북	15	6.1	18	7.9	18	7.9	18	10.7	19	13.3
전남	12	4.4	17	7.8	19	7.4	20	10.6	26	15.3
경북	11	2.7	19	5.0	20	5.3	17	6.0	20	8.2
경남	10	1.8	16	3.1	17	3.3	14	3.6	18	4.4
제주	8	9.3	15	17.1	19	21.7	15	19.8	14	21.3
합계	237		382		437		443		490	

출처: 신수진·이승현(2017). 시간제보육 사업의 성과 및 내실화 방안. 한국보육진흥원

나. 시간제보육 이용 현황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간제보육 이용 총 건수와 시간, 시간제보육반 당 이용 건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주.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율이 떨어짐). 연도별 총 이용 건수 및 이용시간을 비교해 보면 2017년은 전년도 대비 약 45%의 이용 건수와 44%의 이용시간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은 각각 16%와 20%, 2019년은 11%와 10%정도 증가율을 보였다(그림 II-2-3 참조).

〈그림 II-2-3〉 연도별 시간제보육 총 이용건수 및 이용시간



주: 1) 2020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운영 중단됨에 따라 전년대비 실적 저조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0.10.31.). 내부자료.

2019년 기준 이용 아동의 규모 및 특성을 연도별,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²⁾. 먼저 2019년 시간제보육 이용아동 수 (중복제거)는 20,388명이다. 연도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전년 대비 83.3%의 증가율을, 2017년에는 35.4%, 2018년은 약 1.8%, 2019년은 약 10.5%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II-2-6〉 연도별 시간제보육 이용아동 수(중복제거)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0월)
이용아동 수	7,297	13,377	18,115	18,437	20,388	8,973

주: 1) 2020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운영 중단됨에 따라 전년대비 실적 저조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0.10.31.). 내부자료.

시간제보육 이용아동의 연령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2019년 연령별 이용건수를 살펴본 결과, 보육연령 만0세의 이용건수는 62.7%로 가장 많고, 만1세 20%, 만2세가 16.9% 순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주 수요층임을 알 수 있다(표 II-2-7 참조).

〈표 II-2-7〉 아동연령별 시간제보육 이용건수

단위: 건수

연령	0세 (6~12개월 미만)	1세 (12~24개월 미만)	2세 (24~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전체
2019	233,461	74,577	63,025	1,343	372,406
2020	15,595	66,886	23,306	332	106,119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0.10.31.). 내부자료.

이용아동 수에 대해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5,217명(25.7%), 경기 4,606명(22.6%), 부산 1,605명(7.89%) 순으로, 서울과 경기도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별 이용아동 수를 양육수당 수급 만0-2세 영아 수 대비 비율로 환산해 보면 평균 3.8%이다. 이는 2017년 2.3% 수준에서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비율을 살펴보면 제주가 8.8%로 가장 많고, 울산 6.8%, 세종 6.7%, 서울 5.6%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II-2-8 참조).

2)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운영 중단됨에 따라 전년대비 실적 저조함에 따라 2019년까지의 이용 실적을 검토함

〈표 II-2-8〉 시도별 시간제보육 이용아동 수: 2019년

단위: 명, %

구분	양육수당 수급 만0-2세 영아 수(A)	이용아동 수(B)*	비율(B/A)
서울	93,901	5,217	5.6
부산	33,126	1,605	4.8
대구	25,506	985	3.9
인천	33,223	871	2.6
광주	14,424	478	3.3
대전	14,243	539	3.8
울산	14,133	963	6.8
세종	6,519	436	6.7
경기	151,624	4,606	3.0
강원	13,521	422	3.1
충북	16,755	409	2.4
충남	22,942	659	2.9
전북	14,329	529	3.7
전남	17,009	771	4.5
경북	24,414	533	2.2
경남	33,505	739	2.2
제주	6,569	576	8.8
합계	535,743	20,338	3.8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0.10.31.). 내부자료.

2019년 자료에 의하면, 반당 월평균 이용 건 수는 경기, 울산, 서울, 경남, 충남에서 가장 많은 편이고, 반당 월평균 이용 시간은 경기, 충남, 서울, 인천, 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가 서울, 경기, 충남, 울산 등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양미선 외, 2015)에 의하면, 시간제보육을 확대하려는 경우 전국적 확대보다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 집중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II-2-9〉 시도별 시간제보육반 당 이용건수 및 시간: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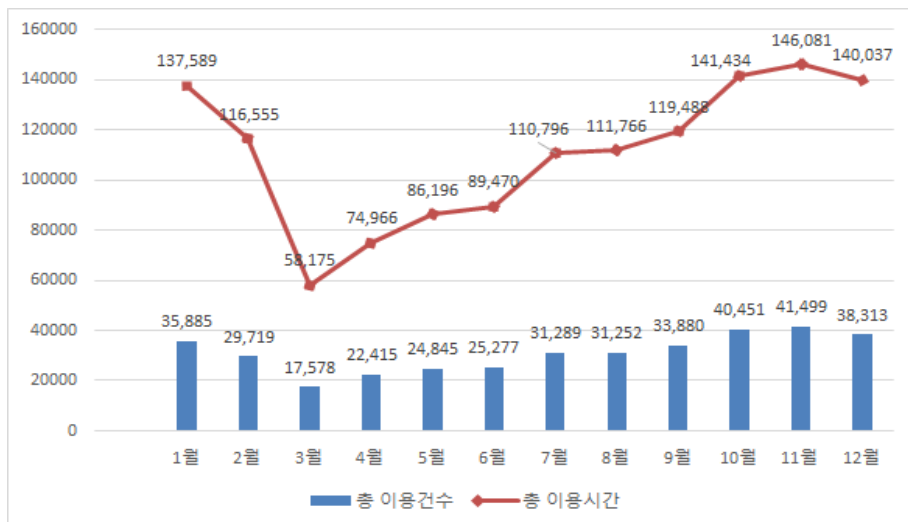
단위: 건수, 시간

구분	반수	이용 건수		이용 시간	
		총 이용 건수	반당 월평균	총 이용 시간	반당 월평균
서울	111	782	69	801	241

구분	반수	이용 건수		이용 시간	
		총 이용 건수	반당 월평균	총 이용 시간	반당 월평균
부산	49	571	53	626	192
대구	29	494	44	568	157
인천	23	638	57	638	239
광주	15	495	45	572	177
대전	18	637	58	668	223
울산	19	861	72	935	235
세종	10	537	55	537	183
경기	72	903	80	966	270
강원	13	583	57	669	224
충북	17	521	51	554	203
충남	17	707	60	757	247
전북	19	687	58	687	227
전남	26	544	53	772	198
경북	20	624	52	624	212
경남	18	641	60	689	209
제주	14	660	57	938	220
합계	490	10885		12001	

출처: 신수진·이승현(2017). 시간제보육 사업의 성과 및 내실화 방안. 한국보육진흥원

〈그림 II-2-4〉 2019년 월별 시간제보육 총 이용건수 및 이용시간



주: 1) 2020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운영 중단됨에 따라 전년대비 실적 저조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0.10.31.). 내부자료.

2019년 월별 시간제보육 총 이용건수 및 이용시간 자료를 살펴보면, 2월에서 3월 사이 이용건수 및 이용시간이 급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3월부터 11월 까지 서서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2-4 참조). 이는 시간제 운영 기관의 원장들이 3-5월 교사 인건비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다.

다. 시간제 보육 이용 실태

이용 이유를 살펴보면, 병원 등 개인용무의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즉, 일반적 ‘보육’ 필요에 의해 이용하고 있다고 보인다(간담회 결과).

〈표 II-2-10〉 시간제보육 이용 이유: 1순위

단위: %(명)

구분	종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취업 준비 교육	취미 여가 활동	병원 등 용무	도래 관계 형성	가사	기타	계(수)	$\chi^2(df)$
전체	12.1	18.3	12.5	15.6	21.3	12.8	3.7	3.6	100.0(673)	
0세	13.0	17.1	13.7	21.9	22.6	5.5	2.7	3.4	100.0(146)	20.5 (14)
1세	10.9	17.4	12.5	15.4	22.1	13.5	4.2	3.9	100.0(384)	
2세	13.7	21.6	11.5	10.1	18.0	18.7	3.6	2.9	100.0(139)	

출처: 신수진·이승현(2017). 시간제보육 사업의 성과 및 내실화 방안. 한국보육진흥원

이용 시간대 및 1회 이용 시간 조사 결과, 하루 중 오전 시간 10시부터 12시 사이가 60~70%로 가장 이용 비율이 높고 오전 9-10시 사이, 오후 4시 이후는 이용이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II-2-11〉 시간제보육 이용 시간대(복수선택)

단위: %(명)

구분	9-10시	10-11시	11-12시	12-13시	13-14시	14-15시	15-16시	16-17시	17-18시	(수)
전체	21.7	62.5	69.2	54.1	47.7	45.5	38.2	25.2	10.2	(673)
0세	23.3	52.4	64.8	47.3	52.7	52.4	41.1	29.5	12.4	
1세	21.4	63.1	70.5	56.4	48.6	47.0	39.8	25.3	10.5	
2세	20.9	71.5	70.1	54.7	40.1	35.0	30.7	20.4	7.3	

출처: 신수진·이승현(2017). 시간제보육 사업의 성과 및 내실화 방안. 한국보육진흥원

1회 이용 시간은 2-3시간, 3-4시간이 가장 많은 편이나 4-5시간도 21%정도여서 대체로 2~5시간까지 시간 길이를 약 75%가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6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세 영아의 이용 비율이 높다.

〈표 II-2-12〉 시간제보육 1회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1-2시간	2-3시간	3-4시간	4-5시간	6시간 이상	계(수)	X ² (df)
전체	14.3	28.3	26.0	20.9	9.7	100.0(673)	
0세	13.0	28.1	29.5	22.6	6.8	100.0(146)	16.7(8)*
1세	11.7	30.2	26.3	22.1	9.6	100.0(384)	
2세	23.0	23.0	25.2	15.8	12.9	100.0(139)	

출처: 신수진·이승현(2017). 시간제보육 사업의 성과 및 내실화 방안. 한국보육진흥원

* $p < .05$

시간제 보육 이용 횟수는 매일이 28%이고 주3~4회 정기적 이용이 33.5%로, 주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61.6%로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주 1~2회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인 18.4%를 더하면, 80%가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표 II-2-13〉 시간제보육 이용 회수

단위: %(명)

구분	매일	주3-4회 정기	주1-2회 정기	월3-4회 비정기	월1-2회 비정기	수개월 1회	계(수)	X ² (df)
전체	28.1	33.5	18.4	8.7	5.8	5.5	100.0(673)	
0세	25.3	33.6	19.9	12.3	3.4	5.5	100.0(146)	22.9 (10)*
1세	27.3	35.4	19.0	7.6	7.3	3.4	100.0(384)	
2세	33.1	28.1	15.1	7.9	4.3	11.5	100.0(139)	

출처: 신수진·이승현(2017). 시간제보육 사업의 성과 및 내실화 방안. 한국보육진흥원

* $p < .05$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원하는 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67.5%)이나, 반면 가장 불편한 사항 또한 ‘원하는 시간 예약 불가(33.8%)’으로 조사되었다. 즉, 시간제보육 제도 자체의 취지에 이용자들이 공감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반면,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예약이 불가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담회 내용 중 해당 사항 있었음.)

결과를 해석한다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약 80%의 부모가 ‘프라임타임(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예약을 미리 한달 전에 마치고 나면 비정기적이거나 긴급하게 시간제를 이용하는 부모의 경우는 실제 필요한 시간에 이용이 어려워 예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I-2-14〉 시간제보육만족사항: 1순위

단위: %(명)

구분	원하는 시간 이용가능	별도 교실과 환경	전문교사와 의 상호작용	보육 프로그램	별도의 지원금	기타	(수)
전체	67.5	31.5	44.4	19.0	28.5	12.5	(669)
0세	70.8	33.1	41.5	30.0	38.2	23.6	(146)
1세	71.0	37.5	53.9	32.6	43.1	21.9	(384)
2세	72.9	36.5	45.8	31.0	31.5	20.8	(139)

출처: 신수진·이승현(2017). 시간제보육 사업의 성과 및 내실화 방안. 한국보육진흥원

〈표 II-2-15〉 시간제보육 이용 불편사항: 1순위

단위: %(명)

구분	예약 방법 (온라인)	예약 방법 (전화)	원하는 시간예약 불가	결제 방법	개별 급간식 준비	시설환경	교사 전문성 부족	기타	(수)
전체	30.0	14.5	33.8	11.6	31.2	9.6	5.5	9.9	(673)
아동 연령									
0세	38.1	18.8	43.0	15.1	24.5	11.0	4.2	21.6	(146)
1세	39.7	25.5	48.4	18.2	46.5	16.4	11.4	12.8	(384)
2세	38.8	20.6	41.1	16.3	39.5	21.9	10.6	18.6	(139)
지역구분									
대도시	40.2	24.5	47.8	17.3	43.4	19.0	10.5	14.4	(429)
중소도시	35.4	20.2	44.9	17.1	36.6	12.2	9.4	17.3	(172)
읍면	40.4	18.4	27.0	15.9	31.1	12.5	6.3	25.7	(63)

출처: 신수진·이승현(2017). 시간제보육 사업의 성과 및 내실화 방안. 한국보육진흥원

현행과 같이 1시간 단위로 예약을 하는 방식에 대해 이용 부모의 67% 가량이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을 하였음. 그러나 32.5%는 불편하다고 응답한 바, 이들이 불편한 이유,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신수진 외, 2017)에서 ‘30분 단위 예약 기준 마련’에 대해서 교사들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56.7%로 나왔다. 그러나 1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예약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없었다. 대다수(75%)가 2시간부터 5시간까지를 이용하는 실태를 보면, 1시간 단위보다 2시간 혹은 3시간 단위로 예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만하다.

〈표 II-2-16〉 시간단위 예약에 대한 의견: 이용 부모

단위: %(명)

구분	전혀 아님	아님	불편	매우 불편	(수)
전체	25.2	41.7	26.3	6.2	(669)
0세	22.3	39.2	31.1	7.4	(146)
1세	24.5	45.2	25.1	5.2	(384)
2세	30.9	36.0	25.2	7.9	(139)

출처: 신수진·이승현(2017). 시간제보육 사업의 성과 및 내실화 방안. 한국보육진흥원

교사 대상 질문을 통해, 점심시간 동안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얼마나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를 보면, 매일 또는 자주 1명 이상 있다라는 응답이 83.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2-17〉 점심시간 이용 아동

단위: %(명)

구분	전혀 아님	아님	불편	매우 불편	(수)
전체	58.9	24.5	11.6	1.3	(319)
국공립·법인·직장	71.8	18.8	0.7	0.7	(150)
민간·법인단체	47.8	32.2	17.8	2.2	(93)
가정·부모협동	38.7	41.9	19.4	-	(31)
육아종합지원센터	78.1	18.8	3.1	-	(33)

출처: 신수진·이승현(2017). 시간제보육 사업의 성과 및 내실화 방안. 한국보육진흥원

교사들에게 이용 시간 제한과 관련해서, 점심시간 이용을 제한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77.7%가 이에 찬성하고 있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점심시간 이용 불가에 대해 가장 많이 동의하고 있는데, 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보육활동을 하는 교사가 단 1명인 경우가 다수이며 센터 내 급식이 없는 상황에서 교사의 영유아 점심 먹이기가 힘들 것으로 짐작하며, 영아가 대부분인 가정어린이집도 또한 개개 아동의 점심을 돌봐야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더불어 일일 최대 4시간 이용으로 시간 제한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60.8%가 적절하다고 반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2-18〉 이용시간 제한 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1일 최대 4시간 이용 제한				점심시간 이용 불가				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전체	10.0	28.2	31.0	29.8	4.1	16.6	25.7	52.0	100.0(319)
국공립·법인·직장	8.1	24.3	29.7	37.8	4.8	17.7	17.0	60.5	100.0(150)
민간·법인단체	13.0	33.7	34.8	18.5	4.3	19.6	35.9	40.2	100.0(93)
가정·부모협동	22.6	32.3	38.7	6.5	3.3	16.7	46.7	33.3	100.0(31)
육아종합지원센터	3.0	18.2	24.2	54.5	3.0	9.1	15.2	72.7	100.0(33)
$\chi^2(df)/F$	31.1(9)***				25.6(9)**				

출처: 신수진·이승현(2017). 시간제보육 사업의 성과 및 내실화 방안. 한국보육진흥원

*** $p < .001$, ** $p < .01$

교사들에게 2개 반을 기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본 결과를 보면, 64.3%가 이를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은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사나 국공립교사가 비교적 큰 비율로 이 방안 동의하고 있다.

〈표 II-2-19〉 2개반 기본배치 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수)	$\chi^2(df)$
전체	7.2	27.3	41.7	22.6	(319)	17.8 (9)*
국공립·법인·직장	5.4	27.7	41.9	25.0	(150)	
민간·법인단체	9.8	25.0	44.6	20.7	(93)	
가정·부모협동	16.7	40.0	40.0	3.3	(31)	
육아종합지원센터	3.0	21.2	36.4	39.4	(32)	

출처: 신수진·이승현(2017). 시간제보육 사업의 성과 및 내실화 방안. 한국보육진흥원

* $p < .05$

3. 선행연구

시간제보육 관련 선행연구는 운영 전반에 관한 연구, 시간제보육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지역특성별 실태 및 개선방안을 분석한 연구, 시간제 보육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 II-3-1〉 시간제보육 선행연구

주제	저자	내용
운영 개선 방안	장영인, 최영신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제 보육 필요성 및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특성을 기초로 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 및 지침 마련의 필요성 제기
	최영신, 장영인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의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간제 보육에의 시사점 도출 직원의 배치, 불규칙한 시간제 보육 운영에 대한 지원, 종일제 보육이용 아동과의 관계유지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 제기
	양미선 외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이영환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과 내용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 서비스 이용시간의 제한의 필요성, 맞벌이 차등형 지원의 폐지, 형평성 관점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비용지원에 관한 재검토 필요성 및 서비스 유형 다양화 필요성 제기
실태 및 만족도	서문희 외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보육 시범사업 추진과정과 성과 분석을 통한 향후 확대 적용에의 기초 제공
	서문희, 양미선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달라진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성과 파악 및 본 사업으로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정기/비정기적 영아 구분을 통한 시간제 보육 이원화 방안 제시
	양미선 외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성과 파악 및 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한 사업 개선 방안 모색
	신수지 외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제보육 사업의 성과, 교사 근무특성, 이용행태 및 요구 등 파악을 통한 내실화 방안 모색 제공기관 지정 기준, 2개반 우선 배치, 차등 지원 폐지, 모니터링 시스템 활성화, 교육 강화 및 관리기관 지역별 관리체계 강화, 홍보 지원 확대 제안
	이도아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 어머니 인식 및 만족도 조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개소수의 확대, 예약시스템 개선 요구, 이용시간 부족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 제기
	김은정 외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제보육은 수요와 자원정책 중요도에 대한 부합도 차이가 가장 높은 정책임 접근성 개선과 공급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 공급 확대를 통한 단시간 보육 및 간헐적이나 정기적인 보육수요자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 제안

주제	저자	내용
지역 중심 분석	유해미 외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대비 낮아진 만족도 결과 ◦ 약 72.3%시간제보육을 제공하면서 어려움을 경험 ◦ 활성화 방안으로 시간제보육로 단가 인상,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의 조건 완화, 시간제보육 담당 인력 파견 등 인력지원, 시간제보육반 정원 축소 등 제시
	정혜진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의 개념, 사업내용 및 현황, 우수 사례 (광명시 전통시장 시간제 보육/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강동구 어린이회관 및 구민회관 내 시간제 보육 / 강남구형) 검토 ◦ 인지도와 형평성 제고 및 접근성 강화 방안 제시
	이연승 외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제보육에 대한 만족감 및 개선점 제시 ◦ 가정양육자를 위하여 필요하고 편리한 제도로 인식 ◦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한 반 구성, 월령의 세분화, 유아반의 구성, 원활한 예약 시스템, 교사 처우개선, 부적절한 부모의 태도 변화를 위한 사전 부모교육 및 홍보 등 제안
	김지혜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 담당교사의 경험
교사 인식	이명우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 보육교사의 배경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어려움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간제 보육교사 대 영아 비율조정 또는 보조교사 지원, 교사의 복지 및 처우가 개선 제안
	김경미 외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초기 적응과정에서 시간제 보육교사가 경험한 어려움 및 보람 ◦ 맞춤형 교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학급 증설, 예약 시스템 보완, 영아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사전 부모교육 실시 등 제안

가. 운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시간제 운영 전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이 실시되기 이전에 진행된 장영인·최영신(2008)의 연구에서는 시간제 보육 필요성 및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특성을 기초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시간제보육의 필요성 파악을 위해 당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대상 이용자특성, 이용현황과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 조사 및 시간제보육이 활성화된 외국의 사례 참고를 통해 제도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는 시간제보육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시간제보육의 경우 이용아동의 연령, 이용시간, 이용사유 뿐만 아니라, 지역별 시설별 보육료도 다양함에 따라 획일화 모형을 정형화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단일화된 지침보다 일정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고려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운영형태(전담제 또는 기존보육과 병행), 이용시간의 한도결정, 이용 아동 연령, 지역별 보육료 결정의 자율성 부여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후 진행된 일본 시간제보육의 기능에 대한 일고찰 연구 (최영신, 장영인, 2010)에서는 외국의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간제 보육에의 시사점을 찾고자하였다. 일본의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기능 분석 등을 통해 이후 우리나라의 시간제보육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해결되어야할 불규칙한 시간제 보육 운영에 대한 지원, 직원의 배치, 종일제 보육이용 아동과의 관계유지 등과 같은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14년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확대 운영 중에 진행된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양미선 외, 2014)에서는 시간제보육 이용 아동연령, 이용 패턴, 시간제보육 담당교사 특성(자격, 경력 등), 물리적 환경 등을 파악, 시간제보육 이용 아동과 보육환경, 보육교사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제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이후 이영환(2015)의 시간제 보육 현황과 발전 방안 연구에서는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과 내용을 비용 지원방식의 형평성 관점과 아동발달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사업이 부모의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정착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는 시간제보육의 이용시간의 제한의 필요성, 맞벌이 차등형 지원의 폐지³⁾ 등을 제안하고, 형평성 관점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비용지원에 관한 재검토 필요성 및 서비스 유형 및 방법 다양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방안으로 이용자들의 특성을 구분하여 주 5일 또는 주 3일 반나절 시간제(오전반, 오후반) 프로그램, 주 2~3일 종일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나. 이용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시간제보육사업 실태 및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일시보육 성과 분석 (서문희 외, 2013), 2014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서문희·양미선, 2014)와 2015

3) 2017년 이후 폐지됨.

시간제보육 사업의 성과와 과제 (양미선, 2015), 신수지 외 (2017) 시간제보육 사업의 성과 및 내실화 방안, 2019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한국보육진흥원, 2019)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김은정 외, 2017), 전국보육실태조사 (김은설 외, 2015; 유해미 외, 2018) 등에도 시간제보육 실태와 관련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일시보육 성과 분석 (서문희 외, 2013), 2014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서문희·양미선, 2014)와 2015 시간제보육 사업의 성과와 과제 (양미선, 2015) 연구는 연차별 서업을 실적을 점검하고 부모 만족도 및 욕구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연구이다. 2013년에는 일시보육 시범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 분석을 위해 원장, 교사, 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확대 적용에의 기초를 제공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대안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기존 어린이집에 보육 정원 외로 1명의 일시보육 수요를 허용하는 방안, 긴급일시보육 비율을 반당 1인으로 하향 조정하고 이용 불가 기준은 마련하는 방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간선택제 인력을 추가 배치, 현장 배치 이전 교육기회 부여, 정규적 일시 보육 서비스 등 유형 다양화, 유아까지의 대상 확대, 이용시간 및 절차 방법 개선, 적응 기간 및 교육 기회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서문희 외 2013).

2014년 연구 역시 2013년과 유사하게 명칭과 내용이 일부 변경된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성과를 파악, 본 사업으로의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서문희 외, 2014: 신수진 외, 2017 재인용). 본 연구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영아와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영아를 구분,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서문희 외 2014: 김경미 외, 2017 재인용).

2015년에도 사업의 성과 파악 및 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양미선, 2015: 보건복지부, 2014 재인용). 이를 통해 시간제보육반 이용 아동 수와 이용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66.9%의 이용자들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이후 2019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91.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육진흥원, 2019).

시간제보육 사업의 성과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신수지 외, 2017)는 시간제보육 사업의 성과,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요구 담당교사 근무특성 등을 파악하여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조사 결과, 담당교사는 시간제보육이 부모가 양육하기 좋은 환경 마련, 가정양육 활성화, 시간제 취업 부모 지원에 효과적인 제도라고 평가하였으며, 이용부모 절대 다수가 사업이 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하였다. 연구는 지역별 수요도와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제공기관 지정 기준, 장기적인 제공기관 설치 확대가 요구되고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 2개반 우선 배치, 지원유형별 차등 지원 폐지, 지자체, 관리기관, 제공기관의 유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활성화, 교육 강화 및 관리기관 지역별 관리체계 강화, 지역별 맞춤형 홍보 확대 및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 지원을 확대를 제안하였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머니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이도아, 2017)에서 역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연구 결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개소수의 확대, 예약시스템 개선 요구, 이용시간 부족에 따른 긴급 바우처 제공 등을 통한 제도적 개선 방안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김은정 외, 2017)연구에 따르면,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경우 접근성 및 보육의 질이 낮아 수요부합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모들이 원하는 시설의 형태로 시간제 보육(27.9%), 24시간 보육(25.8%), 야간 보육(18.4%) 순으로 나타난 반면, 수요와 지원정책 중요도에 대한 부합도 차이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로 조사되었다. 시간제보육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급시설이 매우 제한적임에 따라 접근성에 한계가 있어 정기적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 이용사례를 살펴봤을 때, 간헐적이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영아가 많은 상황임에 따라 접근성 개선과 공급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공급 확대를 통한 단시간 보육, 간헐적이나 정기적인 보육수요자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이 제안되었다.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시간제 보육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2015년 전국 보육실태조사는 71.4%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나 2018년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는 만족 비율이 68.7%로 나타나, 기존 대비 3.8% 낮아진 결과를 보였다(김은설 외, 2015; 이정원 외, 2018). 2018년 어린이집 대상 조사에서는 약 72.3%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시간제보육 아동 수가

유동적으로 안정적 운영의 어려움', '낮은 시간제보육료', '전담 인력 구인의 어려움', '시간제보육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의 어려움'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는 '시간제보육료 단가 인상',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의 조건 완화', '시간제보육 담당 인력 파견 등 인력지원', '시간제보육반 정원 축소' 등이 제시되었다.

다. 지역 중심 연구

지역특성별 시간제 보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정혜진, 2017) 진행된 시간제 보육 현황과 과제와 부산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제보육에 대한 만족감 및 개선점에 대한 연구 (이연승 외, 2018)가 대표적이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혜진, 2017)에서 진행된 연구는 시간제보육의 개념, 사업내용 및 현황, 우수 사례 (광명시 전통시장 시간제 보육/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강동구 어린이회관 및 구민회관 내 시간제 보육/ 강남구형 시간제보육)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음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지원 대상가구를 파악, 시간제 보육사업 홍보 안내물을 제공하도록 제안하였으며,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모의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차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나아가,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영유아 수 및 지리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역별로서비스 공급이 저조한 지역의 경우 적극적으로 제공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복지관, 여성비전센터, 전통시장, 어린이 도서관, 등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시간제보육반을 설치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부산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제보육에 대한 만족감 및 개선점에 대한 연구 (이연승 외, 2018)는 부산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제보육사업에 대한 부모, 교사, 센터장의 만족감 및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부모, 교사, 센터장의 만족감은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가정양육자를 위하여 필요하고 편리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보육 서비스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한 반 구성 월령의 세분화, 유아반의 구성, 원활한 예약시스템 (첫 예약으로부터 시간대를 점차 늘려가면서 이용), 과도한 업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처우개선 (두

반 이상 운영 또는 보조 및 대체인력 배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적절한 부모의 태도 변화를 위한 사전 부모교육 및 홍보 등이 제시되었다.

라. 시간제보육 교사 관련 연구

수요자 입장이 아닌 시간제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시간제 보육교사의 측면에 서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지혜 (2016)는 시간제 보육 교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보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반성적 사고를 통해 영아 보육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보육의 주체인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과 부모의 권리가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시간제 보육교사의 배경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어려움에 관한 연구(이명우, 2016)에서는 시간제 보육교사가 영아의 적응을 어렵게 느끼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간제 보육교사 대 영아 비율조정 또는 보조교사 지원, 교사의 복지 및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아 초기 적응과정에서 시간제 보육교사가 경험한 어려움과 보람 연구(김경미 외, 2017)는 시간제 보육교사는 일회적 관계로 인한 적응 지도, 신입 영아의 다양한 배경 파악, 즉흥적인 순간에 임기응변, 빠른 적응을 기대하는 부모의 요구 부응, 적응에 대한 부모와의 인식 차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밝혔다. 반면, 시간제 보육교사는 비정기적 이용에도 적응하며 즐겁게 놀이하는 영아, 안정된 적응경험을 통한 어린이집 이용 준비 단계로서의 기여, 초기 적응과정 시 부모와 형성된 긍정적 관계에서 오는 교사로서의 긍지, 영아 보육전문가로서 성장해 나가는 자부심으로 인하여 보람 또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맞춤형 교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학급 증설, 예약 시스템 보완 (예약 시, 영아의 기초적인 배경 정보를 필수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운영), 영아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사전 부모교육 실시 등이 제안되었다.

마. 선행연구로부터의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시간제보육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확대 필요성

여러 이용자 대상 조사에서 시간제보육은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만족도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더 많은 부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5년에 진행된 시간제보육 사업의 성과 파악 및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66.9%의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이후 2019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91.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육진흥원, 2019).

김은정 외 (2017) 조사 결과, 취업모들이 원하는 시설의 형태로 시간제 보육(27.9%), 24시간 보육(25.8%), 야간 보육(18.4%) 순으로, 시간제보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머니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이도아, 2017)에서 역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나아가, 시간제보육 사업의 성과 및 내실화 방안 연구(신수지 외, 2017)에서 역시 이용부모 절대 다수가 사업이 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는 71.4%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나 2018년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는 만족 비율이 68.7%로 나타나, 기존 대비 3.8% 낮아진 결과를 보인 만큼(김은설 외, 2015; 이정원 외, 2018) 운영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2) 시간제보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 필요 사항

시간제보육 활성화 방안 및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운영 모델의 다양화, 접근성 확보, 보육료 개선, 홍보, 시간제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 예약시스템 보완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운영모델의 다양화

우선 시간제보육 운영 모델의 다양화를 살펴보면, 이용아동의 연령, 이용시간, 이용사유 등의 다양성을 고려한 서비스 유형 및 방법 다양화의 필요성 제기되었다(장영인·최영신, 2008; 이영환, 2015; 서문희 외 2014; 김경미 외, 2017 재인용; 김은정 외, 2017). 시간제보육의 특성상 획일화 모형을 정형화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단일화된 지침보다 일정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고려한 지침의 필요성 및 운영형태(전담제 또는 기존보육과 병행), 이용시간의 한도결정, 이용 아동 연령, 지역별 보육료 결정의 자율성 부여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침을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방안으로 이용자들의 특성을 구분하여 주 5일 또는 주 3일 반나절 시간제(오전반, 오후반) 프로그램, 주 2~3일 종일 프로그램 제공(장영인·최영신, 2008)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영아와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영아를 구분, 이원화하는 방안(서문희 외 2014; 김경미 외, 2017 재인용; 김은정 외, 2017), 두 반 이상 운영(이연승 외, 2018; 신수지 외, 2017), 월령의 세분화, 유아반의 구성(이연승 외, 2018)등을 제시하였다.

나) 접근성 제고

시간제 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공시설의 접근성 확보 또한 지속적으로 제안되었다. 공급시설이 매우 제한적임에 따라 접근성에 한계가 있어 정기적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공 기관의 개소수의 확대(김경미 외, 2017; 이도아, 2017; 정혜진, 2017)뿐만 아니라, 지역별 수요도와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제공기관 지정 기준(이연승 외, 2018; 신수지외, 2017), 장기적인 제공기관 설치 확대가 요구되고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 2개반 우선 배치하는 방안(신수지 외, 2017),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복지관, 여성비전센터, 전통시장, 어린이 도서관, 등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시간제보육반을 설치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정혜진, 2017)

다) 보육료 지원 개선

보육료 지원 기준 개선의 경우, 2017년 이후 일반형과 맞벌이형 구분이 사라짐에 따라 일부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낮은 시간제보육료의 문제와 시간

제보육료 단가 인상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유해미 외, 2018). 정혜진(2017)의 연구는 보육료 지원 기준과 관련,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모의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차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라) 시간제보육의 홍보 강화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음에 따라 제도 관련 홍보 및 부모 대상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여러 연구를 통해 제기되었다(이연승 외, 2018; 신수지 외, 2017; 정혜진, 2017; 김경미 외, 2017). 지역별 맞춤형 홍보 확대 및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 지원을 확대(신수지 외, 2017), 가정양육수당지원 대상가구를 파악, 시간제 보육사업 홍보 안내물 제공(정혜진, 2017) 등이 제안되었다. 부모 교육과 관련해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적절한 부모의 태도 변화를 위한 사전 부모교육(이연승 외, 2018) 및 영아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사전 부모교육 실시 등이 제안되었다(김경미 외, 2017)

마) 시간제보육 교사 처우 개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시간제보육 교사 처우 개선 방안으로 시간제보육 담당 인력 파견 등 인력지원(이연승 외, 2018; 유해미 외, 2018; 이명우, 2016), 시간제 보육반 정원 축소, 시간제 보육교사 대 영아 비율 조정(유해미 외, 2018; 이명우, 2016), 맞춤형 교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서문희 외, 2013; 김경미 외, 2017; 신수지 외, 2017;) 등이 있다.

바) 모니터링 및 예약 시스템 보완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예약 시스템 보완에 관련한 개선 요구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이연승 외, 2018; 김경미 외, 2017; 신수지 외, 2017; 이도아, 2017). 예약 시, 영아의 기초적인 배경 정보를 필수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운영(김경미 외, 2017), 첫 예약으로부터 시간대를 점차 늘려가면서 이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처음 예약은 1시간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시간이나 횟수를 늘리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연승 외, 2018) 등이 제안되었다.

4. 해외 사례

시간제보육은 우리나라보다 해외 국가에서 더 먼저 도입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이에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제도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확인해보고자 하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유럽의 아일랜드, 오세아니아의 호주, 아메리카의 캐나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가. 일본

1) 시간제보육 도입의 배경

일본에서 1990년대 저출산과 더불어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되면서 그 일환으로 시간제보육을 도입하게 된 구체적 배경으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최영신, 장영인, 2010).

첫째는, 시간제취업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시간제보육 수요가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5년 기준 주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가 전체의 40.6%를 차지하게 되었고 특히 여성 단시간 근로자가 24%에 이르러 단시간 취업 여성의 자녀 돌봄을 위한 시간제보육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둘째는 가정에서 육아를 하는 전업 주부의 경우 육아의 고단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높아지고 이로 인한 아동학대 건수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육아 휴식, 육아 재충전(refreshment)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육아스트레스에 대해 일본 사회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문제로 인해 이전에는 가정과 지역사회가 담당할 수 있었던 자녀양육기능이 저하되고 양육능력이 부족한 가정이 많아졌다고 분석하고 시간제보육 지원이 이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는 사회변화와 함께 보육 수요가 많아지면서 특히 대도시에서 보육시설 입소 대기 문제가 심각해져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더 많은 아동이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입소하여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서 시간제보육을 도입하였다는 설명도 있다. 아동 수의 감소에 불구하고 맞벌이 세대의 증가로 보육소 입

소 희망 아동 수는 증가하였고 전국 정원대비 입소율이 80%에 이르렀고 인구동태의 과속, 과밀화가 가속화되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2) 시간제보육의 기능 변화

일본의 시간제보육 도입 이후 서비스의 목적과 기능의 변화를 시가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보았다(최영신, 장영인, 2010).

- 1988년 중앙아동심의회에서 시간제보육 사업 추진 결과

일본 중앙아동심의회에서 지역 특성에 대응한 보육시설 기능 확충으로서 시간제 보육사업을 추진할 것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시간제 대상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 1990년 시간제보육 제도화.

보호자의 취업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① 주3일 정도의 보육(비정형보육), ②보호자의 질병, 입원, 가족 돌봄 등에 의한 긴급보육(긴급보육)의 두 가지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1992년 ‘육아재충전 지원사업’ 목적

어머니가 자원봉사활동, 행사참여 등 지역사회활동, 문화체육활동을 할 때 시간제보육을 활용하여 ①정기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을 돌봐 줄 것, ②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지역내 자녀가정 간 상호 ‘친구만들기’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1996년 ‘사적이유’를 시간제 사용 목적에 포함

보호자의 육아피로 해소 등 육아에 따르는 보호자의 심리적, 육체적 부담감 해소를 사업의 주요 목적으로 포함하였다.

- 시간제 확충을 위한 제도 변경

시간제보육의 높은 수요에 비해 서비스 확충에 진전이 없자 1996년 보육시설 내 ‘전용실 설치규정’ 폐지하였다.

1998년부터는 시간제보육을 지자체 사업으로 변경하여 실시함으로써 보육시설이 실시주체가 되는 자주사업(이용자가 보육료 부담)으로 변경하였다. 지자체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보육시설이 자율적으로 이용자 욕구에 부응하고 이용부모가 지자체에 대해 신청할 필요 없이 보육시설과 직접 계약하여 이

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육시설 간 경쟁 작용이 발생하였고 보육의 질적 향상 실현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 2000년이후 시간제보육을 독립 사업으로 강화하고, 2006년에는 다시 보조금을 재편하여 시간제 및 특정보육사업을 재편하고 통합하게 되었다.

요약하면, 도입초기 보호자의 시간제 취업대책 등 부모 자아실현과 긴급상황의 가족 원조 등 가족 양육기능 지원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나 아동의 또래집단 구성과 교류, 체험 등 아동의 권리실현 관점으로 사업 방향성이 확장되었고 이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대응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등 건강한 부모자녀관계 지원까지 사업 목적에 포함되어 시간제보육은 주요 보육서비스로서 자리를 잡았다.

3) 시간제보육 운영 현황

가) 운영 시간

일본에서 시간제보육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다. 추가로 연장보육(오전 8시에서 오후 7시 사이)이나 반일제보육도 실시하고 있다.

긴급·일시 보육(보호자의 질병, 간호, 관혼상제, 직업훈련, 취학 혹은 육아부담) 목적은 1개월에 14일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정기적(계속적) 보육이 필요한 경우는 주 3일 이내 이용할 수 있다(<https://www.city.mizuho.lg.jp/kurashi/>. 2020. 12. 5 발췌). 그러나 정원 충족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없을 경우도 있다.

시간제보육 대상 아동은 지역 내 거주 생후 10개월 이상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으로 제한된다.

보육시설 사례별로 구체적 운영시간의 예를 보면, 다음 <표 II-3-2>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기후현 미즈호시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표 II-3-2> 일본 보육시설의 시간제보육 운영 시간 사례

시설명	이용 시간	
	평일	토요일
국공립 벳부 어린이집	8시 30분~16시	8시 30분~12시
사립 清流미즈호	7시 30분~19시 30분	7시30분~17시 30분
사립 호즈미노모리	9시~15시	휴원

출처: 일본 미즈호시 홈페이지(<https://www.city.mizuho.lg.jp/kurashi/> 2020. 12. 5 검색).

나) 시간제보육 이용료 및 납부 방법⁴⁾

국공립(시립) 清流미즈호어린이집의 경우를 보면, 이용 아동이 1세일 때 4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미만은 1,600엔(한화 약 17,000원), 4시간 이상 이용일 때에는 3,200엔(한화 약 34,000원)으로 나누어져 있어 최소 4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급식이나 간식을 먹는 경우는 350엔(한화 약 3,700원)을 추가로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는 보육료가 면제되고 있다.

사립(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각 시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민간清流미즈호어린이집의 경우 다음 <표 II-3-3>과 같고, 보육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당 1세 400엔, 2, 3세 300엔, 4세 이상 250엔 등의 보육료가 가산된다.

<표 II-3-3> 일본 시간제보육 이용 보육료

구분	연령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급식(간식 포함)
국공립	1세	1,600엔	3,200엔	350엔
	2,3세	1,200엔	2,400엔	350엔
	4세 이상	1,000엔	2,000엔	300엔
민간	1세	2,000엔	4,000엔	400엔
	2, 3세	1,500엔	3,000엔	400엔
	4세 이상	1,200엔	2,000엔	350엔

출처: 일본 미즈호시 홈페이지(<https://www.city.mizuho.lg.jp/kurashi/> 2020. 12. 5 검색).

보육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하원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금 납부가 가능하다. 공립보육시설 기준 이용을 위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에서 사전 등록. 도장 및 아동의 건강보험증 지참 등록. 1년간 유효.
- 실시 시설 어느 곳이나 한 곳에서 등록하면, 이용기간의 한도범위 내에서 5개의 시설의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수 있음
- 이용 희망 달 전월 15일까지 이용신청서를 제출
- 이용 당일, 등원 시 당일 건강상태, 긴급연락처 등을 제출
- 부득이 긴급하게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신속 등록 가능
- 처음 이용 시 시간제 보육 이용 노트 제공. 이후 지참 필수

4) 2020. 4. 1. 기준

또한 미즈호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용 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용 상 유의 사항 안내 내용을 참고해보면 다음의 <표 II-3-4>와 같다.

<표 II-3-4> 일본 시간제보육 이용 부모에게 안내되는 유의사항(사례)

1. 아동의 승영(등하원)은 보호자가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2. 등원 시간이 늦어지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전화로 알려주세요.
3. 보육 중에 병이 나거나 상처가 생기는 등 아동의 심신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연락드리니, 데리러 오십시오.
4.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시락을 지참하십시오,
5. 소지품, 의류, 기저귀, 앞치마 등에는 반드시 이름을 써 주십시오. 소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지품
낮잠용구(이불, 요) 더러워진 물건을 넣을 비닐봉투 4장(큰 것 2장, 작은 것 2장) 기저귀, 트레이닝바지, 바지 대변 시 사용할 휴지, 갈아입을 옷(상의, 하의, 팬츠) 각 2장 식사용 앞치마 1매, 손 닦을 수건 1장, 모자

출처: 일본 미즈호시 홈페이지(<https://www.city.mizuho.lg.jp/kurashi/> 2020. 12. 5 검색).

4) 일본 시간제보육 사례의 함의

첫째, 일본은 시간제보육을 통해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부모의 육아스트레스를 완화해주고 휴식과 분위기전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요한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때 시간제보육을 통해 가정내 양육 부모에게 양육정보와 상담 기회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독박육아로 인한 문제 발생을 줄이는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시간제보육 이용 부모에 대한 육아상담과 어린이집 개방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둘째, 부모가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하여 사회문화체육 활동을 할 수 있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아동에게는 또래 또는 교사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성 함양의 장소가 된다고도 하겠다.

셋째, 시간제보육은 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의 행사에 시간제보육 아동을 동참시키고 부모의 보육활동에 참여와 참관을 허용하며, 정기적으로 시간제 보육 이용 부모들 간 간담회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교류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아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제보육 이용 특성으로 아동 간 통일된 행사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개별 아동의 적응과 정서적 문제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고

려한 활동 계획이 필요하다.

나. 아일랜드⁵⁾

아일랜드의 미취학 아동 대상 보육 서비스는 아이돌봄(Childminding), 하루 5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일제 보육(Full Day Care), 하루 총 3.5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보육 서비스를 의미하는 Part-time 보육(Part-Time Day Care), 야간보육, 이용 회당 3.5시간 미만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세션 보육(Sessional pre-school service), 간헐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롭인 센터와 일시 드롭인 센터로 구분될 수 있다 (Early Childhood Ireland, n.d.). 한국의 시간제보육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만한 유형으로는 세션 보육, 드롭인 센터와 일시 드롭인 센터가 있다.

우선 아일랜드는 종일제 보육뿐만 아니라, Part-time 보육 및 세션 보육 서비스 구분을 통해 보다 세분화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션 보육은 이용 회당 3.5시간 미만의 보육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회당 3.5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Part-time 보육과 서비스 이용 시간적 부분에서 차별을 두고 있다.

아동 대 보육사⁶⁾ 비율에서 역시 그 차이가 나타남. 0에서 1세, 1에서 2세 보육사 대 아동비율은 두 유형 모두 같으나, 세션 보육의 경우 2.5에서 6세까지의 보육사 대 아동 비율을 1:11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Part-time 보육은 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표 II-4-1) 참조).

〈표 II-4-1〉 Part-time 보육과 세션 보육 보육사 대 아동 비율

단위: 명

구분	0-1세	1-2세	2-3세	3-6세
Part-time 보육	1:3	1:5	1:6	1:8
세션 보육	1:3	1:5	2.5세부터 1:11	

자료: CHILD CARE ACT 1991 (EARLY YEARS SERVICES) REGULATIONS, 2016

5) CHILD CARE ACT 1991 (EARLY YEARS SERVICES) REGULATIONS 2016

6) 아일랜드에서 아동을 직접적으로 보육하는 모든 교사는 최소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Level5에 준하는 육아교육 전공자 또는 국장이 그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 (CHILD CARE ACT 1991 (EARLY YEARS SERVICES) REGULATIONS, 2016).

최소 공간에 대한 기준 또한 상이한데, 세션 보육은 아동 당 1.81m²의 공간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Part-time 보육은 종일제 보육과 같은 공간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상이하다 (<표 II-4-2 참조).

〈표 II-4-2〉 Part-time 보육과 세션 보육 최소 공간 기준(아동 당)

단위: m²

구분	0-1세	1-2세	2-3세	3-6세
Part-time 보육	3.5	2.8	2.35	2.3
세션 보육	1.818			

자료: CHILD CARE ACT 1991 (EARLY YEARS SERVICES) REGULATIONS, 2016

세션 보육은 한 반당 최대 2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⁷⁾. 세션 보육 이용은 평균적으로 회당 3시간, 주 5일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이상의 서비스 이용료는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필요에 따라 이용이 가능한 보육 서비스 유형의 드롭 인 센터와 일시 드롭 인 센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드롭 인 센터는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보육 서비스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 행사 등에 참석하는 동안 미취학 아동에게 2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는 보통 백화점, 레저 센터 등의 시설에서 고객을 위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일시 드롭 인 센터가 있으며, 이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일회성 행사, 컨퍼런스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⁸⁾

등록 된 드롭 인 센터와 일시 드롭 인 센터는 동시간에 24명 이상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15명 이상의 아동이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시에는 아동 등하원을 위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보육사 대 아동 비율은 1:4이며, 드롭 인 센터의 최대 이용시간은 2시간, 일시 드롭 인 센터는 8시간으로 제한한다. 시설의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적합한 가구 및 놀이감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드롭 인 센터의 경우 아동 당 최소 1,818m², 일시 드롭 인 센터는 2m²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의 경우, 2017년부터 보편적인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보육 서

7) 다른 유형의 서비스 동시 제공시 해당 없음.

8) 일시 드롭 인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14일 전에 보건복지 책임자에게 허가를 받아야함.

비스 시설에 직접 제공되고 있다. 보육 유형별 제공되는 보조금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4-3〉 Part-time 보육과 세션 보육 최소 공간 기준

단위: €

구분	종일제 (5시간 이상)	Part-time 보육 (3.5~5시간)	세션 보육 (2.16~3.5시간)	반 세션 (1~2.15시간)
주당 보조금	20	10	7	3.50

자료: CHILD CARE ACT 1991 (EARLY YEARS SERVICES) REGULATIONS, 2016

다. 호주

호주는 Occasional Care(OC), 캐주얼 보육(casual Care), Flexible Care 등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시간제보육과 비슷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모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기, 임시적인 보육 서비스를 의미하며, 가족의 근무 여건, 응급 상황, 행사 참석 등에 따라 필요시 이용이 가능하다. 지역 사회단체, 비영리 단체 및 지역 의회에서 운영이 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필요에 따라 최소 한 시간에서 종일까지 가능하다(Care for Kids, 2016).

이 중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OC의 운영 내용 및 지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C는 센터 기반⁹⁾의 개별적 보육서비스이며, 0에서 만 5세 이하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가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아동 중심적인 환경에서 임시적인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OC는 부모 및 보호자의 근로형태, 회의 참석 등에 따른 이용뿐만 아니라, 종일제 보육 이용 전 적응 단계, 아동의 사회성 발달, 장애 아동 보육 등을 위한 지원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Occasional Child Care Australia, n.d.).

OC는 비정기적인 이용 외에도 세션 보육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나, 종일보육의 형태로는 제공되지 않는다. 부모 및 보호자는 예약한 시간보다 아동을 일찍 하원시킬 수 있으나, 예약한 시간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Care for Kids, 2016).

각 시설은 경험이 풍부하고 숙달된 보육교사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

9) 센터 기반의 보육은 종일제(Long Day Care, LDC)와 OC가 있으며, 각 센터는 두 유형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으며, LDC 또는 OC만 제공할 수도 있음.

분의 시설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된 교사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Care for Kids, 2016). OC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보조금은 가구 소득, 아동 연령, 서비스 유형 등에 따라 상이하다. 서비스 유형별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 시간당 조보금은 다음과 같다.

〈표 II-4-4〉 서비스 유형별 최대 시간당 보조금

단위: AUD

구분	센터	방과후	가정 어린이집 (Family Day Care)	가정 내 보육 (In Home Care)
	12.20	12.20	11.30	33.17 (가구 당)

자료: 호주 교육기술고용부 웹사이트 (<https://www.dese.gov.au/child-care-package/child-care-subsidy>, 2020년 12월 3일 인출)

지역사회 특성별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및 이용료는 각 시설마다 상이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용자가 각 시설에 직접 문의하도록 되어있다 (Care for Kids, 2016).

OC는 지역 또는 지방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음. 각 주의 주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빅토리아주의 경우 하루에 5시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OC 제공 센터는 아동 당 최소 7m²의 야외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육사 대 아동 비율의 경우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4, 36개월 이상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 1:11로 규정하고 있음. OC 배치되는 교사의 50%는 승인된 전문대 이상의 유아교육 학위 이수를 받았거나, 받는 과정에 있는 자여야 한다 (Children's Services Regulations, 2020).

남부호주(South Australia)주의 보육서비스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하루 최대 4시간까지 OC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에 대한 몇 가지의 면제 사항들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아동 당 최소 7m²의 야외 공간 제공에 대한 면제가 있으며,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에 대한 기준 역시 해당 사항이 없다. 만 3세 이상의 아동을 10명 이상 보육할 경우 갖춰야하는 고정식 기저귀 교환대 관련 규정, 욕조 구비 및 수면에 적합한 환경 마련 등과 관련된 요건 또한 면제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의 경우 국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른 어떤 규정 또한 면제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South Australia Children's Services (Child Care Centre) Regulations, 1998)

서비스 이용 예약 방식의 경우, 지방정부 마다 상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빅토리아주의 흠시티의 경우, 최소 일주일 전 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방식으로 예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같은 주의 야라시의 경우 시에서 제공하는 Xplor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예약이 진행되고 있다.

라. 캐나다 (British Columbia, BC)¹⁰⁾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 OC(Occasional Care)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18개월 이상의 미취학 아동에게 비정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용은 하루 최대 8시간, 월 최대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정원은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경우 16명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명까지 돌봄 제공이 가능하다. 아동 대 보육사의 비율 역시 36개월 영아의 유무에 따라 상이함.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경우, 아동 4명 당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의 보육사 대 아동 비율은 1:8로 규정하고 있다.

교사는 만 19세 이상으로, 20시간의 보육 관련 교육 이수, 관련 업무 경험, 응급 처치 자격증 및 범죄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다.

〈표 II-4-5〉 아동 연령별 보육사 대 아동 비율 및 최대 보육 가능 아동 수

단위: 명

구분	최대 보육 가능 아동 수	보육사 대 아동 비율	보육사 자격
36개월 미만 아동 보육	16	1:4	- 만 19세 이상 - 20 시간 교육과정 이수
36개월 미만 아동이 없을 경우	20	1:8	- 응급처치 자격증 - 범죄 기록 확인

자료: Community Care and Assisted Living Act, CHILD CARE LICENSING REGULATION, 2007

Childminding을 제외 한 모든 보육 시설과 마찬가지로, 각 아동 당 3.7m²의 공간(복도 공간 제외)이 제공되어야 한다. 단, OC는 다른 보육 과정과 달리 야외 놀이에 관련한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

10) Community Care and Assisted Living Act, CHILD CARE LICENSING REGULATION, 2007

이용 시간, 이용 방법 등은 각 제공 기관별로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버니비시의 한 OC 제공 기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서비스 이용 기준을 선착순으로 설정하고, 이용 희망 48시간 전에 해당 기관 온라인 사이트에서 예약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밴쿠버시의 한 기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곳 역시 사전 등록 및 예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는 시간당 \$ 5.00에서 \$ 6.50정도로 제공되고 있다(형제·자매 추가 시 \$2 추가). 본 기관은 한 번에 최대 4명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OC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당 최대 3번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OC는 새로운 보육기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Child Care Major Capital Funding 및 운영비 보조를 위한 Child Care Operating Fund (CCOF)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 2018).

III

시간제보육 운영 실태

01 설문조사 분석

02 사례 분석

Ⅲ. 시간제보육 운영 실태 및 요구

본 장에서는 시간제보육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과 운영하고 있지 않은 미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한 각각의 설문조사와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특별한 경우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각각을 분석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제보육 개선과 확충 모델을 개발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원장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

2020년 12월 실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256명으로, 시간제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104개소,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 152개소의 원장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은 대도시에 있는 비율이 49.2%, 중소도시 39.1%, 농어촌 11.7%였고, 국공립이 107개소로 41.8%, 민간 32.4%, 가정 25.8%였다. 시설 규모를 보면 정원기준 20명 이하 34.4%, 39명 이하 15.2%, 79명 이하 30.9%였고 80명 이상인 비율은 19.5%로 나타났다.

〈표 Ⅲ-1-1〉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256)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26)	49.2
중소도시	(100)	39.1
농어촌	(30)	11.7
설립유형		
국공립	(107)	41.8
민간	(83)	32.4
가정	(66)	25.8
정원		
20명 이하	(88)	34.4

구분	사례 수	비율
21~39명 이하	(39)	15.2
40~79명 이하	(79)	30.9
80명 이상	(50)	19.5
시간제 보육 운영 여부		
운영	(104)	40.6
미운영	(152)	59.4

가. 시간제보육 운영 어린이집 조사 결과 분석

1) 운영 현황

시간제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 1년 미만 기간 동안 운영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38.5%로 가장 많아 2020년 들어 시간제를 시작한 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4년 이상 운영을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25.0%였고 3년~4년이 21.2%로 나타났다. 운영기간은 설립유형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국공립의 경우 4년 이상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정어린이집은 80%이상이 1년 미만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들어 가정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2〉 시간제 보육 운영기간

단위: (개소), %, 개월

구분	사례수	1년 미만	1~ 2년	2~ 3년	3~ 4년	4년 이상	계	평균기간
전체	(104)	38.5	11.5	3.8	21.2	25.0	100.0	35.3
지역규모								
대도시	(52)	38.5	11.5	0.0	21.2	28.8	100.0	37.6
중소도시	(46)	39.1	13.0	8.7	21.7	17.4	100.0	31.3
농어촌	(6)	33.3	0.0	0.0	16.7	50.0	100.0	46.2
$\chi^2(df)/F$		8.810(8)						1.2
설립유형								
국공립	(46)	17.4	15.2	4.3	28.3	34.8	100.0	44.9
민간	(32)	34.4	12.5	3.1	21.9	28.1	100.0	37.2
가정	(26)	80.8	3.8	3.8	7.7	3.8	100.0	16.1
$\chi^2(df)/F$		29.394(8)***						12.0***

구분	사례수	1년 미만	1~ 2년	2~ 3년	3~ 4년	4년 이상	계	평균기간
정원	(40)	55.0	10.0	2.5	15.0	17.5	100.0	27.8
20명 이하	(11)	36.4	27.3	0.0	18.2	18.2	100.0	30.7
21~39명 이하	(24)	29.2	12.5	0.0	41.7	16.7	100.0	37.9
40~79명 이하	(29)	24.1	6.9	10.3	13.8	44.8	100.0	45.3
80인 이상								
$\chi^2(df)/F$		25.275(12)*						2.8*

* p< .05, *** p<.001

시간제보육 이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최근 월인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운영 현황을 질문하였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반 수는 평균 1.2개로, 운영 반이 1개라고 응답한 경우가 78.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소재지역이나 설립유형, 시설규모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2개 반을 운영하는 경우는 19.2%, 3개반은 1.9%였다.

〈표 III-1-3〉 2020년 11월 기준 시간제 보육 운영 반 수

단위: (개소), %, 개

구분	사례수	1개	2개	3개	계	평균 반 수
전체	(104)	78.8	19.2	1.9	100.0	1.2
지역규모						
대도시	(52)	82.7	17.3	0.0	100.0	1.2
중소도시	(46)	73.9	21.7	4.3	100.0	1.3
농어촌	(6)	83.3	16.7	0.0	100.0	1.2
$\chi^2(df)/F$		3.048(4)				-
설립유형	(46)	78.3	19.6	2.2	100.0	1.2
국공립	(32)	75.0	25.0	0.0	100.0	1.3
민간	(26)	84.6	11.5	3.8	100.0	1.2
가정						
$\chi^2(df)/F$		2.659(4)				0.1
정원						
20명 이하	(40)	75.0	22.5	2.5	100.0	1.3
21~39명 이하	(11)	81.8	18.2	0.0	100.0	1.2
40~79명 이하	(24)	79.2	20.8	0.0	100.0	1.2
80인 이상	(29)	82.8	13.8	3.4	100.0	1.2
$\chi^2(df)/F$		1.944(6)				0.2

시간제보육을 운영하게 된 계기로는 부모들의 요구 등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가 39.4%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가 시간제 보육 운영을 요청해 왔기 때문인가 22.1%로 다음 순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설립유형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국공립의 경우는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 운영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데 비해 가정어린이집은 61.5%가 부모가 요구해서 운영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설립유형은 그대로 정원별 구분에도 반영되어 있어, 규모가 작은 경우 부모수요에 부응과 정원충족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표 Ⅲ-1-4〉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게 된 계기(1순위)

단위: %, (개소)

구분	부모 수요에 부응	지자 체의 요청	정원 충족에 유리	(정원미달) 유휴보육 실 활용	운영비 확보에 유리	여유 공간 활용	평판에 유리	기타	계
전체	39.4	22.1	16.3	7.7	5.8	4.8	2.9	1.0	100.0(104)
지역규모									
대도시	26.9	30.8	19.2	11.5	5.8	3.8	1.9	0.0	100.0(52)
중소도시	52.2	13.0	15.2	2.2	6.5	4.3	4.3	2.2	100.0(46)
농어촌	50.0	16.7	0.0	16.7	0.0	16.7	0.0	0.0	100.0(6)
$\chi^2(df)$	16.621(14)								
설립유형									
국공립	30.4	47.8	6.5	4.3	2.2	6.5	0.0	2.2	100.0(46)
민간	34.4	3.1	28.1	15.6	6.3	6.3	6.3	0.0	100.0(32)
가정	61.5	0.0	19.2	3.8	11.5	0.0	3.8	0.0	100.0(26)
$\chi^2(df)$	46.585(14)***								
정원									
20명 이하	60.0	7.5	17.5	2.5	7.5	0.0	2.5	2.5	100.0(40)
21~39명 이하	9.1	0.0	27.3	36.4	0.0	9.1	18.2	0.0	100.0(11)
40~79명 이하	33.3	33.3	16.7	12.5	0.0	4.2	0.0	0.0	100.0(24)
80인 이상	27.6	41.4	10.3	0.0	10.3	10.3	0.0	0.0	100.0(29)
$\chi^2(df)$	57.798(21)***								

*** p<.001

다음 〈표 Ⅲ-1-5〉에서 보듯이,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게 된 계기를 응답 1순위와 2순위 선택 비율을 합하여 제시해 보면, 1순위 응답 선택지 비중과 비슷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5〉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게 된 가장 큰 계기(1+2순위)

단위: %, (개소)

구분	부모 수요에 부응	지자 체의 요청	보육정원 충족에 유리	(정원미달) 유휴보육실 활용	운영비 확보에 유리	여유 공간 활용	평판에 유리	기타	계
전체	53.8	38.5	35.6	22.1	15.4	15.4	14.4	4.8	100.0(104)
지역규모									
대도시	46.2	40.4	40.4	13.5	19.2	11.5	23.1	5.8	100.0(52)
중소도시	63.0	39.1	30.4	28.3	10.9	19.6	4.3	4.3	100.0(46)
농어촌	50.0	16.7	33.3	50.0	16.7	16.7	16.7	0.0	100.0(6)
설립유형									
국공립	58.7	21.7	73.9	8.7	19.6	8.7	4.3	4.3	100.0(46)
민간	34.4	50.0	6.3	40.6	15.6	18.8	34.4	0.0	100.0(32)
가정	69.2	53.8	3.8	23.1	7.7	23.1	7.7	11.5	100.0(26)
정원									
20명 이하	72.5	42.5	30.0	17.5	5.0	17.5	5.0	10.0	100.0(40)
21~39명	9.1	63.6	0.0	54.5	9.1	18.2	45.5	0.0	100.0(11)
40~79명	50.0	37.5	41.7	12.5	25.0	8.3	25.0	0.0	100.0(24)
80인 이상	48.3	24.1	51.7	24.1	24.1	17.2	6.9	3.4	100.0(29)

2) 이용 실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 현황을 보면, 2020년 11월 기준 한 달 평균 5.6명의 아동이 시간제 반을 이용하고 있고 이용 건 수로는 32.2건으로 잡힌다. 평균 총 이용 시간은 113.7시간이고 시간제보육 아동들이 이용한 날짜 수는 17일이다. 2020년 11월은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여 휴원하는 지역이 많아지고 시간제보육 운영은 중지된 경우가 생겨났다. 따라서 월 간 이용 일 수는 정상적 운영이 가능했던 월의 평균 날짜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아동별 월 평균 이용 시간은 대략 20.3시간이고 시간제 이용 아동이 기관에 머물러 있었던 일일 평균 시간은 3.53시간으로 계산된다.

〈표 III-1-6〉 시간제 보육 이용 아동 현황

단위: (개소), 명, 건, 시간, 일

	사례수	월 평균			
		이용 아동 수	이용 건 수	이용 시간	이용 일 수
전체	(104)	5.6	32.2	113.7	17.0
지역규모					
대도시	(52)	5.0	30.3	96.7	15.7
중소도시	(46)	6.2	34.3	135.1	18.4
농어촌	(6)	7.5	32.3	97.5	17.7
F		0.8	0.2	-	2.1
설립유형					
국공립	(46)	6.7	36.0	104.3	17.2
민간	(32)	6.1	34.5	143.2	17.9
가정	(26)	3.3	22.5	94.0	15.7
F		-	1.6	1.2	0.8
정원					
20명 이하	(40)	5.3	34.4	118.6	16.9
21~39명 이하	(11)	6.4	38.4	202.9	17.9
40~79명 이하	(24)	5.0	31.5	105.8	18.7
80인 이상	(29)	6.4	27.3	79.8	15.4
F		0.3	-	2.5	1.1

-; 동변량성 가정에 위배되어 통계검정에 부적합함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이용 형태에 따라 구분해 보았다. 1개월 동안 시간제를 이용했던 5.7명의 평균 아동 수 중 36.8%에 해당하는 2.1명이 몇 시간씩 매일 이용하는 경우이고 1.8명은 매일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지속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가끔씩 이용하는 경우가 1명, 단순히 일회성 이용이 0.7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어촌의 경우 매일 지속 이용하는 아동 수가 많은 편이고 국공립은 매일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지속 이용하는 아동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결과적으로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이 6명 중 4명 정도로 70%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7〉 시간제 보육 이용 형태

단위: (개소), 명, (%)

구분	사례수	매일 몇 시간씩 지속이용	주기적으 로 지속 이용	지속적으 로 가끔 이용	일화성 이용	기타	계
전체	(104)	2.1 (36.8)	1.8 (31.6)	1.0 (17.5)	0.7 (12.2)	0.1 (1.8)	5.7 (100.0)
지역규모							
대도시	(52)	1.3	2.0	0.9	0.7	0.0	5.0
중소도시	(46)	2.7	1.6	1.1	0.6	0.2	6.2
농어촌	(6)	3.7	1.5	1.5	0.8	0.0	7.5
<i>F</i>		-	0.1	-	0.4	-	0.8
설립유형							
국공립	(46)	1.7	2.7	1.3	0.8	0.1	6.7
민간	(32)	2.8	1.3	1.2	0.6	0.1	6.1
가정	(26)	1.8	0.7	0.3	0.5	0.0	3.3
<i>F</i>		-	2.2	-	1.2	0.4	2.8
정원							
20명 이하	(40)	1.9	1.6	0.9	0.8	0.1	5.3
21~39명 이하	(11)	3.4	1.7	0.9	0.4	0.0	6.4
40~79명 이하	(24)	1.8	1.3	1.2	0.6	0.2	5.0
80인 이상	(29)	2.1	2.5	1.1	0.7	0.0	6.4
<i>F</i>		1.0	0.4	0.4	0.6	-	0.3

원장이 인식하기에 부모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이유로 어떤 것이 있을지, 각 사유에 대해 대략적 구성 비율을 응답해 달라는 질문에서, 원장들은 아동의 가장 많은 수(24.0%)가 ‘어린이집 입소 대기 기간 동안 시간제 이용’이라는 응답을 선택하였다. 즉, 시간제 보육을 일반 보육 입소 대기 기간 동안 이용하면서 어린이집 적응 훈련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자녀에게 사회성 발달 기회를 주기 위해 짧게 시간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외 부모의 파트타임 직장 근무, 긴급사항 등으로 일시 이용, 쇼핑 등 일시적 일로 해당 시간 맡김 등이 비슷한 비율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설립유형, 정원 등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Ⅲ-1-8〉 시간제 보육 이용 사유에 대한 원장의 인식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입소대기 기간 이용	시간제 근무로 해당 시간 이용	쇼핑, 모임 등 일상적 일로 이용	자녀의 사회성 함양 필요	긴급, 병원 등 예기치 않은 이용	기타	계
전체	24.0	18.3	16.3	20.6	18.1	2.6	100.0(104)
지역규모							
대도시	21.4	16.3	18.5	22.0	19.5	2.4	100.0(52)
중소도시	24.2	20.0	14.2	19.9	18.5	3.2	100.0(46)
농어촌	45.0	23.3	13.3	14.7	3.7	0.0	100.0(6)
F	1.9	0.3	-	0.3	1.2	0.1	
설립유형							
국공립	21.8	21.1	13.9	22.7	15.5	5.0	100.0(46)
민간	27.5	14.4	20.0	17.8	19.3	1.1	100.0(32)
가정	23.7	18.3	16.0	20.5	21.4	0.2	100.0(26)
F	0.4	0.6	0.8	0.4	0.6	-	
정원							
20명 이하	23.1	14.8	16.3	22.7	20.6	2.6	100.0(40)
21~39명 이하	26.8	25.5	16.8	10.0	20.9	0.0	100.0(11)
40~79명 이하	20.6	21.8	16.7	20.7	17.9	2.3	100.0(24)
80인 이상	27.0	17.6	15.9	21.8	14.0	3.8	100.0(29)
F	0.3	0.6	0.0	-	0.5	0.2	

-; 동변량성 가정에 위배되어 통계검정에 부적합함.

3) 운영 수입과 지출

월평균 시간제 보육료 수입은 2020년의 정상운영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63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9년의 경우는 월평균 132만7천으로, '19년이 '20년 월 수입의 2배가 넘는 것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2020년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시간제 보육 운영이 원활치 못했고 이용자 또한 반 이상으로 줄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Ⅲ-1-9〉 월평균 시간제 보육료 수입

단위: 만원, 개소

연도	평균(만원)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사례수(명)
2020	63.1	74.61	500	1	82
2019	132.7	182.58	1,068	1	60

조사를 통해 2020년 11월 (또는 지역에 따라 11월이 COVID-19로 인해 정상 운영이 어려웠던 경우 10월 혹은 정상 운영 월 기준) 시간제 보육 운영 관련 수입과 지출 현황을 1개 반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육료 수입과 운영비 지원금 등을 모두 합계하여 평균 781.8천원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보육료는 평균 592.1천원, 운영지원금은 286.1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운영지원비가 최대 수준인 32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요건 충족 여부가 시설마다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지출 비용을 보면 전체 평균 725.8천원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교재교구 구입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다음으로 보조교사 인건비 지출로 나타나고 있다. 교사처우 개선비나 소모성 물품 구입에 비용을 지출한다고 응답한 사례 수가 많은 편이었다.

〈표 III-1-10〉 시간제 보육 운영 관련 수입과 지출: 1개월 기준

단위: 천원, 명

수입			지출		
항목	금액	사례수	항목	금액	사례수
보육료	592.1	95	교재교구 구입	415.7	71
운영비 지원금	286.1	86	교사처우 개선비용	121.4	47
기타	151.7	3	간식 구입	76.6	31
			소모성 물품 구입	142.5	70
			보험료	106.8	20
			공과금	151.4	62
			보조교사 인건비	295.1	12
			기타	338.3	38
계	781.8	104 ¹⁾		725.8	104

1) 각 항목별 해당 응답 사례수가 모두 다르므로, “계”는 항목별 수치의 합계가 아닌, 별도 104사례의 ‘계’ 항목 응답을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4) 운영에 대한 의견

가) 보육료

원장들이 생각하는 시간제 보육료 수준(시간당 4천원)은 조금 부족한 편으로 느끼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충분하거나 적절한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은 37.5%였고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2.5%였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 경향은 시설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50%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 민간 시설은 68.8%, 가정어린이집은 77%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이나 시설 정원 규모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11〉 현재 시간제보육료 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분	충분함	적절한 정도임	조금 부족함	매우 부족함	계	사례수	평균 점수 ¹⁾
전체	5.8	31.7	43.3	19.2	100.0	104	2.8
지역규모							
대도시	5.8	40.4	34.6	19.2	100.0	52	2.7
중소도시	6.5	23.9	47.8	21.7	100.0	46	2.8
농어촌	16.7	0.0	83.3	0.0	100.0	6	2.8
<i>F</i>		0.6					
설립유형							
국공립	4.3	45.7	41.3	8.7	100.0	46	2.5
민간	25.0	6.2	50.0	18.8	100.0	32	2.8
가정	15.4	10.6	38.5	38.5	100.0	26	3.1
<i>F</i>		3.7*					
정원							
20명 이하	10.0	30.0	32.5	27.5	100.0	40	2.8
21~39명 이하	0.0	9.1	63.6	27.3	100.0	11	3.2
40~79명 이하	0.0	33.3	54.2	12.5	100.0	24	2.8
80인 이상	41.4	6.9	41.4	10.3	100.0	29	2.6
<i>F</i>		-					

-; 동변량성 가정에 위배되어 통계검정에 부적합함

1) 평균 점수는 4점 척도 상 점수를 의미함(1점:충분함 2점:적절함 3점:조금 부족함 4점: 매우 부족함). 점수가 낮을 수록 보육료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을 뜻함.

시간당 4천원의 보육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65명의 원장을 대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제 보육료 수준이 얼마인지를 질문하였다. 52.3%가 5000원~6000원 사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분포를 보여주었고 6000원~7000원 사이가 18.5%로 두 번째 높은 선택 비율을 보였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7000원~8000원을 선택한 경우도 25%로 20명 중 5명이 선택하였다. 그러나 지역이나 설립유형, 정원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12〉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제 보육료 수준

단위: %, 명

구분	4,000원 ~ 5,000원 이하	5,000원 ~ 6,000원 이하	6,000원 ~ 7,000원 이하	7,000원 ~ 8,000원 이하	8,000원 이상	계	사례수
전체	7.7	52.3	18.5	9.2	12.3	100.0	65
지역규모							
대도시	3.6	53.6	14.3	10.7	17.9	100.0	28
중소도시	12.5	46.9	21.9	9.4	9.4	100.0	32
농어촌	0.0	80.0	20.0	0.0	0.0	100.0	5
$\chi^2(df)$		5.428(8)					
설립유형							
국공립	13.0	47.8	26.1	0.0	13.0	100.0	23
민간	9.1	63.6	9.1	4.5	13.6	100.0	22
가정	0.0	45.0	20.0	25.0	10.0	100.0	20
$\chi^2(df)$		13.242(8)					
정원							
20명 이하	4.2	41.7	25.0	20.8	8.3	100.0	24
21~39명 이하	0.0	80.0	0.0	10.0	10.0	100.0	10
40~79명 이하	18.8	56.3	12.5	0.0	12.5	100.0	16
80인 이상	6.7	46.7	26.7	0.0	20.0	100.0	15
$\chi^2(df)$		16.543(12)					

시간당 4천원의 보육료를 정부가 3천원 지원, 부모가 1천원 지불하는 현재의 시간제 보육료 방식에 대해 68.3%가 적절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정부와 부모가 각각 50%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2:부모2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순으로 많은 15.4%가 가장 적절하다고 선택하였고, 부모가 4000원 보육료 전액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은 6.7%였다.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농어촌 시설에서 현행 방식에 대한 동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부모가 전액 지불하는 방식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지역규모, 설립유형, 정원규모에 따른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II-1-13〉 시간제보육료 정부 3천원+부모 1천원 지불 방식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현행 방식 적절	정부2:부모2	정부1:부모3	부모 전액 지불	기타	계 (사례수)
전체	68.3	15.4	3.8	6.7	5.8	100.0 (104)
지역규모						
대도시	63.5	19.2	5.8	5.8	5.8	100.0 (52)
중소도시	71.7	13.0	2.2	8.7	4.3	100.0 (46)
농어촌	83.3	0.0	0.0	0.0	16.7	100.0 (6)
$\chi^2(df)$	5.244(8)					
설립유형						
국공립	69.6	17.4	6.5	4.3	2.2	100.0 (46)
민간	71.9	15.6	0.0	6.3	6.3	100.0 (32)
가정	61.5	11.5	3.8	11.5	11.5	100.0 (26)
$\chi^2(df)$	6.539(8)					
정원						
20명 이하	67.5	12.5	5.0	7.5	7.5	100.0 (40)
21~39명 이하	54.5	27.3	0.0	9.1	9.1	100.0 (11)
40~79명 이하	79.2	12.5	0.0	4.2	4.2	100.0 (24)
80인 이상	65.5	17.2	6.9	6.9	3.4	100.0 (29)
$\chi^2(df)$	5.522(12)					

나) 운영비

시간제보육 운영비 지원 수준에 대해 원장이 생각하는 충분성 정도를 살펴보면, 약 54%가량이 충분하거나 적절한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매우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6% 정도로, 적절하거나 충분하다고 보는 비율이 부족하다는 의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시간제를 운영하는 원장들은 정부의 현 운영비 지원 수준이 적절 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결과에만 의한다면 운영비 상향의 근거가 부족하다.

대도시에 위치해 있거나 국공립 시설일 때 운영비 지원이 적절하거나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농어촌이나 중소도시는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사례수가 적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 해석 가치는 떨어진다. 한편으로 가정어린이집과 40~79인 정원의 중규모 어린이집에서 운영비 부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도 통계적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14〉 현행 시간제 보육 운영비 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분	충분함	적절한 정도임	조금 부족함	매우 부족함	계	사례수	평균 ¹⁾
전체	8.7	45.2	36.5	9.6	100.0	104	2.5
지역규모							
대도시	5.8	59.6	26.9	7.7	100.0	52	2.4
중소도시	10.9	32.6	43.5	13.0	100.0	46	2.6
농어촌	16.7	16.7	66.7	0.0	100.0	6	2.5
$\chi^2(df)$	11.044(6)						1.0
설립유형							
국공립	6.5	54.3	30.4	8.7	100.0	46	2.4
민간	9.4	40.6	40.6	9.4	100.0	32	2.5
가정	11.5	34.6	42.3	11.5	100.0	26	2.5
$\chi^2(df)$	3.150(6)						0.2
정원							
20명 이하	12.5	42.5	35.0	10.0	100.0	40	2.4
21~39명 이하	9.1	45.5	36.4	9.1	100.0	11	2.5
40~79명 이하	0.0	45.8	37.5	16.7	100.0	24	2.7
80인 이상	10.3	48.3	37.9	3.4	100.0	29	2.3
$\chi^2(df)$	5.431(9)						1.0

1) 평균 점수는 4점 척도 상 점수를 의미함(1점:충분함 2점:적절함 3점:조금 부족함 4점: 매우 부족함). 점수가 낮을 수록 보육료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을 뜻함.

현행 시간제보육 운영비 지원 수준(조건에 따라 월 22.4만원 또는 32만원)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보면 불만족에 해당하는 비율이 24.1%이고 나머지 약 75.9%가 보통이상으로 응답하여 시간제보육 운영비 지원에 대해 답하여 불만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5%는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여 불만족 비율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앞서 운영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46%를 넘었으나 그래도 불만족으로 응답하지 않은 비율이 이 중 절반 가량인 것은 정부의 운영비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5점 척도 상에서도 3점 수준으로 만족도를 나타냈다. 도시 지역이 농어촌보다,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이나 민간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20명 이하 시설에서 만족도 3.2점/5점으로 규모별 비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III-1-15〉 시간제보육 운영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	사례수	평균 ¹⁾
전체	5.8	18.3	51.0	20.2	4.8	100.0	104	3.0
지역규모								
대도시	7.7	17.3	53.8	19.2	1.9	100.0	52	2.9
중소도시	4.3	17.4	45.7	23.9	8.7	100.0	46	3.2
농어촌	0.0	33.3	66.7	0.0	0.0	100.0	6	2.7
$\chi^2(df)/F$	6.447(8)							1.4
설립유형								
국공립	8.7	21.7	50.0	17.4	2.2	100.0	46	2.8
민간	6.3	15.6	46.9	25.0	6.3	100.0	32	3.1
가정	0.0	15.4	57.7	19.2	7.7	100.0	26	3.2
$\chi^2(df)/F$	4.893(8)							1.6
정원								
20명 이하	2.5	15.0	52.5	22.5	7.5	100.0	40	3.2
21~39명 이하	9.1	18.2	54.5	18.2	0.0	100.0	11	2.8
40~79명 이하	8.3	29.2	37.5	16.7	8.3	100.0	24	2.9
80인 이상	6.9	13.8	58.6	20.7	0.0	100.0	29	2.9
$\chi^2(df)/F$	8.060(12)							0.9

1) 평균 점수는 5점 척도 상 점수를 의미함(1점:매우불만족 2점:불만족 3점:보통 4점:만족 5점:매우만족).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뜻함.

다) 운영의 어려움

원장으로서 시간제보육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으로 거론한 사항들을 살펴 보면, 이용하는 아동 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59.6%가 꼽아서 독보적으로 높은 비율로 선택되었고 부모가 예약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다는 점도 13.5%로 높은 편이었다. 시간제보육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부족이나 교사 채용 등의 어려움은 10% 이하의 원장이 어려움으로 꼽고 있어 크게 힘든 부분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시설유형이나 지역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았다.

〈표 III-1-16〉 시간제보육 운영에서 어려운 점

단위: %, 명

구분	이용 아동 수 예측 어려움	부모의 예약 시간 미준수	시간제 보육프 로그램 부족	시간제 확장 공간 부족	시간제 교사 채용	기타	계	사례수
전체	59.6	13.5	7.7	4.8	3.8	10.6	100.0	104
지역규모								
대도시	73.1	11.5	3.8	1.9	1.9	7.7	100.0	52
중소도시	41.3	17.4	10.9	8.7	6.5	15.2	100.0	46
농어촌	83.3	0.0	16.7	0.0	0.0	0.0	100.0	6
$\chi^2(df)$		14.646(10)						
설립유형								
국공립	58.7	13.0	6.5	6.5	4.3	10.9	100.0	46
민간	75.0	3.1	12.5	0.0	3.1	6.3	100.0	32
가정	42.3	26.9	3.8	7.7	3.8	15.4	100.0	26
$\chi^2(df)$		13.654(10)						
정원								
20명 이하	45.0	25.0	7.5	7.5	5.0	10.0	100.0	40
21~39명 이하	81.8	0.0	0.0	0.0	9.1	9.1	100.0	11
40~79명 이하	66.7	0.0	8.3	4.2	4.2	16.7	100.0	24
80인 이상	65.5	13.8	10.3	3.4	0.0	6.9	100.0	29
$\chi^2(df)$		17.068(15)						

시간제보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반을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 원장들은 ‘처음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겪게 되는 적응의 곤란을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점’을 35.6%로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다음 순으로는 ‘6~36개월이라는 연령차가 나는 아동들을 한 반에서 동시에 보육해야 하는 점’을 33.7%가 어려움을 들고 있었는데, 소규모인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신규 이용 아동의 적응 지도 보다 혼합연령 동시 보육을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오히려 높았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다양한 부모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점 또한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으로 선택되었다. 기타 응답으로 교사가 부모의 시간제 보육료를 결제하도록 수납하는 업무 등이 어려움으로 꼽혔다.

〈표 III-17〉 시간제보육 담당 교사가 겪는 어려움(1순위)

단위: 명, %

구분	신규 이용 아동의 적응	혼합 연령 동시 보육	안정적이 지 않은 도래 관계지도	수시 등하원 지도	다양한 부모 요구 대응	활동 계획안 작성	기타	계	사례수
전체	35.6	33.7	10.6	6.7	5.8	1.9	5.8	100.0	104
지역규모									
대도시	44.2	25.0	9.6	9.6	5.8	0.0	5.8	100.0	52
중소도시	26.1	43.5	13.0	4.3	6.5	2.2	4.3	100.0	46
농어촌	33.3	33.3	0.0	0.0	0.0	16.7	16.7	100.0	6
$\chi^2(df)$	16.708(12)								
설립유형									
국공립	34.8	32.6	10.9	10.9	4.3	0.0	6.5	100.0	46
민간	46.9	34.4	9.4	0.0	3.1	3.1	3.1	100.0	32
가정	23.1	34.6	11.5	7.7	11.5	3.8	7.7	100.0	26
$\chi^2(df)$	10.029(12)								
정원									
20명 이하	22.5	35.0	12.5	7.5	10.0	2.5	10.0	100.0	40
21~39명 이하	54.5	18.2	9.1	0.0	9.1	0.0	9.1	100.0	11
40~79명 이하	37.5	41.7	4.2	12.5	0.0	0.0	4.2	100.0	24
80인 이상	44.8	31.0	13.8	3.4	3.4	3.4	0.0	100.0	29
$\chi^2(df)$	16.315(18)								

5) 개선 요구

가) 운영 기준별 개선 필요 여부

시간제보육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 개선 필요 제도로 꼽힌 항목은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45.2%)이었다. 다음 순으로는 ‘시간당 보육료 4천원’(44.2%), ‘운영비 지원 기준’(42.3%)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 운영비, 보육료 등 비용 관련 규정에 대해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항목에 대해 25~29% 수준에서 현재의 수준이 적절하며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어 시설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선보다는 현재 규정을 유지했으면 한다는 항목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

한 예약 방식’(76%), ‘당일 이용 전화 신청 방식’(52.9%), ‘시간제 보육 전용 공간 기준 요건’(51%), ‘일일 9시부터 18시까지의 운영 시간’(49%)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 예약을 하는 방법이나 운영 시간과 공간 규정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간제 보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월 80시간 이용까지 제한된 보육료 지원’ 등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점차 개선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제도로 조사되었다.

〈표 III-1-18〉 시간제보육 운영 기준에서 개선 필요 사항

단위: %, (명)

운영 기준	개선 불필요	개선 필요		계(사례수)
	현재 방식 유지	우선 필요	장기적으로 점차 개선 필요	
1) 월 80시간 이용까지 제한된 보육료 지원	32.7	30.8	36.5	100.0 (104)
2) 일일 9시부터 18시까지의 운영 시간	49.0	36.5	14.4	100.0 (104)
3)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예약 방식	76.0	11.5	12.5	100.0 (104)
4) 당일 이용 전화 신청 방식	52.9	32.7	14.4	100.0 (104)
5) 시간당 보육료 4천원	26.0	44.2	29.8	100.0 (104)
6) 시간제 보육 전용 공간 기준 요건	51.0	20.2	28.8	100.0 (104)
7) 시간제 보육프로그램의 다양화	40.4	18.3	41.3	100.0 (104)
8)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28.8	45.2	26.0	100.0 (104)
9) 운영비 지원 기준	25.0	42.3	32.7	100.0 (104)
10) 교사 대 영유아비율 1:3	39.4	32.7	27.9	100.0 (104)

다음에서는 각 운영 기준별 개선 요구 현황을 지역별, 설립유형별, 정원별로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현행 ‘월 80시간 이용까지 제한된 보육료 지원’ 방식이 우선 개선되었으면 하는 의견은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국공립은 개선이 불필요하고 현재 방식으로 유지하였으면 하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46.9%가 우선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꼽아서 가장 요구가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표 Ⅲ-1-19〉 개선 요구 1: 월 80시간 이용까지 제한된 보육료 지원

단위: %, 명

구분	현재 방식 유지 (개선 불필요)	개선 우선 필요	장기적으로 점차 개선 필요	계	사례수
전체	32.7	30.8	36.5	100.0	104
지역규모					
대도시	40.4	26.9	32.7	100.0	52
중소도시	26.1	32.6	41.3	100.0	46
농어촌	16.7	50.0	33.3	100.0	6
$\chi^2(df)$	3.562(4)				
설립유형					
국공립	45.7	19.6	34.8	100.0	46
민간	15.6	46.9	37.5	100.0	32
가정	30.8	30.8	38.5	100.0	26
$\chi^2(df)$	9.892(4)*				
정원					
20명 이하	32.5	22.5	45.0	100.0	40
21~39명 이하	9.1	54.5	36.4	100.0	11
40~79명 이하	41.7	33.3	25.0	100.0	24
80인 이상	34.5	31.0	34.5	100.0	29
$\chi^2(df)$	7.148(6)				

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운영 시간에 대해서는 대체로 현행 유지 의견이 높은 편이고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가정, 민간 어린이집에서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1-20〉 개선 요구 2: 일일 9시부터 18시까지의 운영 시간

단위: %, (명)

구분	현재 방식 유지 (개선 불필요)	개선 우선 필요	장기적으로 점차 개선 필요	계	사례수
전체	49.0	36.5	14.4	100.0	(104)
지역규모					
대도시	46.2	40.4	13.5	100.0	(52)
중소도시	47.8	37.0	15.2	100.0	(46)
농어촌	83.3	0.0	16.7	100.0	(6)
$\chi^2(df)$	4.020(4)				

구분	현재 방식 유지 (개선 불필요)	개선 우선 필요	장기적으로 점차 개선 필요	계	사례수
설립유형					
국공립	37.0	43.5	19.6	100.0	(46)
민간	59.4	37.5	3.1	100.0	(32)
가정	57.7	23.1	19.2	100.0	(26)
$\chi^2(df)$	8.459(4)				
정원					
20명 이하	50.0	30.0	20.0	100.0	(40)
21~39명 이하	63.6	36.4	0.0	100.0	(11)
40~79명 이하	54.2	37.5	8.3	100.0	(24)
80인 이상	37.9	44.8	17.2	100.0	(29)
$\chi^2(df)$	5.589(6)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하는 현재의 시간제 이용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방식 유지가 절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으나,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나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민간어린이집에서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5%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1-21〉 개선 요구 3: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예약 방식

단위: %, 명

구분	현재 방식 유지 (개선 불필요)	개선 우선 필요	장기적으로 점차 개선 필요	계	사례수
전체	76.0	11.5	12.5	100.0	104
지역규모					
대도시	78.8	7.7	13.5	100.0	52
중소도시	71.7	15.2	13.0	100.0	46
농어촌	83.3	16.7	0.0	100.0	6
$\chi^2(df)$	2.350(4)				
설립유형					
국공립	87.0	4.3	8.7	100.0	46
민간	65.6	25.0	9.4	100.0	32
가정	69.2	7.7	23.1	100.0	26
$\chi^2(df)$	11.867(4)*				
정원					
20명 이하	75.0	7.5	17.5	100.0	40

구분	현재 방식 유지 (개선 불필요)	개선 우선 필요	장기적으로 점차 개선 필요	계	사례수
21~39명 이하	72.7	27.3	0.0	100.0	11
40~79명 이하	83.3	16.7	0.0	100.0	24
80인 이상	72.4	6.9	20.7	100.0	29
$\chi^2(df)$	10.985(6)				

당일 이용 시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였으며 지역규모나 설립유형, 정원 등으로 구분된 비교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1-22〉 개선 요구 4: 당일 이용 전화 신청 방식

단위: %, 명

구분	현재 방식 유지 (개선 불필요)	개선 우선 필요	장기적으로 점차 개선 필요	계	사례수
전체	52.9	32.7	14.4	100.0	104
지역규모					
대도시	48.1	30.8	21.2	100.0	52
중소도시	54.3	37.0	8.7	100.0	46
농어촌	83.3	16.7	0.0	100.0	6
$\chi^2(df)$	5.629(4)				
설립유형					
국공립	52.2	30.4	17.4	100.0	46
민간	53.1	37.5	9.4	100.0	32
가정	53.8	30.8	15.4	100.0	26
$\chi^2(df)$	1.200(4)				
정원					
20명 이하	57.5	30.0	12.5	100.0	40
21~39명 이하	36.4	45.5	18.2	100.0	11
40~79명 이하	62.5	33.3	4.2	100.0	24
80인 이상	44.8	31.0	24.1	100.0	29
$\chi^2(df)$	6.027(6)				

시간당 보육료 4천원 규정에 대해서도 집단간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데,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국공립에서 비교적 현재 방식 유지의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I-1-23〉 개선 요구 5: 시간당 보육료 4천원

단위: %, 명

구분	현재 방식 유지 (개선 불필요)	개선 우선 필요	장기적으로 점차 개선 필요	계	사례수
전체	26.0	44.2	29.8	100.0	104
지역규모					
대도시	28.8	36.5	34.6	100.0	52
중소도시	21.7	50.0	28.3	100.0	46
농어촌	33.3	66.7	0.0	100.0	6
$\chi^2(df)$	4.561(4)				
설립유형					
국공립	37.0	34.8	28.3	100.0	46
민간	18.8	53.1	28.1	100.0	32
가정	15.4	50.0	34.6	100.0	26
$\chi^2(df)$	5.869(4)				
정원					
20명 이하	32.5	35.0	32.5	100.0	40
21~39명 이하	9.1	63.6	27.3	100.0	11
40~79명 이하	12.5	58.3	29.2	100.0	24
80인 이상	34.5	37.9	27.6	100.0	29
$\chi^2(df)$	7.570(6)				

시간제 보육 운영을 위한 전용 공간 기준(보육실 영유아당 4.29㎡)에 대해서 현행 방식 유지 지지율이 우세한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우선 개선 필요’를 요구하는 의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설 유형별 차이를 나타냈다. 지역 규모나 시설 정원 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III-1-24〉 개선 요구 6: 시간제 보육 전용 공간 기준 요건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명)	현재 방식 유지 (개선 불필요)	개선 우선 필요	장기적으로 점차 개선 필요	계
전체	104	51.0	20.2	28.8	100.0
지역규모					
대도시	52	44.2	17.3	38.5	100.0

구분	사례수 (명)	현재 방식 유지 (개선 불필요)	개선 우선 필요	장기적으로 점차 개선 필요	계
중소도시	46	54.3	23.9	21.7	100.0
농어촌	6	83.3	16.7	0.0	100.0
$\chi^2(df)$		6.569(4)			
설립유형					
국공립	46	56.5	6.5	37.0	100.0
민간	32	46.9	37.5	15.6	100.0
가정	26	46.2	23.1	30.8	100.0
$\chi^2(df)$		12.635(4)*			
정원					
20명 이하	40	52.5	17.5	30.0	100.0
21~39명 이하	11	45.5	27.3	27.3	100.0
40~79명 이하	24	54.2	16.7	29.2	100.0
80인 이상	29	48.3	24.1	27.6	100.0
$\chi^2(df)$		1.006(6)			

시간제보육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화 관련 의견을 보면, 국공립과 가정어린이집은 ‘장기적으로 점차 개선 필요’ 목소리가 높은 데 비해, 민간은 다른 유형보다 ‘개선 우선 필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아 설립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III-1-25〉 개선 요구 7: 시간제 보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단위: %, 명

구분	현재 방식 유지 (개선 불필요)	개선 우선 필요	장기적으로 점차 개선 필요	계	사례수
전체	40.4	18.3	41.3	100.0	104
지역규모					
대도시	44.2	11.5	44.2	100.0	52
중소도시	39.1	21.7	39.1	100.0	46
농어촌	16.7	50.0	33.3	100.0	6
$\chi^2(df)$	6.196(4)				
설립유형					
국공립	43.5	8.7	47.8	100.0	46
민간	40.6	34.4	25.0	100.0	32
가정	34.6	15.4	50.0	100.0	26
$\chi^2(df)$	10.300(4)*				
정원					
20명 이하	35.0	12.5	52.5	100.0	40

구분	현재 방식 유지 (개선 불필요)	개선 우선 필요	장기적으로 점차 개선 필요	계	사례수
21~39명 이하	54.5	18.2	27.3	100.0	11
40~79명 이하	45.8	29.2	25.0	100.0	24
80인 이상	37.9	17.2	44.8	100.0	29
$\chi^2(df)$	6.725(6)				

시간제 보육 교사의 인건비 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개선 우선 필요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설립유형별이나 지역, 정원 규모별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II-1-26〉 개선 요구 8: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명)	현재 방식 유지 (개선 불필요)	개선 우선 필요	장기적으로 점차 개선 필요	계
전체	104	28.8	45.2	26.0	100.0
지역규모					
대도시	52	32.7	42.3	25.0	100.0
중소도시	46	23.9	45.7	30.4	100.0
농어촌	6	33.3	66.7	0.0	100.0
$\chi^2(df)$		3.338(4)			
설립유형					
국공립	46	30.4	52.2	17.4	100.0
민간	32	25.0	43.8	31.3	100.0
가정	26	30.8	34.6	34.6	100.0
$\chi^2(df)$		3.788(4)			
정원					
20명 이하	40	27.5	47.5	25.0	100.0
21~39명 이하	11	0.0	54.5	45.5	100.0
40~79명 이하	24	37.5	41.7	20.8	100.0
80인 이상	29	34.5	41.4	24.1	100.0
$\chi^2(df)$		6.465(6)			

시간제 보육 제도에서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운영비 지원 기준’ 항목에 대해서 시설유형이나 지역, 시설규모별 응답에서 차이나는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표 III-1-27〉 개선 요구 9: 운영비 지원 기준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명)	현재 방식 유지 (개선 불필요)	개선 우선 필요	장기적으로 점차 개선 필요	계
전체	104	25.0	42.3	32.7	100.0
지역규모					
대도시	52	30.8	36.5	32.7	100.0
중소도시	46	19.6	45.7	34.8	100.0
농어촌	6	16.7	66.7	16.7	100.0
$\chi^2(df)$		3.307(4)			
설립유형					
국공립	46	32.6	41.3	26.1	100.0
민간	32	18.8	37.5	43.8	100.0
가정	26	19.2	50.0	30.8	100.0
$\chi^2(df)$		4.301(4)			
정원					
20명 이하	40	27.5	42.5	30.0	100.0
21~39명 이하	11	18.2	27.3	54.5	100.0
40~79명 이하	24	16.7	50.0	33.3	100.0
80인 이상	29	31.0	41.4	27.6	100.0
$\chi^2(df)$		4.253(6)			

현행 시간제 보육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1:3 방식에 대해서 현재 방식 유지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는데, 개선 우선 필요나 장기적 점차 개선 필요 또한 큰 차이 없는 응답 비율을 보인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40인~79인의 중간 규모 시설에서 우선적으로 개선 필요 항목으로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III-1-28〉 개선 요구 10: 교사 대 영유아 비율 1:3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명)	현재 방식 유지 (개선 불필요)	개선 우선 필요	장기적으로 점차 개선 필요	계
전체	104	39.4	32.7	27.9	100.0
지역규모					
대도시	52	34.6	32.7	32.7	100.0
중소도시	46	43.5	32.6	23.9	100.0

구분	사례수 (명)	현재 방식 유지 (개선 불필요)	개선 우선 필요	장기적으로 점차 개선 필요	계
농어촌	6	50.0	33.3	16.7	100.0
$\chi^2(df)$		1.630(4)			
설립유형					
국공립	46	34.8	34.8	30.4	100.0
민간	32	46.9	28.1	25.0	100.0
가정	26	38.5	34.6	26.9	100.0
$\chi^2(df)$		1.215(4)			
정원					
20명 이하	40	42.5	30.0	27.5	100.0
21~39명 이하	11	45.5	18.2	36.4	100.0
40~79명 이하	24	29.2	41.7	29.2	100.0
80인 이상	29	41.4	34.5	24.1	100.0
$\chi^2(df)$		2.729(6)			

나) 개선 필요 우선 순위 및 개선 방안

시간제 보육 운영과 관련한 규정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제도의 우선 순위를 꼽아 보라는 질문에서 1, 2, 3순위로 선택한 항목들을 모두 포함해서 살펴보면, 원장들은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시간당 보육료 4천원, 교사 대 영유아비율 1:3 기준, 운영비 지원 기준, 일일 09:00~18:00까지 운영 시간 등이 지적되었다. 비용 지원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교사 대 영유아비율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9〉 시간제보육 운영 제도 중 개선 우선 순위 의견

단위: %

개선 우선 순위		
	1순위	1+2+3순위
1) 월 80시간 이용까지 제한된 보육료 지원	11.5	31.7
2) 일일 9시부터 18시까지의 운영 시간	16.3	36.5
3)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예약 방식	1.0	6.7
4) 당일 이용 전화 신청 방식	8.7	20.2
5) 시간당 보육료 4천원	13.5	43.3
6) 시간제 보육 전용 공간 기준 요건	1.9	12.5
7) 시간제 보육프로그램의 다양화	1.9	12.5

개선 우선 순위		
	1순위	1+2+3순위
8)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22.1	44.2
9) 운영비 지원 기준	7.7	37.5
10) 교사 대 영유아비율 1:3	12.5	39.4
해당없음	2.9	2.9
계	100.0	100.0

현행 시간제 보육 운영 시간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원장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의 개선이 적절한지라는 질문에 대해 종료시간을 17시로 당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6%로 가장 많았고 시작시간을 10시로 늦추자는 의견도 39.6%로 나왔다.

특이점으로는 응답 사례수가 많지는 않지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종료시간을 오후 6시 이후로 늦추자는 의견이 45.5%로 상당히 많았고 국공립은 82.8%가 종료시간을 오후 5시로 당기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III-1-30〉 현행 시간제 보육 운영 시간 기준의 개선 방향(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명)	종료시간을 5시로 당김	시작시간을 10시로 늦춤	시작시간을 9시 이전 으로 당김	종료시간을 6시 이후 로 늦춤	기타
전체	53	66.0	39.6	20.8	15.1	9.4
지역규모						
대도시	28	82.1	46.4	10.7	3.6	7.1
중소도시	24	50.0	33.3	33.3	25.0	12.5
농어촌	1	0.0	0.0	0.0	100.0	0.0
$\chi^2(df)$						
설립유형	29	82.8	37.9	13.8	3.4	6.9
국공립	13	53.8	30.8	30.8	15.4	15.4
민간	11	36.4	54.5	27.3	45.5	9.1
가정						
$\chi^2(df)$	20	50.0	50.0	20.0	30.0	15.0
정원	4	75.0	25.0	25.0	0.0	25.0
20명 이하	11	72.7	36.4	27.3	0.0	9.1
21~39명 이하	18	77.8	33.3	16.7	11.1	0.0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63명의 원장들은 1:2로 조정하자는 의견에 81.0%가 동의하여 대다수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줄이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다. 특히 국공립과 가정어린이집에서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표 III-1-31〉 현행 시간제보육 1:3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시, 적정 수준

단위: %, 명

구분	1:2	1:4	1:5	기타	계	사례수
전체	81.0	4.8	6.3	7.9	100.0	63
지역규모						
대도시	88.2	0.0	0.0	11.8	100.0	34
중소도시	69.2	11.5	15.4	3.8	100.0	26
농어촌	100.0	0.0	0.0	0.0	100.0	3
$\chi^2(df)$	12.174(6)					
설립유형						
국공립	96.7	0.0	3.3	0.0	100.0	30
민간	52.9	11.8	11.8	23.5	100.0	17
가정	81.3	6.3	6.3	6.3	100.0	16
$\chi^2(df)$	14.678(6)*					
정원						
20명 이하	87.0	4.3	4.3	4.3	100.0	23
21~39명 이하	50.0	0.0	16.7	33.3	100.0	6
40~79명 이하	76.5	5.9	5.9	11.8	100.0	17
80인 이상	88.2	5.9	5.9	0.0	100.0	17
$\chi^2(df)$	9.425(9)					

6) 시간제 보육 확대

현재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시설의 원장에게 이 서비스의 운영을 권유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52.9%가 그러하다고 응답하여 과반수가 권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권유할 생각이 없다는 데에도 47% 이상이 동의하여 어느 정도 의견이 나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시간제보육이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장점이 있어 권유하겠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운영의 번거로움이나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반대한다는 견해뿐 아니라 지역 내 권유를 통해 과도한 공급이 이루어지면 수요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권유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도 해석 시 감안해야 할 것이다 (주. 원장 간담회 의견 반영함.). 특히 가정어린이집에서 권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1-32〉 시간제 보육 운영 권유 의향

단위: %, 명

구분	권유할 생각 있음	권유할 생각 없음	계	사례수
전체	52.9	47.1	100.0	104
지역규모				
대도시	50.0	50.0	100.0	52
중소도시	56.5	43.5	100.0	46
농어촌	50.0	50.0	100.0	6
$\chi^2(df)$	0.438(2)			
설립유형				
국공립	50.0	50.0	100.0	46
민간	50.0	50.0	100.0	32
가정	61.5	38.5	100.0	26
$\chi^2(df)$	1.042(2)			
정원				
20명 이하	60.0	40.0	100.0	40
21~39명 이하	45.5	54.5	100.0	11
40~79명 이하	50.0	50.0	100.0	24
80인 이상	48.3	51.7	100.0	29
$\chi^2(df)$	1.384(3)			

향후 정부가 시간제보육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에 대해 적절하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는 비율은 71.2%로 나타나 다수가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1-33〉 향후 정부의 시간제 보육 확대 정책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매우 필요함	어느 정도 필요함	별로 필요하지 않음	전혀 불필요 함	계	사례수
전체	15.4	55.8	23.1	5.8	100.0	104
지역규모						

구분	매우 필요함	어느 정도 필요함	별로 필요하지 않음	전혀 불필요 함	계	사례수
대도시	11.5	53.8	26.9	7.7	100.0	52
중소도시	19.6	60.9	15.2	4.3	100.0	46
농어촌	16.7	33.3	50.0	0.0	100.0	6
$\chi^2(df)$	6.109(6)					
설립유형						
국공립	13.0	54.3	23.9	8.7	100.0	46
민간	21.9	50.0	21.9	6.3	100.0	32
가정	11.5	65.4	23.1	0.0	100.0	26
$\chi^2(df)$	4.158(6)					
정원						
20명 이하	15.0	60.0	20.0	5.0	100.0	40
21~39명 이하	18.2	36.4	27.3	18.2	100.0	11
40~79명 이하	12.5	58.3	25.0	4.2	100.0	24
80인 이상	17.2	55.2	24.1	3.4	100.0	29
$\chi^2(df)$	4.813(9)					

나. 시간제보육 미운영 어린이집 조사 결과 분석

1) 제도 인지도 및 운영 의사

조사에 참여한 시간제보육 미운영 어린이집 152개소 중 96.1%는 시간제보육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는 없었으며, 3.9%는 거의 모른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9.8%가 시간제보육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하고 설립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가정 어린이집의 인지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4〉 시간제 보육 제도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모름	거의 모름	대충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계	사례수
전체	0.0	3.9	56.6	39.5	100.0	152
지역규모						
대도시	0.0	4.1	48.6	47.3	100.0	74
중소도시	0.0	3.7	59.3	37.0	100.0	54

구분	전혀 모름	거의 모름	대충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계	사례수
농어촌	0.0	4.2	75.0	20.8	100.0	24
$\chi^2(df)$	5.685(4)					
설립유형					100.0	
국공립	0.0	1.6	41.0	57.4	100.0	61
민간	0.0	9.8	56.9	33.3	100.0	51
가정	0.0	0.0	80.0	20.0	100.0	40
$\chi^2(df)$	22.618(4)***					
정원						
20명 이하	0.0	0.0	75.0	25.0	100.0	48
21~39명 이하	0.0	3.6	50.0	46.4	100.0	28
40~79명 이하	0.0	7.3	43.6	49.1	100.0	55
80인 이상	0.0	4.8	57.1	38.1	100.0	21
$\chi^2(df)$	12.393(6)					

시간제보육 운영을 고려해본 경험에 대해서는 65.1%의 어린이집이 고려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응답을 비교하였을 때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설립 유형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은 25%, 민간 어린이집은 37%가 시간제보육을 고려해본 반면 가정어린이집은 47%로 비교적 많은 어린이집이 시간제보육 운영에 대해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어린이집이 시간제보육 운영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을 것임을 보여준다.

〈표 III-1-35〉 시간제 보육 운영 고려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	사례수 (명)
전체	34.9	65.1	100.0	146
지역규모				
대도시	33.8	66.2	100.0	71
중소도시	38.5	61.5	100.0	52
농어촌	30.4	69.6	100.0	23
$\chi^2(df)$	0.529(2)			
설립유형				
국공립	25.0	75.0	100.0	60
민간	37.0	63.0	100.0	46
가정	47.5	52.5	100.0	40

구분	있음	없음	계	사례수 (명)
$\chi^2(df)$	5.467(2)			
정원				
20명 이하	41.7	58.3	100.0	48
21~39명 이하	22.2	77.8	100.0	27
40~79명 이하	35.3	64.7	100.0	51
80인 이상	35.0	65.0	100.0	20
$\chi^2(df)$	2.880(3)			

시간제보육 운영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높은 39.2%가 보육실 공간 부족을 꼽았고, 전혀 고려해보지 않은 경우에도 51.5%의 어린이집이 공간 부족을 운영 불가능 이유로 선택했다. 부모들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도 각각 21.6%, 23.2%로 뒤를 이었다.

〈표 III-1-36〉 시간제보육 운영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시간제보육 운영을 고려했으나 선택하지 않은 이유	시간제보육 운영을 전혀 고려해 보지 않은 이유
시간제 보육실을 둘 공간이 충분치 않음	39.2	51.6
부모들의 이용 수요가 충분하지 않음	21.6	23.2
인근에 시간제 보육 제공 시설이 있음	11.8	9.5
운영비가 충분할 것 같지 않아서	5.9	3.2
계(사례수)	100.0(51)	100.0(95)

2021년도에 정부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기관을 모집한다고 한다면 이에 응하겠느냐는 질문에서 37.2%의 어린이집이 신청 의사를 나타냈다. 앞서 제시한 고려여부와 비슷하게, 가정어린이집의 42.5%, 정원이 20명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43.8%가 높은 신청 의사를 보이고 있었다.

〈표 III-1-37〉 차후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 모집 시 신청 의사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	사례수
전체	37.2	62.8	100.0	148
지역규모				
대도시	41.1	58.9	100.0	73

구분	있음	없음	계	사례수
중소도시	32.7	67.3	100.0	52
농어촌	34.8	65.2	100.0	23
$\chi^2(df)$	0.984(2)			
설립유형				
국공립	28.3	71.7	100.0	60
민간	43.8	56.3	100.0	48
가정	42.5	57.5	100.0	40
$\chi^2(df)$	3.383(2)			
정원				
20명 이하	43.8	56.3	100.0	48
21~39명 이하	40.7	59.3	100.0	27
40~79명 이하	30.2	69.8	100.0	53
80인 이상	35.0	65.0	100.0	20
$\chi^2(df)$	2.184(3)			

2) 시간제보육 운영의 장애가 되는 운영 기준

현재 실행중인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 관련 규정에 대해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지 조사하였을 때 역시 공간 기준 요건에 대해 50.7%가 큰 장애물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고 31.6%도 조금 문제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 장애물을 높게 느끼는 규정으로는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에 대한 부분으로 39.5%의 응답자가 큰 문제를 느끼고 있었고, 이어서 38.2%의 응답자도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 시간제 보육 프로그램, 운영 시간과 관련하여서는 40% 이상의 응답자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1-38〉 시간제 보육을 도입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정도

(단위: %)

시간제 보육 운영 방법	크게 문제됨	조금 문제됨	문제 되지 않음	계
1) 월 80시간 이용까지 제한된 보육료 지원	28.3	46.7	25.0	100.0
2) 일일 9시부터 18시까지의 운영 시간	21.7	36.2	42.1	100.0
3) 시간당 보육료 4천원	28.3	38.8	32.9	100.0
4) 시간제 보육 전용 공간 기준 요건	50.7	31.6	17.8	100.0
5) 시간제 보육 프로그램의 불충분	17.8	40.8	41.4	100.0

시간제 보육 운영 방법	크게 문제됨	조금 문제됨	문제 되지 않음	계
6)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39.5	38.2	22.4	100.0
7) 시간제 보육 담임 교사 경력 기준	21.1	39.5	39.5	100.0
8) 시간제 운영비 지원금 수준	28.9	42.8	28.3	100.0
9) 교사 대 영유아 비율 1:3	22.4	30.9	46.7	100.0

항목별로 살펴보면, 시간제보육료 지원에 대해 전체 75%의 어린이집이 문제를 느끼고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농어촌 어린이집의 83.3 %, 가정어린이집의 82.5%, 정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의 79.1%가 가장 높게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

〈표 III-1-39〉 시간제보육을 도입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정도 - 월 80시간 이용까지 제한된 보육료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크게 문제됨	조금 문제됨	문제되지 않음	계
전체	152	28.3	46.7	25.0	100.0
지역규모					
대도시	74	27.0	43.2	29.7	100.0
중소도시	54	31.5	46.3	22.2	100.0
농어촌	24	25.0	58.3	16.7	100.0
$\chi^2(df)$		2.710(4)			
설립유형					
국공립	61	32.8	34.4	32.8	100.0
민간	51	25.5	52.9	21.6	100.0
가정	40	25.0	57.5	17.5	100.0
$\chi^2(df)$		6.742(4)			
정원					
20명 이하	48	20.8	58.3	20.8	100.0
21~39명 이하	28	32.1	35.7	32.1	100.0
40~79명 이하	55	27.3	47.3	25.5	100.0
80인 이상	21	42.9	33.3	23.8	100.0
$\chi^2(df)$		6.528(6)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전체 57.9%의 어린이집이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문항들과 달리 가정, 소규모의 어린이집이 문제를 느끼는 응답률이 오히려 낮았다. 농어촌 어린이집의 70.8 %, 국공립어린이집의 67.2%, 정원 21-39명 이하의 어린이집의 64.3%가 가장 높게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

〈표 Ⅲ-1-40〉 시간제 보육 도입의 장애물 인식- 일일 9시부터 18시까지의 시간제보육 운영 시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크게 문제됨	조금 문제됨	문제되지 않음	계
전체	152	21.7	36.2	42.1	100.0
지역규모					
대도시	74	29.7	24.3	45.9	100.0
중소도시	54	14.8	42.6	42.6	100.0
농어촌	24	12.5	58.3	29.2	100.0
$\chi^2(df)$		12.272(4)*			
설립유형					
국공립	61	29.5	37.7	32.8	100.0
민간	51	21.6	35.3	43.1	100.0
가정	40	10.0	35.0	55.0	100.0
$\chi^2(df)$		7.152(4)			
정원					
20명 이하	48	12.5	37.5	50.0	100.0
21~39명 이하	28	32.1	32.1	35.7	100.0
40~79명 이하	55	20.0	41.8	38.2	100.0
80인 이상	21	33.3	23.8	42.9	100.0
$\chi^2(df)$		7.367(6)			

보육료에 대해서는 전체 67.1%의 어린이집이 문제를 느끼고 있었고 지역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가정어린이집의 82.5%, 정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의 77.1%가 가장 높게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

〈표 Ⅲ-1-41〉 시간제 보육을 도입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정도 - 3) 시간당 보육료 4천원(정부3천원 + 부모1천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크게 문제됨	조금 문제됨	문제되지 않음	계
전체	152	28.3	38.8	32.9	100.0
지역규모					
대도시	74	27.0	39.2	33.8	100.0
중소도시	54	27.8	40.7	31.5	100.0
농어촌	24	33.3	33.3	33.3	100.0
$\chi^2(df)$		0.555(4)			
설립유형					
국공립	61	18.0	42.6	39.3	100.0
민간	51	31.4	31.4	37.3	100.0

구분	사례수 (명)	크게 문제됨	조금 문제됨	문제되지 않음	계
가정	40	40.0	42.5	17.5	100.0
$\chi^2(df)$		9.422(4)			
정원					
20명 이하	48	33.3	43.8	22.9	100.0
21~39명 이하	28	28.6	39.3	32.1	100.0
40~79명 이하	55	23.6	36.4	40.0	100.0
80인 이상	21	28.6	33.3	38.1	100.0
$\chi^2(df)$		3.879(6)			

보육 전용 공간에 대해서는 전체 82.2%의 어린이집이 문제를 느끼고 있었고 설립유형에는 응답의 큰 차이가 없었지만 농어촌 어린이집의 87.5%, 정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의 87.5%가 가장 높게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간에 대해 장애물이 된다고 느낌 응답자 수가 다른 항목보다 더 높게 측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III-1-42〉 시간제 보육을 도입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정도 - 시간제 보육 전용 공간 기준 요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크게 문제됨	조금 문제됨	문제되지 않음	계
전체	152	50.7	31.6	17.8	100.0
지역규모					
대도시	74	50.0	29.7	20.3	100.0
중소도시	54	48.1	35.2	16.7	100.0
농어촌	24	58.3	29.2	12.5	100.0
$\chi^2(df)$		1.372(4)			
설립유형					
국공립	61	57.4	24.6	18.0	100.0
민간	51	49.0	31.4	19.6	100.0
가정	40	42.5	42.5	15.0	100.0
$\chi^2(df)$		3.823(4)			
정원					
20명 이하	48	43.8	43.8	12.5	100.0
21~39명 이하	28	50.0	25.0	25.0	100.0
40~79명 이하	55	58.2	27.3	14.5	100.0
80인 이상	21	47.6	23.8	28.6	100.0
$\chi^2(df)$		7.743(6)			

시간제 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문제를 느끼는 정도가 낮아 전체 58.6%의 어린이집이 문제를 느끼고 있었고 대도시의 어린이집이 60.8%, 국공립 어린이집이 68.9%, 정원이 21~39명 이하의 어린이집이 64.3%로 문제를 느끼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표 III-1-43〉 시간제 보육을 도입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정도 - 5) 시간제 보육 프로그램의 불충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크게 문제됨	조금 문제됨	문제되지 않음	계
전체	152	17.8	40.8	41.4	100.0
지역규모					
대도시	74	21.6	39.2	39.2	100.0
중소도시	54	13.0	44.4	42.6	100.0
농어촌	24	16.7	37.5	45.8	100.0
$\chi^2(df)$		1.843(4)			
설립유형					
국공립	61	19.7	49.2	31.1	100.0
민간	51	15.7	33.3	51.0	100.0
가정	40	17.5	37.5	45.0	100.0
$\chi^2(df)$		4.906(4)			
정원					
20명 이하	48	16.7	43.8	39.6	100.0
21~39명 이하	28	10.7	53.6	35.7	100.0
40~79명 이하	55	23.6	34.5	41.8	100.0
80인 이상	21	14.3	33.3	52.4	100.0
$\chi^2(df)$		4.933(6)			

교사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시간제 보육 도입에 장애물로 느끼는 어린이집이 많았는데 전체의 77.6%가 이를 문제로 여기고 있었으며 농어촌일수록 가정어린이집이나 정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어린이집일수록 더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82.5%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어 인건비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44〉 시간제 보육을 도입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정도 - 6)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크게 문제됨	조금 문제됨	문제되지 않음	계
전체	152	39.5	38.2	22.4	100.0
지역규모					
대도시	74	43.2	37.8	18.9	100.0
중소도시	54	37.0	37.0	25.9	100.0
농어촌	24	33.3	41.7	25.0	100.0
$\chi^2(df)$		1.448(4)			
설립유형					
국공립	61	37.7	34.4	27.9	100.0
민간	51	49.0	31.4	19.6	100.0
가정	40	30.0	52.5	17.5	100.0
$\chi^2(df)$		6.552(4)			
정원					
20명 이하	48	27.1	56.3	16.7	100.0
21~39명 이하	28	46.4	32.1	21.4	100.0
40~79명 이하	55	43.6	29.1	27.3	100.0
80인 이상	21	47.6	28.6	23.8	100.0
$\chi^2(df)$		10.198(6)			

담임 교사의 경력과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문제를 느끼는 정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60.5%의 어린이집이 장애물을 느낀다 응답하였다. 해당 항목에 관해서는 대도시, 민간 어린이집, 정원 21~39명 이하의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정원이 21~39명 이하의 어린이집의 75%가 해당 항목에서 가장 높은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

〈표 III-1-45〉 시간제 보육을 도입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정도 - 7) 시간제 보육 담임 교사 경력 기준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크게 문제됨	조금 문제됨	문제되지 않음	계
전체	152	21.1	39.5	39.5	100.0
지역규모					
대도시	74	25.7	39.2	35.1	100.0
중소도시	54	18.5	40.7	40.7	100.0
농어촌	24	12.5	37.5	50.0	100.0
$\chi^2(df)$		2.846(4)			

구분	사례수 (명)	크게 문제됨	조금 문제됨	문제되지 않음	계
설립유형					
국공립	61	14.8	45.9	39.3	100.0
민간	51	31.4	39.2	29.4	100.0
가정	40	17.5	30.0	52.5	100.0
$\chi^2(df)$		8.546(4)			
정원					
20명 이하	48	16.7	33.3	50.0	100.0
21~39명 이하	28	21.4	53.6	25.0	100.0
40~79명 이하	55	27.3	38.2	34.5	100.0
80인 이상	21	14.3	38.1	47.6	100.0
$\chi^2(df)$		7.334(6)			

운영비 지원금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71.7% 어린이집이 장애물로 느끼고 있었고 지역규모나 설립 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않았다. 다만 정원이 80명 이상인 대규모 어린이집의 경우는 61.9%의 어린이집만이 장애물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46〉 시간제 보육을 도입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정도 - 8) 시간제 운영비 지원금 수준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크게 문제됨	조금 문제됨	문제되지 않음	계
전체	152	28.9	42.8	28.3	100.0
지역규모					
대도시	74	32.4	40.5	27.0	100.0
중소도시	54	25.9	40.7	33.3	100.0
농어촌	24	25.0	54.2	20.8	100.0
$\chi^2(df)$		2.476(4)			
설립유형					
국공립	61	29.5	37.7	32.8	100.0
민간	51	33.3	41.2	25.5	100.0
가정	40	22.5	52.5	25.0	100.0
$\chi^2(df)$		2.932(4)			
정원					
20명 이하	48	22.9	50.0	27.1	100.0
21~39명 이하	28	32.1	46.4	21.4	100.0
40~79명 이하	55	34.5	36.4	29.1	100.0

구분	사례수 (명)	크게 문제됨	조금 문제됨	문제되지 않음	계
80인 이상	21	23.8	38.1	38.1	100.0
$\chi^2(df)$		4.015(6)			

교사대 아동비율은 앞서 말했듯이 많은 어린이집에서 가장 낮게 장애물 정도를 느끼고 있다고 53.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응답률은 지역규모에 대해서는 큰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의 62.7%, 정원 21~39명 이하의 어린이집의 67.9%가 가장 높게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다.

〈표 III-1-47〉 시간제 보육을 도입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정도 - 9) 교사 대 영유아비율 1:3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크게 문제됨	조금 문제됨	문제되지 않음	계
전체	152	22.4	30.9	46.7	100.0
지역규모					
대도시	74	24.3	29.7	45.9	100.0
중소도시	54	20.4	29.6	50.0	100.0
농어촌	24	20.8	37.5	41.7	100.0
$\chi^2(df)$		0.912(4)			
설립유형					
국공립	61	11.5	31.1	57.4	100.0
민간	51	39.2	23.5	37.3	100.0
가정	40	17.5	40.0	42.5	100.0
$\chi^2(df)$		14.713(4)**			
정원					
20명 이하	48	14.6	41.7	43.8	100.0
21~39명 이하	28	39.3	28.6	32.1	100.0
40~79명 이하	55	23.6	20.0	56.4	100.0
80인 이상	21	14.3	38.1	47.6	100.0
$\chi^2(df)$		12.312(6)			

현재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는 시간제보육 운영시간에 대해서 운영시간에 가장 문제를 느끼고 있던 57.9%의 어린이집 중 종료시간을 5시로 당기거나 시작시간을 10시로 늦추자는 의견이 각각 59.1%, 40.9%로 가장 높았고 특별히 정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각각 70.8%, 58.3%의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표 Ⅲ-1-48〉 현재 시간제 보육 운영 시간 기준의 개선 방향(복수응답)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종료시간을 5시로 당김	시작시간을 10시로 늦춤	시작시간을 9시 이전 으로 당김	종료시간을 6시 이후 로 늦춤	기타
전체	88	59.1	40.9	17.0	15.9	8.0
지역규모						
대도시	40	57.5	42.5	17.5	12.5	10.0
중소도시	31	64.5	35.5	22.6	16.1	3.2
농어촌	17	52.9	47.1	5.9	23.5	11.8
설립유형						
국공립	41	56.1	43.9	14.6	19.5	9.8
민간	29	58.6	31.0	24.1	13.8	6.9
가정	18	66.7	50.0	11.1	11.1	5.6
정원						
20명 이하	24	70.8	58.3	8.3	8.3	8.3
21~39명 이하	18	55.6	33.3	11.1	11.1	16.7
40~79명 이하	34	55.9	38.2	23.5	20.6	0.0
80인 이상	12	50.0	25.0	25.0	25.0	16.7

가장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항목인 보육실 공간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소수의 시간제 아동을 연령별로 정규 영아 또는 유아반 공간 일부를 사용해서 보육할 수 있도록 했을 시 문제를 느낀다고 응답한 어린이집 들 중 51.2%의 어린이집이 운영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도시, 민간이나 가정, 정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의사가 가장 높았다. 특히 설립유형에 따라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의사가 각각 61%, 58.8%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의사가 38%에 그친 것에 반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Ⅲ-1-49〉 시간제 보육 전용 공간 기준 요건 완화 시, 시간제 보육을 운영할 의사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있음	없음	계
전체	125	51.2	48.8	100.0
지역규모				
대도시	59	55.9	44.1	100.0
중소도시	45	46.7	53.3	100.0
농어촌	21	47.6	52.4	100.0
$\chi^2(df)$		1.007(2)		

구분	사례수 (명)	있음	없음	계
설립유형				
국공립	50	38.0	62.0	100.0
민간	41	61.0	39.0	100.0
가정	34	58.8	41.2	100.0
$\chi^2(df)$		5.846(2)		
정원				
20명 이하	42	57.1	42.9	100.0
21~39명 이하	21	42.9	57.1	100.0
40~79명 이하	47	48.9	51.1	100.0
80인 이상	15	53.3	46.7	100.0
$\chi^2(df)$		1.302(3)		

교사대 영아 비율에 관해서는 현재 1:3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1:2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3.1%를 차지하였으나 뒤따라서 1:5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30.9%의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해당 항목에 관해서는 지역규모나 어린이집 유형, 정원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진 않았다.

〈표 III-1-50〉 현재 시간제 보육 기준인 1:3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시, 적정 수준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1:2	1:4	1:5	기타	계
전체	81	53.1	4.9	30.9	11.1	100.0
지역규모						
대도시	40	55.0	2.5	32.5	10.0	100.0
중소도시	27	51.9	3.7	37.0	7.4	100.0
농어촌	14	50.0	14.3	14.3	21.4	100.0
$\chi^2(df)$		6.436(6)				
설립유형						
국공립	26	65.4	7.7	19.2	7.7	100.0
민간	32	40.6	0.0	43.8	15.6	100.0
가정	23	56.5	8.7	26.1	8.7	100.0
$\chi^2(df)$		8.378(6)				
정원						
20명 이하	27	59.3	7.4	25.9	7.4	100.0
21~39명 이하	19	52.6	0.0	31.6	15.8	100.0
40~79명 이하	24	41.7	8.3	37.5	12.5	100.0
80인 이상	11	63.6	0.0	27.3	9.1	100.0
$\chi^2(df)$		4.784(9)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자 할 때 제안한 5가지 항목 중 점심시간의 이용 제한이나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항목에 대해 53.1%가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1-51참조〉).

〈표 III-1-51〉 시간제 보육의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생각

(단위: %)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수(계)
1) 기존 영아반 보육실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독립된 교실이 아니더라도, 일반 영아와 함께 시간제 보육을 운영할 수 있게 함	29.3	28.9	13.3	28.5	256(100.0)
2) 6시 이후 야간 시간제 돌봄을 제공함	16.0	29.3	15.2	39.5	256(100.0)
3) 점심시간(12:00-13:00)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추가비용을 부과함	53.1	26.2	8.6	12.1	256(100.0)
4) 현재 1시간 단위인 이용 예약을 2시간 단위로 묶어서 하도록 함	44.5	31.3	12.5	11.7	256(100.0)
5) 시설이 원하는 경우 일반 보육 없이 시간제 보육만 전담으로 할 수 있게 함	21.5	34.0	24.6	19.9	256(100.0)

또한 2시간 단위로 예약의 단위를 수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44.5%가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6시 이후의 야간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9.5%의 가장 높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표 III-1-51〉참조).

각 항목중 첫 번째로 일반 영아와 함께 시간제보육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29.3%, 찬성의 견이 28.9% 그리고 매우 반대하는 의견도 28.5%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고 지역규모나 설립유형, 정원, 운영여부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52〉 시간제 보육의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생각 - 1) 기존 영아반 보육실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독립된 교실이 아니더라도, 일반 영아와 함께 시간제 보육을 운영할 수 있게 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계)
전체	256	29.3	28.9	13.3	28.5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26	31.7	23.8	16.7	27.8	100.0
중소도시	100	27.0	30.0	11.0	32.0	100.0
농어촌	30	26.7	46.7	6.7	20.0	100.0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계)
$\chi^2(df)$		8.636(6)				
설립유형						
국공립	107	20.6	17.8	14.0	47.7	100.0
민간	83	36.1	32.5	12.0	19.3	100.0
가정	66	34.8	42.4	13.6	9.1	100.0
$\chi^2(df)$		39.081(6)***				
정원						
20명 이하	88	31.8	35.2	12.5	20.5	100.0
21~39명 이하	39	33.3	33.3	10.3	23.1	100.0
40~79명 이하	79	25.3	25.3	11.4	38.0	100.0
80인 이상	50	28.0	20.0	20.0	32.0	100.0
$\chi^2(df)$		11.391(9)				
설립유형						
운영	104	15.4	26.9	12.5	45.2	100.0
미운영	152	16.4	30.9	17.1	35.5	100.0
$\chi^2(df)$		2.702(3)				

6시 이후 야간 시간제 돌봄 제공에 대해서는 매우 반대하는 의견이 39.5%로 가장 높았으나 조금 찬성한다는 의견도 29.3%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중소도시에 위치하는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대응답을 나타내고 있었고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정원 80인 이상의 대규모 어린이집에서는 각각 51.4%, 52%로 높은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표 III-1-53〉 시간제 보육의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생각 - 2) 6시 이후 야간 시간제 돌봄을 제공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계)
전체	256	16.0	29.3	15.2	39.5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26	17.5	22.2	12.7	47.6	100.0
중소도시	100	15.0	39.0	19.0	27.0	100.0
농어촌	30	13.3	26.7	13.3	46.7	100.0
$\chi^2(df)$						
설립유형						
국공립	107	15.9	20.6	12.1	51.4	100.0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계)
민간	83	19.3	25.3	16.9	38.6	100.0
가정	66	12.1	48.5	18.2	21.2	100.0
$\chi^2(df)$		23.357(6)***				
정원						
20명 이하	88	13.6	40.9	17.0	28.4	100.0
21~39명 이하	39	25.6	23.1	15.4	35.9	100.0
40~79명 이하	79	15.2	20.3	19.0	45.6	100.0
80인 이상	50	14.0	28.0	6.0	52.0	100.0
$\chi^2(df)$		18.836(9)*				
설립유형						
운영	104	15.4	26.9	12.5	45.2	100.0
미운영	152	16.4	30.9	17.1	35.5	100.0
$\chi^2(df)$		2.702(3)				

점심시간에 대한 이용 제한 혹은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하는 어린이집이 전체의 53.1 %, 조금 찬성하는 어린이집이 뒤이어 26.2%를 차지하였고 지역규모나 설립유형, 정원 등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않고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 해당 항목에 대해 모든 어린이집들의 수요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표 Ⅲ-1-54〉 시간제 보육의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생각 - 3) 점심시간 (12:00~13:00)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추가비용을 부과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계)
전체	256	53.1	26.2	8.6	12.1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26	57.1	20.6	11.1	11.1	100.0
중소도시	100	49.0	32.0	7.0	12.0	100.0
농어촌	30	50.0	30.0	3.3	16.7	100.0
$\chi^2(df)$		6.510(6)				
설립유형						
국공립	107	57.9	21.5	4.7	15.9	100.0
민간	83	47.0	27.7	13.3	12.0	100.0
가정	66	53.0	31.8	9.1	6.1	100.0
$\chi^2(df)$		10.115(6)				
정원						
20명 이하	88	53.4	28.4	8.0	10.2	100.0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계)
21~39명 이하	39	41.0	23.1	15.4	20.5	100.0
40~79명 이하	79	63.3	24.1	6.3	6.3	100.0
80인 이상	50	46.0	28.0	8.0	18.0	100.0
$\chi^2(df)$		12.372(9)				
설립유형						
운영	104	54.8	21.2	9.6	14.4	100.0
미운영	152	52.0	29.6	7.9	10.5	100.0
$\chi^2(df)$		2.766(3)				

예약 시간 단위를 2시간으로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린이집의 찬성율이 높았는데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44.5%, 조금 찬성한다는 의견이 31.3%로 전체적인 찬성응답의 비율은 점심시간 운영의 이용제한 항목과 비슷한 70%대로 나타났다.

〈표 III-1-55〉 시간제 보육의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생각 - 4) 현재 1시간 단위인 이용 예약을 2시간 단위로 묶어서 하도록 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계)
전체	256	44.5	31.3	12.5	11.7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26	50.0	23.8	15.1	11.1	100.0
중소도시	100	41.0	38.0	11.0	10.0	100.0
농어촌	30	33.3	40.0	6.7	20.0	100.0
$\chi^2(df)$		10.111(6)				
설립유형						
국공립	107	43.0	28.0	12.1	16.8	100.0
민간	83	49.4	25.3	12.0	13.3	100.0
가정	66	40.9	43.9	13.6	1.5	100.0
$\chi^2(df)$		13.888(6)*				
정원						
20명 이하	88	38.6	37.5	13.6	10.2	100.0
21~39명 이하	39	48.7	25.6	12.8	12.8	100.0
40~79명 이하	79	45.6	31.6	10.1	12.7	100.0
80인 이상	50	50.0	24.0	14.0	12.0	100.0
$\chi^2(df)$		4.343(9)				
설립유형						
운영	104	42.3	23.1	17.3	17.3	100.0
미운영	152	46.1	36.8	9.2	7.9	100.0
$\chi^2(df)$		11.846(3)**				

일반 보육 없이 시간제 보육만 전담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만들자는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찬성한다는 의견이 34 %,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21.5% 였으나 조금 반대하는 의견도 24.6%를 차지하고 매우 반대하는 의견도 20%에 조금 못 미치는 응답률을 나타내 해당 항목에 관해서는 어린이집별로 수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농어촌 어린이집 순으로 낮은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시간제보육 전담어린이집을 고려할 때는 해당 어린이집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1-56〉 시간제 보육의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생각 - 5) 어린이집이 원하는 경우 일반 보육 없이 시간제 보육만 전담으로 할 수 있게 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계)
전체	256	21.5	34.0	24.6	19.9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26	26.2	33.3	18.3	22.2	100.0
중소도시	100	17.0	31.0	33.0	19.0	100.0
농어촌	30	16.7	46.7	23.3	13.3	100.0
$\chi^2(df)$		10.236(6)				
설립유형						
국공립	107	20.6	33.6	24.3	21.5	100.0
민간	83	21.7	28.9	24.1	25.3	100.0
가정	66	22.7	40.9	25.8	10.6	100.0
$\chi^2(df)$		5.916(6)				
정원						
20명 이하	88	25.0	40.9	25.0	9.1	100.0
21~39명 이하	39	33.3	12.8	23.1	30.8	100.0
40~79명 이하	79	19.0	30.4	30.4	20.3	100.0
80인 이상	50	10.0	44.0	16.0	30.0	100.0
$\chi^2(df)$		27.170(9)**				
설립유형						
운영	104	22.1	33.7	24.0	20.2	100.0
미운영	152	21.1	34.2	25.0	19.7	100.0
$\chi^2(df)$		0.068(3)				

2.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 보육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주체 입장에서 시간제 보육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간제 보육을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1, 12월에 거쳐 서초구청 시간제 보육 담당자와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면담하였다.

가. 서초구 - 담당 공무원 면담

1) 시간제 보육 신청 절차

연말에 일괄적으로 다음 해에 시간제 보육을 운영할 운영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신청을 받고, 신청받은 명단을 시에 신청하고, 복지부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하게 되며,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고 하였다.

2) 운영 형태

서초구에서는 현재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 형태는 1군데만 운영하고 있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센터가 6군데가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이 적은 편이었다.

가)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운영이 적은 이유

이러한 이유는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을 신청하고 운영하는 곳이 적기 때문인데, 불특정 다수가 올 수 있는 시스템이 원장님들의 운영에 있어서 불안요소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였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시간제 보육 운영 신청을 꺼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어린이집에 왜 없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저도 어물어 확인해 보면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불특정 다수라고 해야 할까요. 어린이집이면은 보육실에 만날 오는 아이들이 오고 이 아이에 대한 파악이 쉽잖아요. 만날 1년 동안 계속 다니고 하니깐. 근데 시간제 보육실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급한 엄마의 아이들이 와 가지고 오니까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조금 공포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불안...

맞아요. 작년엔인가도 그 원장님한테(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 좀 주변 원장님들한테 좋은 것 좀 얘기하시라고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의 시간제 운영 만족도가 높음), 얘기하라고 해서 아마 말씀도 하셨을 거예요. 주변 원장님들한테. 근데 잘 안 먹히는 거 같아요.

나) 서초구형 시간제 보육 2군데 운영 중

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6군데 중 4군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시간제 보육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나머지 2군데는 서초구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치구 구비 100%로 지원되는 서초구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2군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형식과는 차이가 있는 곳인데, 한 군데는 36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한 군데는 건물 구조상 보육에 문제가 없으나 현재의 기준으로서는 미달이 될 수 있는 곳이라, 신청하지 않고 자치구형으로 신청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자치구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두 군데인데 하나는 또 유아반이 있어요. 유아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부형은 유아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아반 수요가 있는 데는 유아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자치구형으로. 한 군데는 지상 반지하가 (건물 구조상으로 기준이 살짝 안 맞아서 복지부형으로 못하는 게), 약간 반지하는 아닌데 그냥 그 층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자치구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유아반도 1:3으로 운영되고 있고, 로비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층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보면 약간 살짝 반절은 지하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애매하다해서 그냥 자치구형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되게 다른 거랑. 놀이학교. 다 똑같거든요. 오히려 더 깔끔하고 공기질도 관리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기준이 조금 애매하니 신청을 안 한 거죠.

2) 홍보

종합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홍보는 주로 종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맘카페를 통한 온라인 홍보나,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어머니 대상으로 오프라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용하지만, 연령 제한이 짧은 편이라, 지속적으로 시간제 이용 아동이 생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에서 홍보는 이제 맘카페 가입이 다 돼 있거든요. 맘카페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

는 아닌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자라고 하면 가입을 시켜 주나 봐요. 계정이 지금 맘카페가 여섯 군데 정도 있는데 거기 다 들어가 있어서 시간제 홍보나 이런 것들 다 하고 있고요. 장난감도서관이랑 같이 있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오프라인으로 홍보물 같은 거만 들어서 직접 주기도 하고 맘카페도 주로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항상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자라고 또 계속 변동이 이사도 가고하면 변동이 있는데 그런 운영비를 지원을 받을 요건이 되려면 그 1대3 계속 시간당 세 명이 다 차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어렵고....

3) 시간제 보육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

먼저 한 반을 운영하는 경우 선생님의 휴게시간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두 반을 운영하더라도 선생님 채용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을 지적하였다. 시간제 보육 교사가 업무적으로 어렵고, 쉬는 시간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두 개 반 운영으로 보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시간제 보육 교사도 두 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시간제 보육 운영에 있어서 교사 채용 어려움과 교사 질관리의 어려움을 걱정하였다.

그렇죠. 선생님 2반 이면은 잠깐이라도 선생님 한 분이 같이 볼 수 있죠. 6명까지 잠깐이라도 볼 수 있는데 한 명이 조금 애매하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게 잠깐만 봐 달라 해서 되는데 센터 같은 경우는...장난감도서관에 계신 분들한테 다 보육자격증은 있으시니까 잠깐 봐 달라 그래서 잠깐 잠깐 이렇게 봐 주시고 도와주시고는 하는데 그렇게 운영은 좋은데 어쨌든 그게 장난감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부담이 되는 거죠...시간제보육 선생님의 그런 처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조금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게 시간제 교사가 지금 한 명 이거든요. 한 반에 한 명 인데 교사가 이제 굉장히 이제 확충은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충은 좋은데 이제 선생님들 화장실을 가거나 잠깐 급하게 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보조교사가 있어야 잠깐 아이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그런 여건 보장 같은 게 조금 안 되면 시간제교사가 어려운 거는 다 보육교사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은 늘려봤지만 선생님 채용이 또 안 되면 그게 조금 질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4) 현재 시간제 보육의 개선할 점

시간제 보육 운영을 신청을 받고 운영하는 주체로서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려는 기관이 많을수록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보육 기관에 적용하는 이용건수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한 군데 하고 있고 매년 말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신청이, 신청하라고 만날 공문이 오는데 항상 안내드려요. 시간제 보육실 운영하시면 운영비도 있고 하니까 운영비도 지원이 되잖아요. 설치 리모델링비도 지원이 되고 하니까 신청하셔라 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많이 신청은 안하시는 편이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보육기관에 적용하는 이용건수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가 많고 홍보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용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 등원을 자유롭게 하는 시간제 보육의 특성에 맞게 정원 유지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이제 항상 그 점검을 매년 나오거든요. 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점검 기준이 ...정원 충족률도 보고 시간제 보육실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율이 1:3으로 하고 있는데 세 명이 다 차냐. 안 차면은 그게 또 감점요인이고 운영비를 깎아요. 운영비가 1년 에, 아니 한 달에 32만 원씩 나오는데 1대 3을 다 채워야 운영비가 다 100% 나가는 기준으로 지금 되어있고 그게 안 차게 되면은 깎거든요. 근데 이제 확충은 좋은데 확충이 되면 당연히 어느 수준까지는 다 100% 티오가 차겠지만 충족률이라든지 너무 많아지면 그런 기준이 못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나. 광명시 - 시장 내 시간제 보육센터 사례

〈표 III-2-1〉 광명시 시간제 보육 운영형태의 변화

분류	분류	제약 및 장점
기존 운영형태	어린이집 내 운영	(제약) 관리 소홀 및 공간제약
현재 운영형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1개소	(장점) 공간이 잘 이루어져 있음 (장점) 주차 가능한 위치로 정기적 이용자 많음
	광명전통시장 내 1개소 (육아종합지원 센터관리)	(장점) 전통시장 내 위치하여 시장 활성화 효과 (제약) 주차장과의 거리가 멀어 이용 어려움
고려중 운영형태	주말 시간제 보육	(장점) 주말에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 대상으로 보육을 하여 시장 활성화 효과 기대 (제약) 교사 활용 어려움 (제약) 이용대상 불분명/광명시 외 부모 이용가능

1) 운영 형태

광명시의 경우에는 2013-2014년 당시 이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였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실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2016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전하면서 센터에 2학급을 신설하였다. 그 후 지속되는 부모님들의 요구로 광명시장 시간제보육실에 2학급이 생겨, 2개 분소 4개 학급 시간제보육실이 운영 중에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정규반 보육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시간제 보육사업이 아이가 없을 때는 홍보도 해야 하고 따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그러한 노력을 들이기가 어려워 잘 운영하기 어려워 어린이집에서의 시간제 보육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2) 사례: 광명시장 보육센터 사례

가) 전통시장 내 시간제 보육을 하게 된 경위

광명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이 아닌 제 3의 장소인 광명전통시장 내에 시간제 보육소를 운영하게 된 유일한 사례로서 어린이집이 아닌 곳에 시간제 보육을 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운영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 아래 분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공간은 지리상의 문제로 추가 설치를 고려하던 중 전통시장 공용 화장실 아래 조합사무실로 사용하던 공간에 공실이 생겨 이를 적극 활용하여, 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아 시간제 보육공간으로 개조하게 되었다. 광명전통시장 내에 골목길 안에 조합사무실 겸 (2층은 화장실) 쓰고 있던 건물을 조합사무실이 이전을 하면서 비게 되어 그 공간을 개조하여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건물은 시에서 관리하던 건물로 이용이 가능하였고, 시장 측에서도 시간제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장을 보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환영하여, 시장 내에 시간제 보육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마케팅적인 측면도 있었죠. 시장에 와서 아이들 맡기고 시장에 올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고 접근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은 상황임.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에 위치하고 있어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고 주차 등이 수월하지 않아 이용 부모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나) 문제점 및 효과성

어린이집이 아닌 공간에 시간제 보육을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큰 장점을 가지고 이를 잘 활용하여, 보다 어머니들의 생활 동선에 가까이에 시간제 보육을 설치하게 된다면 어머니들의 시간제 보육 이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광명전통시장 내의 시간제 보육실은 보육시설로 지어진 건물이 아닌 곳을 활용하다 보니, 주차장이 멀고, 주차장도 시장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져 이러한 점이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는 시간제 보육실을 통해 이용하는 부모가 아이를 맡기고 시장을 이용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이러한 접근성의 문제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또한, 어린이집 설치 조건을 통해 지어진 건물이 아닌 점에서 소방점검 등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저희가 시간제보육이용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는지도 물었는데 보긴 보더라고요. 시장을 가기 위해서 아이를 맡기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맡겼다가 데리고 나오면서 하나씩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표 Ⅲ-2-2〉 광명시장 시간제 보육 운영

분류	내용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간	전통시장 조합사무실 이전 후 빈 공간 이용
접근성	시장 내 위치하여 주차장에서의 거리가 멀고 주차비가 발생함
기대 효과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

[그림 Ⅲ-3-1]에 광명전통시장 내 시간제 보육실의 외부와 내부의 모습을 담았다.

〈그림 Ⅲ-3-1〉 광명전통시장 시간제 보육실 외부와 내부



다) 시간제 보육을 위한 조건

광명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보면서 시간제 보육 시설 유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접근성이 좋은 도로변에 위치하는 점이라 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의 시간제 보육의 경우 1층에 바로 주차를 하고 올라와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이라 이용 부모님이 많은데, 광명시장 시간제 보육실의 경우 주차나 거리에 대한 민원이 크고, 이용률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다는 저조한 편이라 영아를 데리고 다녀야 하는 부모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부모님들께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간제 보육을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 광명시장 시간제 보육실의 경우도 시장이용고객을 통한 홍보도 꾸준히 해오고, 어느 정도의 정원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제 보육실의 홍보 행정등을 맡아줄 역할을 하는 분이 필요한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센터 직원 중 한명이 시간제 보육 관련 업무를 일부 맡아 하고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시간제 보육사업만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2013-2014년에 ‘시간제 보육 관리자’라는 역할이 있어서 인건비를 제공하면서 시간제 보육에 대한 행정처리, 결재, 홍보 등을 도맡아 하였는데, 지금도 보육 외의 다른 업무가 많은 시간제 보육교사의 질 관리를 위해 시간제 관리사의 재운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3) 시간제 보육 확대에 대한 의견

광명시에서는 요구가 높은 시간제 보육 운영을 더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광명전통시장 시간제 보육실의 경우도 그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주말 운영에 대한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고민도 했으나, 운영비 및 시간제 교사의 인건비,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아동을 확보하는 측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지 않지만, 시간제 보육제도의 다양한 방면의 확대를 위해서는 시간제 보육에 대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IV

시간제보육 운영 개선 요구

01 간담회 결과 분석

02 전문가 의견 분석

IV. 시간제보육 운영 개선 요구

1. 간담회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 개선점, 또한 긍정적인 측면 등을 살펴보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가. 시간제보육 운영 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간담회

시간제 보육 운영자 대상 면담은 2020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총 5차례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 센터장을 대상으로 한 개인 및 집단면담 3차례, 민간 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한 집단 면담 2차례를 통하여 총 17명의 원장 및 센터장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원장 개별 면담시 시간제 보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 한 분이 함께 참여하여 주신 의견을 일부 내용에 포함하였다. 시간제 보육 운영 기관장 면담의 운영 대상자 정보를 <표 IV-1-1>에 나타내었다.

<표 IV-1-1> 시간제 보육 운영 기관장 면담 대상자 정보

분류	소속	지역	분류	소속	지역
센터장1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원장6	민간 어린이집	경기도
센터장2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원장7	민간 어린이집	경기도
센터장3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원장8	가정 어린이집	경기도
센터장4	육아종합지원센터	강원도	원장9	민간 어린이집	서울
원장1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	원장10	민간 어린이집	서울
원장2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	원장11	가정 어린이집	부산
원장3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	원장12	가정 어린이집	서울
원장4	국공립 어린이집	인천	원장13	민간 어린이집	충남
원장5	국공립 어린이집	울산	시간제교사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

1) 시간제 보육을 위한 물리적 공간 마련

가) 시간제 보육에 필수적인 물리적 공간 마련 방법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간제 보육 규정에 따르면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시간제 보육 운영을 위한 별도의 시간제 보육 운영을 위한 보육실 마련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시간제 보육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도 공간 마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기관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먼저, 시간제 보육 운영 초기 시점에 권유에 의해 시작하게 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여유 공간이 없어 도서관 및 교사실 등의 기존 이용하고 있던 공간을 이용해서 시간제 보육 공간을 만든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센터장 3, 센터장 4)는 센터에 시간제 보육을 위한 공간마련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편이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었어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을 할 것이냐 라고 해서 저희 원을 지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4층 건물이거든요. 4층을 다 쓰는데 4층에 아이들의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도서관을 없애고 거기에 시간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평구에서 처음으로 2014년 10부터 저희가 했거든요. [원장4, 국공립]

2007년에 오픈한 시설이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 교재실을 헐어가지고 제가 창문도 없는 창고로 들어왔거든요. 창고로 들어오고 서너평 남짓 밖에 안 되는 공간인데 저희들이 사무실이 현관 가까운데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시간제반에는 거의 울음 소리가 끊이지 않잖아요. 영아들이고 매번 오는 횟수가 정기적(규칙적)이지 않다보니까 매번 우는소리가 1층에 진동을 해요. 그런 (시간제 보육 교실의 위치를 계획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환경적인 면이 많이 아쉬워요.[원장 5, 국공립]

하지만,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현재 줄어드는 원아수로 남는 공간이 생겨 시간제 보육을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저희는 영아전담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영아만을 위주로 하니까 아이들이 점점 줄게 됐어요. 그래서 교실이 남아서 그걸 구에 신청을 해가지고 다행스럽게 두 개반을 할 수 있는 평수가 돼서 처음에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원장12, 가정]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시간제 보육을 오픈했을 때 아무래도 그때 당시부터 원아감소가 전국적으로 다 있었고, 문 닫는 원도 많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체육실도 따로 쓰는 것도 딱 놓고 보니 그런 시간제 보육실은 우리정도는 괜찮겠다. 해서 처음에 한 반 했는데 교실이 너무 크다보니 두 개반을 나중에 또 추천을 받아서 [원장 13, 민간]

저희는 가정 어린이집인데...(시간제로) 한 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원

생을 모으기가 갈수록 엄마들이 출산율도 낮아지고 이러면서 수명을 다 채우기가 조금 버거운면이 있어서 사실은 시간제를 생각을 했었거든요.[원장 11, 가정]

나) 신설하는 어린이집에 시간제를 마련하는 방법

많은 어린이집의 경우에 시간제 공간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서 시간제 보육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간을 마련하여 시간제 보육실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나 설계가 많은 어머니들이 자주 드나드는 시간제 보육의 특성에 맞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시간제 보육에 적절한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설하는 어린이집에 시간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자을 때에 기존에 있는 원아들과 분리되어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시간제 보육 특성에 맞게 설계를 하여 짓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제안을 하였다.

그런데 원하는 어린이집들도 없고 이유를 물어보면 일단 공간이 너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공간이 없어요. 어린이집들에 여유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도 그 여유 공간이 있으면 뭐 도서관이든 어디든 만들면 되는데 그런 공간 자체가 없으니까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신규 어린이집에 설계할 때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시간제로 빼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4, 국공립]

2) 시간제 이용과 정기적 이용의 혼합

가) 정기적 이용 영아가 늘고 있는 추세

시간제 보육이 시작되던 초기의 경우 어머니가 긴급한 일이 있을 때 맡기는 긴급 돌봄의 형태로 오는 아이가 많았으나, 많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점차 정기적으로 2-3시간 이상 이용하는 영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응급하게 이용하는 어머니들이 많았으나 현재는 어린이집을 종일반 보내기가 어려워서 이용해볼까 싶어서 오셔서 5,6월에는 단기간 이용사례가 많고 하반기가 되면 80시간 이상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진다. [원장 7, 민간]

하반기에는 그렇게 고정으로 오는 아동이 다 예약을 해버린다. [원장 8, 가정]

경제적 부담이 적어 종일 이용하는 부모도 많다. [원장 9, 민간]

그러한 경향은 교사의 입장에서도 이미 파악이 된 아이들을 돌보게 되고, 아이들도 원에 적응이 되어 익숙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시간제 보육도 정규보육처럼 오는 아이들이 자주오는 경우가 많아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시간 배분에 어느정도 시스템이 마련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원장 2, 국공립]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애들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분들은 미리 예약을 언제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약을 하시면 저한테 카톡이 계속 오거든요. ...월수금 오는 애가 있으면 고정적으로 좀 오는 경우가 있고 10시부터 2시까지만 이용하는 아이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3월 지나고 나면 거의 안정적으로 시간제반도 운영이 돼요. [원장1, 국공립]

하지만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예약이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예약을 다 차지해 버리는 경우, 그 어린이집 또는 센터를 이용해 긴급하게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고 싶은 부모님이 있을 경우 이용이 어렵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나) 긴급보육 예약의 어려움

정기적인 이용이 많아지면서 월초가 되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어머니들이 한달치를 미리 다 예약을 해 두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긴급보육을 위한 자리를 비워두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시간제 보육의 초기 취지처럼 정말 급한 경우의 긴급보육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간제 보육 예약)그거 거의 열두시(월초 첫날 예약이 가능한 시간) 시작을 해 갖고 막 하세요. [원장 1, 국공립]

그런데 예약을 한달단위로 해서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못하는 아동도 있다.[원장 7, 민간]

그 야말로 시간제는 긴급을 요구할 때 아이를 시간제 보육에 넣을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꼭 차 있으면 거기 못 들어가는데...(예를 들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119에 실려가는 경우다. 그럴 때는 예외로 한명정도는 받아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니까 그런 정확한 지시가 있어야되겠죠? ... 정말 필요 할 때는 긴급할 때 그럴 때는 활용을 할 수 있게 조금 넓혀주시면 엄마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원장 12, 가정]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한 자리 정도를 긴급보육을 비워두는 방안도 있었으나, 다른 아이들이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 비워두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하였다.

한편, 이러한 상황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시간제 보육을 두 반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반을 운영하게 되면 수용인원에서 여유가 생겨 급하게 예약을 하는 경우에도 예약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섯 자리는 미리 예약하는 아이들로 채우고 한 자리 정도는 급한 경우를 위해 비워두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갑자기 긴급보육이 필요한 엄마가 세 명이 다 왔으면 못 들어와요. 두 반인 게 선생님들도 원원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좋은 점이 많듯이 시간제도 2반은 돼야 된다. 그래야지 한 두 명 자리가 있어서 정말 급작스럽게 이용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선생님이 이렇게 두 명보고 선생님이 한 세 명 정도 보면 좋겠다. 한 명은 늘 비어있는 자리, 긴급보육 때문에 비어있게 해 놓고. 그러면 아주 좋을 거 같아요. [원장 1, 국공립]

다) 처음 맡겨지는 영아의 적응

반면, 처음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아이가 올 경우 그 아이에게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여, 기존에 있던 아이들에게 소홀하거나 정서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처음 오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1시간만 오게 하거나, 1명만 신청을 받게 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가 있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처음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면서 5-6시간씩 신청을 하는 등의 영아 발달과 상황에 맞지 않게 보육을 신청하는 부모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 미리 부모님께 설명을 하고 보육이 필요한 날 일주일부터 1시간씩 맡기면서 적응을 미리 시키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도 했다.

2반이 돼야만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긴급하게 이용을 해서 오늘 뭐 적응기간 못 거치고 나는 3시간 좀 이용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걸 수용을 해 주고 싶은데 애가 막 너무 막 뒤집어지고 울고 하는 애들이 또 있잖아요. 엄마하고 처음 떨어지는. 전혀 안 왔던 곳을 갑자기 2시간을 떨어뜨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적응이 필요하고) 여태껏은 부모님들이 그 적응 단계를 되게 잘 지켜주고 계세요. [원장 1, 국공립]

저희도 처음 이용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이용하겠다고 SMS를 받고 나면 담당교사가 부모님하고 연락을 하거든요. 처음 이용할 땐 저희가 적응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한 시간 정

도부터 시작 할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 부모님이 함께 적응하는 동안 있어 주길 원하면 그냥 저희가 그거를 인정해드리거든요. [센터장 4]

부모님이 처음에 오셔서 상담하면서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옆에서 30~40분 놓고 가시거든요. 아이들 하고요. 저는 부모님 관찰도 있고 아동관찰을 위해서 놀다가세요. 라고 저는 그래요. 한 시간도 같이 계시다가 처음에 적응기간에는 그렇게 해서 어머님들도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과 노는구나. 라는 걸 보시고 가세요. 저희는요. [원장 13, 가정]

또한 갑작스럽게 맡겨지는 긴급보육의 경우 사전 적응이 없는 경우에는 처음 오는 영아가 3명 올 경우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 경우 아동 대 교사 비율이 1:3으로 유지될 경우 실제 보육이 어려우며, 처음 오는 영아가 오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규정화된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미리 문의를 주었을 때 논의가 된 경우 가능한 것이어서, 처음 오는 아이들 적응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처음 오는 아이를 당일예약을 못하도록 하거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지 등의 신입원아에 대한 적응관련 매뉴얼이 필요하다.[원장 6/원장 7, 민간]

3) 이용 연령으로 인한 어려움

가) 혼합연령 보육으로 인한 어려움

현재 시간제 보육은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영아가 한 반에 1:3의 교사 대 아동 비율로 시간제 보육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에서 보육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6개월과 36개월 사이에는 큰 발달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활동이 불가능하며, 예를 들어 6개월 아이와 30개월 이상의 아이가 함께 보육을 받을 때에는 시간제 교사가 6개월 아이를 안고 30개월 아이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으로 보육이 이루어져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영아반을 해서 어려운 점은 없는데 아무래도 월령차가 6개월에서 36개월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만약에 만1세 연령의 친구가 왔는데 6개월 친구가 오면, 그 상황이 좀 어려움이 아무래도 [시간제 선생님]

그래서 저는 오리엔테이션 때 어머님들께 그 상황을 정확하게 미리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어머님 애기는 좀 커서 왔는데 다른 애, 좀 어린 애가 와서 또 적응기간에 새로운 어머님이 들어오시고 그 상황들이 좀 어수선하게 자주 학기 초에 진행이 되거든요. 어머님께 어머님 애기는 잘 적응을 했지만 많이 우는 애가 올 수도 있고 [시간제 선생님]

연령차이가 너무 높아요. 시간제 보육에 1인교사가 담당하는 연령차가 개월수가 너무 차이가 있다보니깐 아무래도 선생님의 부담감이 가장 컸었던 이유가 그거여서 [원장13, 민간]

‘원장 2, 국공립’는 시간제 보육의 연령이 0-36개월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 6개월 아이 한 명, 11개월 아이 두 명으로 1:3 비율로 보육을 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여, 다른 교사의 추가적 투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영아 월령에 따라 보육 비율을 조정할 필요도 있어 보였다.

나) 만 36개월이 되면 시간제 보육이 중단됨

시간제 보육의 이용연령이 6개월부터 만 36개월까지만 가능하게 된 규정으로 인해 예를 들어 10월에 36개월이 된 영아는 이용하고 있던 기관의 시간제 보육기관에 자리가 있음에도 시간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다음 해 3월 새로운 학기가 시작할 때까지는 다른 기관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럼 이제 쌍둥이라 하나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자리가 이제 있어서, 애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시간제보육을 이용을 했는데 36개월로 끝나니까 애는 중간에 집에 있어야 되는 애가 돼 버리고 이게 안 돼서 이걸 학기를 같이 맞춰서 이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조금 필요 하겠다고 봐요. [원장 1, 국공립]

다) 대안으로의 2개 반 운영과 장점

위에서 언급한 시간제 운영에서 처음 온 영아의 초기 적응, 시간제 교사의 휴게 시간 미보장, 업무 과다의 다양한 문제가 있으나, 2개 반을 운영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하였다. 2개 반을 운영할 경우 가질 수 있는 장점은 ①처음 온 영아가 있을 경우 그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고, ②교사가 화장실을 가거나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고, ③상황에 따라서는 긴급보육 영아를 위해 한 자리 정도를 비워둘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하였다.

시간제는 정말 그 장소만 허락이 된다면 두 반으로 운영을 해주시는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잘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원장 12, 가정]

시범사업을 하면서 한 개 반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애로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이가 두 명일 경우에는 처음에 초기적응 어차피 시간대가 다 초기적응이잖아요. 그러다보니 한 아이가 올면 선생님이 나머지 두 세 아이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그 이후에 2개 반 증

설을 하고 나니까 한 선생님이 화장실을 간다거나 잠깐 물을 가지러 간다거나 해도 교사가 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원장5, 국공립]

시간제 보육반은 두 개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두 개반을 운영의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일단 교사 둘이 서로 지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공간도 분리가 가능하고 보육의 질도 향상이 되기 때문에 두 개반 이상을 운영하는 것이 공간만 허락이 된다면 좋은데 [센터장 3]

제가 두 개를 운영하게 된 이유는 선생님 한 분이 시작했을 때 너무 힘든 이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 하더라고요. 화장실도 못가겠다. 밥도 못 먹겠다. 원에 제가 자리를 못 비워요. [원장 13, 민간]

4) 교사: 시간제 교사의 특수성

가) 교사 휴게시간 확보 및 보조교사 필요

시간제 보육의 경우 아이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꾸준히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약이 꽉 차있는 날은 업무강도가 훨씬 강해진다고 하여(센터장 1), 그런 경우 점심시간이 따로 없는 시간제 보육의 특성상 선생님들은 점심시간 및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두 반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두 반의 선생님이 번갈아 점심을 먹기도 하고, 보조교사가 없는 센터에 있는 경우 센터 내 다른 직원이 점심시간만큼만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였다.

저희는 현재 보조교사를 채용을 안 한 상황이어서 센터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사시간 때에 센터직원이 아이를 보육하고 선생님이 한 시간 식사하고 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4]

시간제 보육 이용자가 많아서 보육교사 한 명이 점심시간도 없이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 겹치는 경우도 있고 새로 적응하기 위해서 교사가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경우에 그 법적으로 보장된 한 시간의 휴게 시간을 제공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서 저희가 초기 한 달은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센터에 직원들이 계속 사업에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비정기적으로 반에 들어가서 지원을 하는게 아이들한테도 불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교육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센터장 3]

또한, 이러한 상황에 어머니들이 올 때마다 결재업무가 생겨 보조교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간제 보육 보조교사의 경우 경력인정이 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보조교사를 채용할 때 누리보조교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경력이 인정되고, 수당 등이 맞춰져야 한다고(센터장1)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가 한 반을 운영을 해보니까 보조교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교사가 휴가를 못 갔어요. 그 선생님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누군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인력이 사실 없다보니까 그 시간에 선생님들 자기 맡은 일이 있고 한테 저 밖에 없는거예요. 일년내내... [원장 5, 국공립]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찌 됐든 일반 교사들은 휴게 시간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간제도 휴게 시간을 가져야되는데 사실상 그 휴게 시간을 보조교사가 들어와주는게 맞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없을 때는 서로 선생님이 두 반일 때는 서로 양보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또 때로는 휴게 시간에 애들이 혼자서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아이들이 와 있을 때는 그것이 이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조교사의 필요성 이런거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더더군다나 한 개반을 이용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보조교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12, 가정]

이러한 상황으로 보조교사 다수의 반이 운영되는 곳에서는 2016년까지 있었던 ‘시간제보육 관리자’ 제도를 부활시켜, 시간제 보육을 위한 행정, 결재 등을 맡고 필요한 경우에 보조교사로도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센터장 1, 센터장 3)

나) 정규반 교사와 시간제 교사에 차이 존재

시간제 보육반의 교사는 시간제 반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어린이집이나 육아지원센터의 다른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제 보육반의 교사와 어린이집의 교사들 사이에 업무에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시간제 보육반의 업무량에 따라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고 하였다.

일반 선생님들이 조금 불만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20명도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있는데 저기는 두 명 세 명 오는데 보조교사까지 지원을 해 주고 휴게시간까지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점심시간을 지원을 해 주고 어 그럼 우리는 뭔가 하는 이런 불평이 나오는 거죠. 일반교사와 시간제교사와의 이제 약간의 그 조금 신경전이랄까 이런 부분은 당직 문제가 또 있어요. 어린이집 교사는 아침 일곱 시 반부터 저녁 일곱 시 반까지 문 열려 있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일곱 시 반부터 아홉시 반까지 아침 당직이 돌아오거든요. [원장 1, 국공립]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정규반 교사의 업무와 시간제 교사의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업무의 차이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었고, 어떤 경우는 정규 교사와 시간제 교사를 함께 서로 도우면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저는 시간제 교사들 교육 하실 때도 완전히 분류해서 시간제만을 위해서 교사들이 운영이 돼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모든 거에서 자기네들은 시간제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업무를 안도와주니까 시간제 자기네들 것 하기도 바쁘니까 이쪽을 안도와주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분리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시간제는 시간제대로 운영을 하고 정규반은 정규반대로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원장 12, 가정]

민간 저는 선생님들이 분리되지 않게 저희 어린이집 교사도 소속되어있는 시간제보육의 교사로 있기 때문에 교사는 분류되지 않는 그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도 저도 똑같은 교육을 받고 왔지만 행사가 시간제보육이 중심 되었을 때도 또 일반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큰 행사고 홍보를 하고, 실외, 실내 행사를 할 때 부모가 올 때 그러면 그 도움을 받을 땐 두 분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체계로 할 수 유도리있게 하는 운영 방식은 필요한 것 같고요. [원장 13, 가정]

다) 시간제 교사 채용이 어려움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다 보면 3~5월은 아동이 없어서 홍보나 인건비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외의 달에는 업무 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센터장 1, 원장 7, 민간), 이러한 상황이 높은 교사의 질을 확보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저 같은 경우는 시간제반 교사를 모집을 하면 시간제교사가 전혀 지원을 안해요. 왜냐하면 이런 이런 여건을 얘기를 근무 요건이라든지 인건비를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 70% 아이가 미충족 될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된다. 이렇게 되면 3~5월에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게 아이가 없게 되는 시기인데 인건비가 안 되면 자기는 출근을 하고 인건비를 못 받게 되니까....[원장 5, 국공립]

시간제 보육 교사의 경우 9-6시까지 대면보육을 해야하고, 휴게시간 확보가 어려운 등 여러 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반에 대한 소속감 등을 느끼기가 어려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제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시간제 보육 교사에 대한 부모의 신뢰가 부족하거나 시간을 지키지 않는 부모로 인한 문제 등 선생님들이 시간제 보육을 기피할 만한 요소들이 많아,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4시30분까지 대면교육으로 바뀌었잖아요. 일반 보육교사가. 어린이집하고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근데 시간제반은 6시까지 아이를 대면 교육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일

반보육교사랑 시간제랑 근무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더욱이 시간제반을 맡는 것을 기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 5, 국공립]

근데 이제 시간제는 선생님들이 또 선호는 안 해요. 시간제교사 하라 그러면 나가라는 얘기 나 또 이렇게 보는, 받아들이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내 반에 대한 소속이 없다. 매일 새로운 애들이 들고 나고 엄마들이 내 학부모다 라는 개념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잠깐 이용하는 거니까 내가 교사라기보다는 애 봐주는 사람인가... [원장 1, 국공립]

5) 운영 관련 1: 시간제 보육 운영상의 어려움

가) 교사 인건비 보장이 안 되는 측면

시간제 보육반의 특성상 수요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많이 올 때는 많은 업무가 많고, 아이가 없을 때는 업무가 없지만, 보육 아동 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인건비를 100%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3~5월에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입소를 시작하여 시간제 보육이용 아동이 많지 않아, 시간제 보육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기준에 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다 나가면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또 새 아이를 받고 해야 하는 시기라서 3~5월에는 정말 아이들이 똑 끊기는데 인건비가 또 지원이 안 되잖아요. 요건충족이 안되면.. 그래서 그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에요. [원장 5, 국공립]

3~4월까지 아이들 없으니까 홍보를 주로 많이 다니고 그런 쪽에 집중을 하고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때는 나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주민자치센터나 이런데 갖다 놓는 정도만 하고, 그 후는 아이들이 많아져서 이제 보육에 치중하게 되는거죠. [원장 4]

3~5월에는 모집기준을 줄이던지 대책 마련 필요하고 현재처럼 이용 건수, 이용 아동수, 이용시간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2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지원해주는 등의 지원조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원장 3, 국공립).

3~5월 인건비를 50%라도 지원을.. 일단 선생님이 출근은 하잖아요. 그러면 50%라도 교통비라도 맞춰주시면 나머지는 저희 원에서 어떻게 운영비를 충당비를 해서 자부담을 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사 인건비가 해결이 안 되면 운영비가 많고 적고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교사의 어떤 기본 인건비 보장 되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장 5, 국공립]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려운 점이라 말할 수 있는 거는 두 반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70%에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우리가 70%밖에 지원을 못 하잖아

요. 있는 교사들한테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상당히 교사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또 원장 입장, 운영자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스트레스예요...때로는 훨씬 더 많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적게도 오는데 한건 만이라도 도달을 못하면 70%로 내려간다는게 상당한 애로 사항으로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 위치) [원장12, 가정]

시간제 보육의 특성상 부모가 자유롭게 아이를 맡기고 싶을 때 맡기는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안정적인 수요보장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이러한 아동 수요에 따라 교사의 인건비가 유지되지 못한 다는 것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교사의 채용과도 직결되어 있어 해결이 필요한 문제이다.

저희도 1년이 지나면 이 70% 이용을 못 하게 되면 인건비를 부담해야되는데 육아종같은 경우는 시간제보육 지원금이 다르고 육아종에대한 운영비 지원이 다르다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나가야될지 굉장히 고민인거예요....인건비 부분은 좀 심각한 저희한테도 현실적인 문제이거든요..[센터장4]

나) 운영비 사용에 제한이 있음

또한, 운영비 사용에 있어서 어린이집 정규보육의 운영과 시간제 보육 운영의 회계 체계가 따로 이루어져서 번거로움이 있고, 별도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시간제 보육 운영비를 시간제 보육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사용범위가 조금 더 넓혀진다면 운영상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32만원이 적다면 적는데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 돈이 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규제가 조금 완화된다면 사용 할 수 있는 다양하게 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 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원장11, 가정]

가정어린이집의 회계기준과 별도로 진행되는 시간제보육 회계의 체계가 어려움을 준다...운영비에 제한이 있어 실질적 운영에 차질이 많다. 점검시 장부(회계)를 따로 작성하라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원장 8, 가정]

다) 벌점 및 결재 시스템 관련 문제

시간제 보육 운영에 있어 예약 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금 -1점에서 -7점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벌점 운영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현재 벌점제도 규정

상 별점이 -7점이 되면 그 달 예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별점이 월초가 되면 초기화가 되는 점을 이용해서, 월 말이 되면 예약해 놓은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나오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 별점을 받은 시기가 아닌 2주 정도 일정기간 패널티가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저희 시간제 보육 교사들이 가장 요구했던 내용이 지금 별점제 운영이 별점이 7점 이상이 되면 예약을 할 수 없게 되는데, -7점이 되는 날로부터 그달 말일까지 별점이 초기화 되는 데 예를 들어 7/31 날 별점이 -7점이 되면 초기화해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거예요. 7월 말일에 이미 별점 -7점이 되면 그 이용자는 다시 8/1부터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7/15에 별점 -7점이 됐으면 그 16일부터 31일까지는 이용을 하지 못하게 돼서, 오래이용하시는 어머니들은 이거를 악용하는 극소수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패널티 부과는 공평하게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센터장3]

패널티에 대한 부분이 그 달에 끝나는게 아니라 예를 들면 2주간 이런 기간이 정해지면 좋겠다는 의견 [센터장4]

예약 취소에 대한 별점제도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원장 8, 가정]

하지만 별점을 주는 것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닌 교사가 별점을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별점을 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간제 이용수가 많으면 별점제를 더 엄격할 수 밖에 없는데, 운영하는 기관에 따라 별점을 주는 정도가 다르기도 하여, 그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저희도 (규정을 어기는 부모에 대해) 별점을 좀 주고 싶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규정을 어겨도 별점을 주기가 살짝 좀 그래요. 왜냐면 학부용들의 동생들이 대부분이고 지인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엄마들이 왔을 때 다음 아이가 없든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아이가 10분 더 놀아도 괜찮고 자기가 더 10분 늦게 왔어도 괜찮을 텐데 월 이걸로 별점을 주하면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원장 5]

그리고 별점에 있어서도 저희가 초기에 운영할 때 일부 민원이 생겼던 이유가 저희는 본원의 경우 이용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타 지역의 타 센터를 이용했던 이용자 분께서 그곳은 이용자가 별로 없어서 늦게 가도 별점 체크 안하고 아이가 없으니까 30분 더 놀고 가겠다고 했을 때 별도의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기존 예약 상황을 연장을 해주는 넉넉한 인심을 제 공받았는데 왜 이렇게 야박하냐 라고...민원을 제기 하신거예요. [센터장3]

또한 결제시스템에 있어서도 부모님들이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러 와서 결재를 하는 시스템이라, 다른 아이를 보육하다가도 결재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고,

아이가 올 때마다 결재를 하느라 시간을 쓰기 때문에, 보육에도 차질이 생기고 보육을 하던 아이들도 혼란스러워 한다는 문제를 언급하며, 기관에서 결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사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던 것도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사실 결제할 때도 한 사람은 애를 봐야 되는데 한 개반일 경우에는 선생님이 결제를 하러 저쪽에 들어가고 나면 제가 애기를 안고 있어야 되는거예요...(아이도 낯설어서).. 기어서 결제하는데 가고 이러다 보니까 결제도 육아종에서 어떻게 시간을 확정을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ARS를 보내가지고 어머니가 직접 결제하는 그런 원에서 결제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원장 5, 국공립]

6) 운영적 측면 2: 시간제 보육 운영의 장점

가) 아이들 적응 및 신규원아 모집에 도움이 되기도 함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다가 만족도도 높고 아이들도 적응이 잘 되어 시간제를 이용하던 아이가 정규 원아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신규원아 모집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원에 이미 적응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신입원아 적응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제 이용하는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용하는 부모님들이 이걸 적응단계로 이용을 하시다가 조금 이용을 하시고 나서 입소를 하시게 되는거예요...한 두 시간을 꾸준히 이용하면서 어린이집 입소 부분까지도 이어질 수 있게 적응 기간을 받는 것처럼 되어서 그런 부분에는 되게 저희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원장 11, 가정]

긴급으로 이용하기보다 어린이집을 정식으로 보내기 전에 동일한 기간에서 적응기간으로 이용하기 좋다는 의견을 주었고..[센터장 2]

그래서 36개월 이전에 저희 어린이집에 시간제를 이용하면서 저희 어린이집에 3세 반에 대기를 올려놓고 시간제를 이용하다가 그대로 입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반 아동보다는 적응을 빨리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기 적응을 거의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원에 친숙해져 있기 때문에 빠른 적응이 가장 큰 효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원에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거죠. [원장 5, 국공립]

나) 부모님들의 높은 만족도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용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하였다. 가정육아를 하시던 어머니들이 가끔씩 시간

제 보육에 자녀를 맡기고, 병원을 가기도 하고, 개인 용무에 시간을 쓸 수 있으며, 취업준비를 하거나 육아지원센터 이용의 경우에는 특히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면서 부모교육도 받는 등의 시간을 쓸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일단 센터의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영아 어머니, 양육자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다가 이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단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아직은 자녀가 어려서 어린이집 기관에 등원하는 것은 부담스러웠던 부모님들이 많은데, 시간제 보육을 통해서 기관에 아이가 적응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고요. [센터장3]

너무 좋아하시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들이 사실 육아를 한다는게 하루 종일 엄마들이 아무리 집에 있어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 두시간씩이라도 맡길 수 있고 또 특별하게 큰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야되는데 작은아이를 잠깐 맡길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좋다고..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원장 12, 가정]

또한, 원장님이나 센터장님들이 시간제 이용을 하는 어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어린이집을 가기 전단계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며, 자녀가 하루에 조금씩 기관생활을 하면서 기관에 적응을 하게 할 수 있고, 자녀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하였다.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면서 어머니들이 이제 시간이 생기니까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부모교육이라던가 다양한 취미생활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그런 시간을 찾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센터장 2]

재택근무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시작이 될거면 시간제를 이용하는 학부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라고 저는 봐요.[원장 1, 국공립]

어린이집 가기 전 단계, 적응을 위해 이용하신다고 한 부분이 있고요. 한 부분은 부모교육이나 본인의 여가생활 또는 모임 같은 경우 참석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맡긴 경우가 많았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을 아이 발달 특성상 어린이집에 먼저 보내기 전에 우리아이가 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보기위해서 보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센터장 4]

다) 운영비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도 함

기관마다의 차이가 있었지만, 시간제 보육 운영으로 인해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 운영비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제 100% 교사 인건비, 4대보험 퇴직금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월 한 달에 32만

원에 반 운영비가 지원이 돼요.[원장 1, 국공립]

아직 그런데 중요한 건 보육료 수입이 1년으로 합치면 좀 되더라고요. 운영비로 이게 들어 오니까 운영비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원장4, 국공립]

시간제 보육으로 발생한 보육료 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교사 처우 개선이라던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또 이월금이 발생하면 익년도로 이월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육료 수입으로 보조교사를 채용하거나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명절 수당이라던가 기타 연수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3]

8) 홍보의 어려움

가)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야하는 상황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였다. 그래서 시간제 보육 선생님들이 직접 밖으로 나가 홍보물을 돌리거나 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게시판 등의 홍보물 전달도 해보았지만 크게 효과가 없었고, 육아맘카페 등에 올리면서 조금씩 홍보가 되고 있으며, 엄마들 사이의 홍보가 가장 큰 홍보가 된다고 하였다.

지금 현재는 가장 힘든 건 홍보예요. 저희는 홍보가 가장 너무 힘들었고 홍보를 다니는 교사들도 저희가 광고를 해도 홍보부분이 가장 빈약한데 최근에 가장 건의사항이라면 당기 돌봄도 국가적으로 이렇게 홍보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는데 왜 시간제 보육은 홍보를 안 하실까? 이런 서운함도 남아있거든요. 사실 운영 하면서요.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홍보 부분이 너무 힘듭니다. [원장13, 민간]

홍보면이 상당히 애로사항인데 우리도 지하철역 근처에 가서 출퇴근 시간에도 해보고 아파트 게시판에도 붙여보고 별일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한 건도 안 와요.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놔서 해보는데 전화연락도 안 오거든요. [원장12, 가정]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시간제를 제가 이제 지금 거의 6년째 하고 있으면서 가장 힘든 점이 홍보문제인 것 같아요.... 아주 예전에 5~6년 전에는 막 병원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아까처럼 문화센터에 교사들이 가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곳에서 난색을 표하고 잡상인 취급을 하고... [원장 5, 국공립]

마트에 문화센터 같은 데에 그런데 다니면서 기념품으로 해서 홍보지를 같이 붙여서 그런거 돌리러 여기저기 주변에 있는 모든 곳들을 다녔던 것 같아요. 수영장, 소아과 아니면 문화센터, 마트 이런 데에 가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홍보가 선생님이라 이야기 했지만 그 홍보로 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기는 해요. [원장 4, 국공립]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간제 보육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용을 하는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경쟁적으로 예약을 하다보니, 부모님들 사이에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고 하였다.

요즘은 또 비대면으로 SNS라던가 센터 홈페이지라던가 또 육아맘카페라던가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다양하게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제 보육의 특성이 일반 어린이집 기관을 이용하는 거 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냐하면 이용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을 때에 주변에 그 또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들한테 입소문을 내는 거 주저하는 엄마들이 많은 이유가 그렇게 이용자가 많아지면 예약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센터장 3]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는 이상 정원만큼의 시간을 채워야 시간제 교사 인건비가 나오는데, 시간제 보육 원아가 없는 시기(주로 3-5월)은 많은 부모님들이 시간제보육에 잘 몰라서 홍보가 어렵고 입소를 하러 오신 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잘 모르시다보니 정규반을 이용하러 오신 부모님을 설득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였다.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상담도 사실은... (정규반) 입소를 위해서 상담오시는 분들한테 시간제 이야기를 하면 어머님들이 다 모르시는거예요. 그리고 이해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조금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머님들이 그래서 약간 이거를 어머님이 입소를 생각하시고 오시니까 시간제 부분을 이용을 안 하시려고 또 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원장 11, 가정]

나) 공익광고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함

이렇게 어린이집들에서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품이 많이 들고, 품에 비해 효과도 없어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였는데, 홍보를 어린이집이 담당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도 책임을 갖고 홍보를 담당해준다면(원장 6, 민간),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TV를 통한 공익광고 형식의 광고에 대한 효과를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었다.

근데 이 홍보는 정부 차원에서 해주지 않으면 그게 가장 효과적인데 각 원마다 이렇게 다투듯이 서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홍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 4, 국공립]

지금 안 그래도 텔런트분이 영상물을 한국진흥원이나 이런데 올려놓으시는데 그것을 찾아보시지는 않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영방송에서 공익광고처럼 한번 홍보를 해주시면 엄마들이 이해하시고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원장 11, 가정]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할 때 매스컴을 통해서 TV에 아주 짧은 자막이라도 그렇게 시간제사업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해주시면 가장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 5, 국공립]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용 가능한 수요자를 특정지어 홍보하는 방안인데, 시간제 보육이 영아 대상 사업이므로, 산부인과나 소아과, 조리원 등에 광고를 하거나 (원장 7, 민간), 동사무소 등에 리플렛을 두거나 여성지 등에 광고하면 홍보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간제 보육은 생후 6개월부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산을 한 부모들에게도 이 정보가 다양한 양육정보와 함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공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보육반장 사업 등을 통해) 출산 가정에 시간제 보육을 함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나 전국적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 3]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할 때 리플렛 같은 거를 거기다 놓아가지고 그 오시는 분들한테 그거를 주시면 그분들이 그 얘기를 낳았을 때 어? 이런 제도도 있네 하면서 느끼기에 좋은 홍보로 자료로 사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신문이나 또는 어떤 잡지 여성지 이런데에도 좀 해주시면 엄마들이 느끼는 그런게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12, 가정]

9) 기타 어려운 점 및 논의사항

가) 급식 제공 및 도시락 지참 문제

시간제 보육 규정상 시간제 보육에서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아 점심시간에 보육을 맡겨야 하는 경우에는 도시락을 싸서 보내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부모님이 준비하신 도시락이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도 많고, 먹고 문제가 되었을 경우 책임을 지는 문제 또한 있기 때문에 도시락을 먹이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하였다. 많은 어머니의 경우 추가 지불을 하더라도 점심이 제공되는 어린이집에 맡길 겨우 같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이 많은데, 상황에 따라 그것이 가능하면 좋겠다고 응답하신 어린이집도 있었다.

자기 아이가 안 먹는 반찬이 있거나 식단을 미리 보고 그렇다면 자기가 조금은 준비해 오지만 그래서 밥을 일정한 금액을 지불을 하고 밥을 먹고 싶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밥을 먹이지 못하도록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규정이 됐거든요...밥도 있는데 안 먹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센터랑 어린이집 내에 있는 시간제량은 조금은 차별화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원장 5, 국공립]

부모 입장이 돼보자. 그 몇 시간 맡기면서 도시락 준비를 한다는 게 그게 조금 부담스러운 거 같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하고 선생님도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 게 아니라 급식실에서 주는 따뜻한 밥을 먹는데 애들도 그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럼 한 시에 주는 게 적절하게 때문에 원장님 급식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래요. [원장 1, 국공립]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을 하는 경우에도 영아를 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영아를 위한 음식이 없어 절대 밥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도 있어, 급식을 제공하는 여부 또는 편리성에 대한 생각은 시간제 보육 운영기관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저희는 어린이집이긴 하지만 저희는 절대로 밥을 먹이지 않고요. 아이들이 6개월부터 36개월인데 저희는 사실은 0세반이 없는 어린이집이에요. 0세반이 없다보니까 0세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 저희 원에는 없거든요. 어쩌다 오는 이 아이를 위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가 없거든요. 누구는 제공을 하고 누구는 또 36개월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먹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저희는 점심제공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예 부모님들한테 안내를 해서 요구하는 어머니들이 없는 걸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원장 4, 국공립]

나) 프로그램 운영

하루에 단시간 보육하게 되는 시간제 보육이다 보니, 보육 프로그램보다는 아이들 적응 등에 신경을 썼지만, 적응단계를 거쳐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는 아이들의 구성이 불규칙하고 6개월부터 36개월까지 혼합되어 있어,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기존에는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월간으로 프로그램은 교사가 작성해야했다. 하지만 이것이 업무 강도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준다. 월별 가이드 필요[원장 6, 민간]

오감 활동이라든지 요리활동 이런 계획은 열심히 잡아놨는데 (코로나 때문에)실행을 못 했습니다.[원장 10, 민간]

또한, 운영기관에 따라 영아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오감 프로그램 등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어린이집도 있었고, 어떤 주에는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을 구성하여 홍보하여, 그 때 부모님들이 찾아오게 하는 홍보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시간제에서 저희는 사실 시도했던 것 중에 영아는 사실 감각교육이 가장 중요하니까 체험하고 감각이 중요하니까 오감각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아이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다음 달에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라고 저희는 홍보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그걸 보시고 아 나 이날은 꼭 가야되겠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 [원장 13, 민간]

다) 코로나 시기의 시간제 보육 운영

현재 COVID-19로 인해 2020년은 11월만 거의 정상 운영이 되고,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긴급보육으로 정규원아는 등원을 하는 상태이고, 코로나 시기에 돌봄이 더 어려운 점 및 코로나가 장기화 될 가능성 등을 봤을 때, 상황에 따라 시간제 보육을 여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긴급 보육 식으로 계속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같은 경우도 2단계기 때문에 연수구도 휴원이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시간제는 안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1월에 발생이 됐는데 듣다보니 그동안도 진짜 긴급 보육으로 어차피 저희 2/3, 반 이상은 아이들이 나왔었는데 시간제가 열렸어도 됐던거 아닌가? [원장 10, 민간]

현재도 상황에 따라 부모님들의 요구 및 지자체와의 논의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었는데, 가정에서 하루 종일 있게 되는 아이들이 가끔이라도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게 되면, 아이도 답답하지 않고, 부모님도 잠시의 여유를 갖는 기회가 되어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시간제 보육 이용 원아에 대한 COVID-19 상황에 대한 지침은 별도로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좀 불안한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자 시간제 보육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시간제 보육은 계속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부모님들의 그런 반응이 있었던 사유를 들어보니 원하는 시간에 아이를 한시간만이라도 맡길 수 있다. 그런 곳이 있다. 라는 것에 만족감이 높은거예요....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어딜 가지 못하니까 아이도 답답한 상황이고 어떤 어머니는 우울증까지 겪은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극복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원장 13, 민간]

또한, 시간제 보육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이 가능한 것에 대한 걱정이 있는 상황이라, 처음 등록할 때 연별 건강검진을 제시하게 하는 등 건강상의 증명을 하게 하는 등(원장 6, 민간)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라) 5시까지 시간제 운영 안

시간제 보육을 하는 선생님의 휴게시간 보장 등을 위해서 보조교사 및 2개 반 운영 등의 대안 등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5시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시간제 교사 근무시간이 9-6시인데 시간제 보육시간도 9-6시임에 따라 준비 및 정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변갈아가면서 밥을 먹고 변갈아가면서 휴게 시간을 쓰고 이러면 될 거 같기는 하던데 제가 한 가지 더 건의를 하자면 다섯 시 정도까지 하고 시스템을 막아야 한 시간 동안 업무 정리도 하고 다음 날 준비도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할 시간이 되는데 6시까지 시스템을 열어 놓으면 선생님들이 늘 퇴근이 물론 다행히 아이가 5시까지만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아이가 6시까지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늘 한 시간 시간 외 근무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원장 5, 국공립]

나. 시간제 보육 이용 부모

현재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어머니들을 면담하여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게 된 계기, 이용 형태, 이용하면서 느낀 점, 개선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고, 시간제 보육 사업이 확대되는 데 있어 개선 및 보완 방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간제 보육 이용 경험이 있는 어머니 4명을 대상으로 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IV-1-2〉 시간제 보육 이용 부모 면담 대상자 정보

분류	기관유형	첫이용시기	분류	기관유형	첫이용시기
이용부모1	국공립	6개월	이용부모3	국공립	15-16개월
이용부모2	육아종합지원센터	20개월	이용부모4	국공립	-

1) 시간제 보육 이용 경로 및 이유

가) 시간제 보육을 알게 된 경로

현재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을 어떻게 알고 이용하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이용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 어머니는 가정보육을 하면서 어린이집 대기를 1년 정도 하였는데, 그 사이에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해 주변의 어머니들에게 소개를 받고 이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두 어머니는 맘카페에서 정보를 얻거나 아이사랑 포털을 통해 시간제 보육에 대한 정보를

연은 후 맘카페에서 후기를 접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육아 관련 정보가 모이는 맘카페에서도 시간제 보육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아 알지 못했다고 하여 홍보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첫째가 있는 어머니들의 경우는 첫째 어린이집에서의 광고를 통해 알고, 둘째가 6개월 때부터 보낼 수 있었다고 하였다.

가정보육 중 어린이집 대기기간 1년의 공백기에 주변 엄마들의 소개를 받음. 이렇게 지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시간제보육을 모르는 부모가 많다. (맘카페에서도 아는 사람이 적다.)
[이용부모3]

첫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포스터를 보고 여쭙보고 둘째부터 이용하게 되었다... 저는 6개월 되자마자. 둘째 낳고 출산이후 병원 치료를 받고싶어서 아이가 6개월이 되시기다렸다가 이용하게 되었다. [이용부모1]

아이사랑 포털을 알게 되고 사이트 내에서 시간제보육을 알게되었다. 그리고 맘카페 후기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다. [이용부모2]

첫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어서, 전업주부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찾다가 맘카페에서 아이돌봄서비스랑 시간제보육을 알려졌다. [이용부모4]

나)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게 된 이유

처음 이용하게 된 이유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서 또는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해야 해서 등의 이유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어린이집 정규반을 보내고자 했으나, 대기가 길고 차례가 오지 않아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4개월까지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려고 했으나, 어린이집 자리가 나지 않아서 어린이집 대기중 사용하게 됨. 기관 적응도 하고, 사회성발달을 위해 이용함. [이용 부모 1]

또 처음에는 낮가림이 심해서 오전에 다른 아이들이 주로 없는 시간에 1시간씩 꾸준히 보내면서 적응을 시키기도 하였다. 또 다른 경우는 처음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때, 원래 시간보다 일찍 가서 엄마와 함께 와서 적응을 하라는 요청을 받아 일찍가서 적응을 시킨 후 보육을 맡기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2) 시간제 보육 이용의 좋은 점

가) 선생님 만족도 높음

시간제 보육을 이용해본 어머니들은 하나같이 높은 만족도를 언급했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세심하게 봐주시고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능숙하게 보실 수 있는 점을 칭찬하면서도, 시간제 교사로서 능숙한 선생님이 아니시면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을 보시는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언급도 하였다.

나) 기관 적응에 도움

처음 이용해 본 후 시간제 보육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꾸준히 정기적 기관이용 이전에 시간제 보육 이용을 꾸준히 하는 것이 향후 기관 적응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제안을 듣고 정기적으로 다니게 되었고,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아이의 기질이 낮을 많이 가려 담당 시간제보육교사가 꾸준히 오는 것을 권유해주셔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었고 이후에 정규보육에 들어갔을 때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용부모3]

3) 이용의 어려운 점

가) 예약의 어려움

이용의 가장 어려운 점은 예약이라고 하였는데, 월초 밤 12시에 시간제 예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날은 알람을 맞춰두고 한 달치 예약을 다 해둔다고 하였다. 밤 12시에 예약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아이를 재워두고 예약에 집중할 수 있어서 낮 시간보다는 낫다고 하였지만, 예약시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또한, 당일 예약은 전화로 하기도 하는데 전화 예약 연결은 거의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나올 정도로 전화 연결은 어렵고, 결제 시간을 1시간을 철저히 맞춰서 진행하고 별점을 부과하기 때문에 앞뒤로 여유가 좀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예약과 관련하여 전화연결이, 당일 연결이 어렵다. [이용부모 1]

결제 시간에 대해 앞뒤로 5분 정도는 여유가 있었으면. [이용부모 2]

별점 취소에 대한 권한이 교사에게 있었으면..[이용부모3]

나) 연령 혼합의 어려움

시간제 보육의 이용연령이 6개월에서 36개월로 연령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이가 어릴 때는 다칠까봐, 아이가 좀 클 때는 어린 아이를 다치게 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한 선생님이 넓은 연령대의 아동을 보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아이들 사이에서 넓은 연령대의 아이들이 함께 있다 보니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넓은 보육연령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그리고 6~12개월과 이후 개월 수 반을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우리 아이가, 15~19개월쯤, 다른 아이는 더 어린 월령이었다. 내 아이가 어린 아이에게 실수로라도 해를 입힐 수 있어서 불안했다. [이용부모4]

근데 그런 부분을 내가 감안하고 보냈다고 생각한다. 내 아이가 심하게 다쳐서 돌아왔을 때 속상하긴 했다. [이용부모1]

또한, 이용 기간에 대한 건의도 있었는데 36개월까지 이용이 짧다고 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어린이집을 퇴소한 아이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가정보육을 하면서도 시간제로 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코로나 시기에 자녀를 돌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6개월이 너무 짧다고 생각한다. 어린이집 입소했다가 퇴소한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 [이용부모2]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유아들도 유치원을 그만둔 사례가 많다. 시기 상황상 유아반을 개설하는 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용부모1]

다) 시간제 보육 시설이 근거리에 없는 문제

시간제 보육을 알고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었지만,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이 많지 않다 보니 집에서 가까운 근거리에 시간제 보육기관을 찾기가 어려워 왕복 1시간이 걸리는 곳에 유모차를 끌고 가서 맡기고 오기도 하여, 근접성이 높은 시설이 많이 생기기를 건의하였다.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이 적는데, 상대적으로 먼 기관으로 준비물(도시락, 이불 등)은 많아서 많은 짐을 들고 유모차를 끌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게 어렵다. 그리고 이동시간도 왕복 1시간이 되어서 실제로 4시간을 예약하면 3시간밖에 이용을 못하게 된다. [이용부모3]

4) 홍보 관련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은 시간제 보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 이러한 제도를 많은 분들이 알고 이용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랐다. 시간제 보육의 효용성과 만족도에 비해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양한 효과성이 예상되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먼저, 영아 부모님들이 받으시는 부모교육 후에 시간제 보육을 홍보하는 방법, 지역 맘카페에 홍보를 올리는 방법 등과 함께, 자녀를 낳고 키우는 분들이 모두 방문할 만한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 임신 시 보건소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부모교육을 한 후에 시간제보육을 홍보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언택트 시대에 맞춘 SNS 홍보 등도 가능할 것 [이용부모 2]

홍보이야기 하셨을 때, 맞벌이 중이어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서 보건소에서 임신부 배지를 받을 때 홍보를 연계하여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실질적인 제도들을 함께.) [이용부모 3]

출생신고 하면서 팜플렛을 주는 것 이상의 홍보를 진행해주면 어떨까_출생신고는 주로 아버지들이 하게되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않으면 쉽게 관심을 끌기 어렵다. [이용부모 4]

하지만, 맘카페에 올리거나 인스타 및 입소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으나, 맘카페도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들은 정보를 여전히 얻기 어려운 경향이 있고, 육아가 엄마뿐 아니라 온 가족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TV 광고 등을 통한 대중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지역 맘카페에 몇 번 글을 올렸었고 실제로 모르는 어머니들이 많아서 주변에 친한 어머니에게 입소문을 많이 올리고, 인스타에도 이용에 대해 홍보하기도 했다. 주변에 정보가 느리고 찾는 것을 어려워하는 어머니들이 많아서 조금 더 공식적인 홍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용부모 1]

타겟팅 홍보라면 그것도 가능한데, 육아라는 게 엄마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이 참여해야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좀 더 대중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다. 아무래도 TV광고 일 것 같다. SNS도 블로그, 인스타, 카페 등등 유형마다 주 사용층이 나뉘기 때문에. [이용부모 4]

5) 그 외에 바라는 점

가) 영아가 많은 지역에 시간제 보육을 많이 늘렸으면

시간제 이용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시간제 보육이 보다 가깝고 다양한 곳에서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특히 영아가 많은 곳에는 시간제 보육이 있다고 하더라도 빨리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영아가 많이 살지만 영아 보육기관이 많지 않는 곳에 시간제 보육이 많이 개설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어린이집 대기자가 유독 많은 곳, 신축 아파트 단지는 예상 가능하지만 빌라촌(예: 광진구 구의동)도 아이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더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가능한 시설이 적다. [이용부 모 4]

(*) 아이들이 많은 곳, 교통이 좋은 곳에 수요가 많다.

나) 정기적 이용하는 아동들을 위한 편의 제공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어머니들이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낮잠 이불을 들고 다니거나 하지 않고 놓고 다니거나, 어린이집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를 제안하였다. 이불의 경우는 맡기고 가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지만 급식 및 간식 제공은 현재 규정으로는 시간제 보육 아동에 대해서는 제한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운영기관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2. 전문가 의견 분석

시간제보육 모델(안)검토를 위해 총 14명의 보육 분야 전문가에게 서면 자문을 의뢰하였다. 자문 내용은 시간제보육 제도 개선 필요 사항과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시간제보육 제도 개선 필요 사항

1)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시간제보육 제도 개선 필요 사항으로 먼저 현행 6개월~36개월까지 시간제 보육 이용 영유아에 대해 규정된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구하였다.

〈표 IV-2-1〉 월령별 보육사 대 아동 비율 조정안

월령	6~15개월	15~24개월	25~36개월
교사 대 아동	1:2	1:3	1:4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일괄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적용하기 보다는, 제안한 바와 같이 월령에 따른 조정이 더욱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다수의 전문가가 응답하였다.

다만,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 여부, 행정상 및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대부분은 15개월 이하 영아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1:2의 비율이 적용되는 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동의 연령차 및 적은 이용 인원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예컨대, 동시간대에 15개월 이하 영아가 예약하는 경우 시간제보육 요구 충족 가능 여부에 대한 우려, 15개월 이하 영아와 25개월 이상 영아 이용 시 이용영아의 포대 관계 형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었다.

6-1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는 1:2의 비율이 적합한 반면, 25-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는 기존의 1:3의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12개월을 기점으로

아동이 이동이 가능해질 경우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13개월 이후에도 1:2를 유지하되 25개월 이상 1:3 정도로 낮추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 6개월에서 15개월도 월령에 따른 발달의 차이가 매우 큰 시기이므로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교사 1인당 아동 3명 또는 2명으로 통일 하는 방안, 24개월까지는 가능한 시간제 이용 보육 대상 및 총 이용시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도 있다.

기타 의견으로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시간제 보육의 대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양육행위가 되어야 하며 이를 충실하게 이행 수 있는 지원 방향 모색 필요하며, 1세까지의 영아에 대한 시간제 보육 이용 비용 지원은 양육수당과 이중 지원일 뿐만 아니라, 부모를 필요로 하는 영아 중심의 보육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2) 정기 이용자 할당에 대한 의견

현재 시간제 보육은 원하는 시간대에 1시간 단위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실제로 하루 3~4시간씩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이 2/3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따른 정기이용자 할당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운영적 측면에서의 안정성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기본적으로 정기적 이용자 몫 두어 안정적인 아동 구성을 예측, 보육활동 계획을 통한 운영 안정화 및 이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가 운영상의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나아가,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을 통한 운영 지원 효과 역시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기이용자 비율의 할당은 오히려 비정기적 이용자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제시된 정규이용자 몫을 두는 방안은 시간제보육의 본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의 전문가 의견에서 나타났다. 시간제보육의 기본 취지를 고려할 때,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정기이용자 할당 없이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및 4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시간제를 이용하는 경우, 정규보육이용을 권장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제시된 모델은 실제 긴급보육이 필요한 영아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긴급 보육에 우선권을 둘 것인지, 효율적이고 질 높은 운영에 우선권을 둘 것인지를 고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나아가, 안정된 아동 구성 예견을 정책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시간제 보육은 보육의 특성상 안정적이지 않은 아동 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어려움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 등의 다른 정책적 요소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시된 모델은 시간제보육의 개념을 달리 정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현 보육운영체계의 변화와 연동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예컨대, 현재 주 5일 종일 어린이집 집을 이용하는 3세 미만 영유아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와 요일에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전문가 자문 결과 드러났다.

나아가, 정기적인 시간제보육을 운영할 경우,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 권한을 선점한 이용자의 특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지적이 있다. 긴급 이용자 민원 고려, 정기이용자 몫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정기 이용자의 몫을 명확하게 중앙에서 제시하는 대신 그 비율의 구간을 정하고, 지역별로 그 구간 내에서 비율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제안도 있다. 사전등록제를 도입하여 학기별 또는 분기별 사전등록 시 정기이용 또는 비정기이용 중 선택하게 하여 인원을 예측하도록 하고, 사전등록 시 비정기로 시작하였으나 사용하면서 정기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정기이용으로 전환하여 인원으로 포함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정기이용자의 미등원에 따른 조치 및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이 외에 비정기적인 drop-in 방식과 주 2,3회 오전/오후반의 정규 시간제보육으로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방안 또한 제안되었다. 이는 Drop-in은 1시간 단위보다는 최소 2시간, 추가시간은 1시간 단위로 추가할 수 있는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정원 중 1명 정도씩은 정규 시간제보육의 인원으로 배정하는 방법 가능성이 가능한 모델로 제시되었다.

3) 시간제 보육 운영 모델 다양화

마지막으로 시간제 보육을 다양하게 구성하면서, 일일 3~4시간씩 주 2일 또는

주 3일씩 반일반(오전반/ 오후반 등)으로 편성하여 정기적 이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의견 수렴 결과, 제안된 모델은 정기적 이용 시 안정감, 지속적인 관찰 및 활동 제공 등에 장점이 있으나, 일반 어린이집 이용 간의 차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하며, 주 2이나 3일 정도 반일반으로 이용한다면 시간제보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주 2, 3일 단위의 보육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지칭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원 충족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제 보육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정기적 이용을 독려하는 것은 가정어린이집과의 갈등 구조를 양산하여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정기제라는 새로운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시간제 보육의 의미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또한 있다. 나아가, 제시된 모델은 시간제 보육이 drop-in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교사가 이 반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업무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 역시 있다.

반면, 융통성을 강조하는 시간제 보육의 원래 취지에 잘 부합한다는 의견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렴되었다. 나아가, 가정양육 부모 대상 양육스트레스를 경감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전문 보육교사를 통한 질 높은 양육 경험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이돌보미’ 대비 영아 발달에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양육을 주로 하는 영아들도 연령이 높아지거나 개인적인 욕구에 의해서 주 2~3회, 일일 3~4시간의 반일반이 적합한 사례가 있을 것이므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제안된 모델의 일률적 적용 보다는 각 지역 및 기관의 상황을 반영하여 정기적 이용자를 위한 운영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고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drop-in과는 별도로 만 2세 정도까지 월,수,금 오전, 월,수,금 오후, 화,목 오전, 화,목 오후 중 한 타임에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종일제 보육이 필수적이지 않은 영유아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방지하고, 부모에게도 다양한 보육 선택 기회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개발

1)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개발 시 주의점

시간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사항에 대한 자문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영아의 적응에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 전문가를 통해 수렴되었다. 이에, 교사와 영아의 안정된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필요하다는 의견과 적응기간에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나아가, 시간제보육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교사의 역량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영아 발달 특성 및 개인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교사 역량의 중요성, 보육교사들의 긍정적 상호작용 능력 개발의 중요성, 시간제보육 전담교사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역시 여러 자문 의견을 통해 드러났으며, 특히 이용시간, 아동의 연령, 프로그램 영역별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제 및 상황을 고려한 단시간 중심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안 제시, 계절이나 당일 상황을 고려하여 정규반 영유아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방식 등 유연한 프로그램 구성 및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아가, 시간제보육의 특성상 혼합연령은 가능성을 염두해 둔 상태에서 환경 및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함께 이에 따른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의 필요성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기 이용자와 일시 이용자에 따른 프로그램 구분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모든 정기·일시 프로그램을 기존 보육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운영하되, 일시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황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 연령별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모듈식으로 활용할 것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기타로 2020년 개정된 제4차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 영아(0~2세 보육과정)에 맞추어 놀이중심, 영아중심으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되, 시간제보육의 특성상 적응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교구 제작이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 구입이 가능하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교구 및 일상생활용품 등을 활용한 활동 개발 및 제공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부모와 관련된

주의점 역시 제기되었으며, 이용 전 부모오리엔테이션 및 부모의 책무에 대한 안내, 시간제 보육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부모와의 갈등 해결방안 등에 대한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시간제 보육이용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개발, 부모와의 면밀한 소통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2) 프로그램 계획 시 고려점

월단위/주단위/일단위로 시간제 보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및 정규반 프로그램 연동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의 다음과 같다. 우선, 위의 프로그램 개발 시 주의점과 마찬가지로 영아 적응에 관한 프로그램 체계화 및 활용 한 프로그램 등의 의견이 프로그램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놀이중심 4차 표준보육과정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표준보육과정의 구성방향 및 운영 안에서 자율성과 다양성, 표준보육과정 고려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계획의 적절성, 표준보육과정과 연동된 0세, 1~2세 보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등 4차 표준보육과정과 관련된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계획 시 고려가 필요한 점으로 응답되었다.

정기 이용 영아가 많은 경우, 기존 어린이집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일제 정규반 보육프로그램 및 놀이주제별 접근을 통한 영아의 흥미 유발 및 정규반 프로그램 활동 참여 기회 제공의 필요성 역시 몇몇 전문가들을 통해 제기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 계획의 보다 구체적인 구성방안을 제시한 전문가도 있다. 사전 등록제를 통해 정규·비정규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월 단위의 경우 종일반 프로그램의 흐름에 기초하되, 요일별로 다양한 영역의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안이 제안되었다. 예컨대, 월,수,금 주 3일반 또는 화,목 주 2일반으로 구별하여 주단위로 균형있는 활동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요일별 분배까지는 고려하기 어려움으로 2일반, 3일반식으로 주 단위로 프로그램 계획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시간제보육 아동이 정규반 과정 영유아와 공간을 함께 활용한다면, 시간제 보육 아동도 정규과정을 따라야 할 것이나 프로그램 내용과 속도 등에서 정규반 아동들과 동일한 요구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시 말해, 주제는 동일하게 하되, 시간제 이용 영유아가 참여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대략의 범위 계획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 외에도 시간제보육 특성을 고려, 이용 아동이 수시로 바뀌는 점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영아 월령에 따른 보편적인 발달적 특성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가정 연계의 필요성, 교사 역량의 중요성, 시간제보육 담당자가 원 전체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보육과정 협의하는 운영모델의 제안, 혼합연령 활동 관련 활용 가능한 예시 제공 등의 의견이 있다.

3) 기존 프로그램 개선 방안

기존 “시간제 보육프로그램”의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4차 표준보육과정 개정방향에 맞춘 영역별 활동 지원 및 보다 영아 주체 놀이 중심 프로그램 제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기존의 프로그램 주제 및 활동이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계획중심보육과정)에 근거하여 선정되어 있어, 개정된 보육과정과 연동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다.

나아가, 기존에 제시된 프로그램이 현 시점의 보육제도 및 현황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의 수요와 이용패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된 후, 적절한 시간제 보육제도를 확립한 후 기존의 시간제 보육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시간제보육 프로그램을 정규/비정규로 구분하고, 정규적 시간제 보육을 기준으로 주 2,3일 반일제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시키고, 비정규적 drop-in 보육을 1회성 프로그램으로 규정, 두 가지 축의 구분된 프로그램 개발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그 밖의 개선 방안으로 실제 적용이 용이한 활동을 제공, 특히 활동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도안이나 제작 방법에 관한 내용 제공(다운로드/ QR코드/ 홈페이지 등 이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정연계활동 개발 및 제공, 바깥놀이나 자연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 교사 대 아동비율이 낮아짐에 따른 보다 상세한 보육일지 작성의 필요성 등 역시 전문가 의견을 통해 드러났다.

4) 프로그램 계획 사례

시간제보육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의 구체적인 사례를 자문한 결과, 영아의 애착이불, 인형 등을 활용한 놀이, 영아의 적응을 1일차, 2일차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적응 지원을 제시하는 등 단기간 효과적인 적응 프로그램에 관한 사례가 몇몇 전문가를 통해 제시되었다.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를 참고하되, 그간「시간제 보육프로그램」에서 실행되었던 영아들의 놀이, 일상생활 경험 사례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참고용으로「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의 0~1세 신체운동영역의 ‘신체활동 즐기기’를 영아교사가 이해하기 쉽게 ‘영아 경험의 실제’를 사례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놀이주제중심, 매체중심, 일상생활중심 등으로의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상자, 천, 밀가루, 물, 모래, 점토 등 비구조화된 매체 중심으로 영아의 경험실제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교사의 지원 방안 제시를 제안하였다.

인성 발달 그림책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하루 일과와 통합적 진행 사례로「책과 함께 자라요」 ‘안녕! 인사해요’ 등과 같은 인성프로그램 운영 사례 또한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어린이집형과 센터형을 구분한 프로그램 개발의 제안, 바깥놀이를 적극 포함함으로써 실외 및 대근육 활동이 강조될 필요성, 메시 클라스, 액티비티 클라스 등과 같이 어느 주제를 요일별로 운영하는 방안 등의 의견이 역시 제시었다.

5) 기타 의견

마지막으로 기타 시간제 보육 운영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전반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싶은 의견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간제보육 활성화 방향에 대한 의견 몇몇 전문가를 통해 제시되었다. 우선, 시간제보육의 이용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운영모델은 단위 기관에서의 운영모델 보다는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운영모델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단위 서비스 제공기관의 내실화를 통해 시간제보육을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 특성(전통시장, 문화센터, 병원 등이 밀집한 시내 등) 등을 포함,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나아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간제 전담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영유아수 급감으로 가정어린이집의 폐원 및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폐원 가정어린이집을 활용한 시간제 전

담어린이집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단, 폐원의 요인이 영유아수 급감이기 때문에 이용 아동이 없을 수 있으므로, 지역별 수요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취약보육(다문화, 장애, 다자녀(쌍둥이 등), 맞벌이 가정)이나 아동 학대로 인해 긴급 보육이 필요한 영아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에 대한 시스템 필요한 실정에서 시간제보육이 할 수 있는 역할 고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취약 보육 아동 대상 세부적인 문제발생시 신속한 절차에 따라 지원결정이 가능하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규정 등의 유연성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역시 있다.

시간제보육 지원에 관련한 의견의 살펴보면, 교사의 전문성 제고에 따른 보수체계 및 업무 과다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교구 등을 직접 제작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있으므로, 쉽게 활용 가능한 자료 제공 및 이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역시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제도의 전반적인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 또한 몇몇 전문가에 의해 전달되었다. 먼저, 영유아의 안전과 연속성 있는 돌봄을 위해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시간제 보육보다는 주 2,3회의 반일제 프로그램의 보급이 더 실효성 있다는 의견이 있다. 종일제와 반일제라는 보육 선택의 폭이 확장되고, 기존 반 사용에 추가적으로 비상상황 시 시간제 보육을 추가 이용하는 방안이 교사나 영유아 모두에게 안정적이라는 의견이다. 영유아에 대해서는 종일제 보육보다는 규칙적이지만 제한된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것이 발달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육제도가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반일제 이용시 보육비 지원에 관한 부분, 취업모 자녀와의 형평성, 아동수당과의 조화 및 어린이집 차원에서의 반 구성 및 충원에 관한 부분은 또 다른 과제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앞으로의 보육 서비스는 그간 보육 현장에서와 달리 앞으로는 개개인의 특성을 수용하면서 보육수요자의 여건에 맞춘 유연하고 다양한 보육 서비스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떤 상황에서도 영유아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내면서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시간제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델 개발

01 모델 안과 현장 의견 수렴

02 시간제보육 활성화를 위한 모델
제안 (최종)

03 시간제보육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V. 시간제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델 개발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 간담회, 심층면접, 전문가 의견조사 등의 과정에서 분석된 의견과 개선 요구에 근거하여 시간제보육 운영을 활성화하고 확충하기 위한 운영모델 안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시간제보육 운영 및 미운영 시설 원장들의 의견을 검토하였다. 검토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모델을 제시하고 운영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함께 제시하였다.

1. 모델 안(案)과 현장 의견 수렴

간담회와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시간제보육을 운영해온 원장이나 센터장,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부모,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제보육 확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모델 안(draft)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러한 안에 대해 다시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본 절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가. 시간제보육 운영 모델 (초안)

시간제보육 운영 확대를 위한 모형의 초안은 2가지 접근 방식에서 총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표 V-1-1〉 시간제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델 안

구분	전환형 신규 모델	기존 보육 협업 모델	
명칭	I 모형: 시간제전담형 어린이집	II 모형: 정원 내 시간제 포함형	III 모형: 보육실 공유형
개념	어린이집의 유형이 아닌, 새로운 보육센터 형태 접근성이 뛰어난 가정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전담 시설로 전환	어린이집 정규반 현원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 차이 인원만큼 시간제 영아로 채움	정규보육반의 보육실 공간이 충분한 경우 시간제반과 공동으로 운영

접근 방식은 크게 새로운 유형의 개발과 기존 어린이집의 공간 공유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고, 후자는 다시 기존 보육 연령반 정원 내에 시간제 영유아를 포함하는 형태와 일반 보육반과 시간제반 간 보육실 공간 공유 형태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각 모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모형 1 : 시간제전담형 어린이집

가) 특징 및 장단점

시간제전담형 어린이집은 시간제보육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접근성이 높은 가정어린이집을, 일반적인 정규 보육은 하지 않고 시간제 아동만 수용하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보육 시설이다. 현재는 이런 방식의 시간제 전담 시설은 없으므로 가정어린이집 중 시간제보육만을 운영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경우에 신청에 의해 전환이 가능해 진다.

엄밀한 의미에서 시간제전담형 어린이집은 정부가 아동당 보육료를 지원하는 일반적인 ‘어린이집’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어린이집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시간제보육 센터’ 정도로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즉, 보건복지부가 일반 가정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기관보육료라든지 교사처우개선비 등이 시설에 지원되지 않고 이용 비용 지원 대상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수당 수급자(0~36개월)이므로 어린이집과는 운영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시간제보육 전담형 어린이집의 가장 큰 장점은 이용자 거주지에 가까운 거리에서 수적 확충을 통해 시간제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마을마다 혹은 아파트촌마다 수요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도보접근이 가능한 가정어린이집을 전환함으로써 현재 육아종합센터나 국공립 어린이집 중심으로 시간제가 제공되어 이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는 결과가 가능해진다.

또한, 가정어린이집은 이미 0~2세 아동이 주로 이용 대상이므로 영아 보육에 특화된 기관으로 보더라도 무리가 없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교재교구나 보육프로그램 운영의 노하우, 영아보육에 익숙한 교사 등 시간제보육 이용 주 대상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 목적을 전환하더라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환경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나) 운영 방법

(1) 반 구성

시간제보육 전담형 어린이집은 최대 보육 아동 수 20명 이내에서 다양한 월령별 다수 반 구성이 가능하다. 보육형태는 ‘정기보육반’과 ‘일시보육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모의 파트타임 직업 종사나 교육 참여 등으로 일일 단시간씩 지속 이용을 원할 때, 월 기준으로 주 2회 또는 주 3회 등 정기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요일을 미리 예약하고 이용하는 방식이 정기보육반이다. 이에 비해 일시보육반은 부모의 갑작스런 외출이나 병원 이용 등으로 일시적인 아이 돌봄이 필요할 때 부정기적으로 예약하고 이용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시간제보육 전담형 어린이집은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보육반을 모두 운영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보육반은 매일 또는 자주 비교적 장시간(일일 3~4시간) 이용을 원하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시간제보육이므로, 교사로서는 일반 보육에 준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간제의 특성상 매일 변경될 수 있는 아동 구성으로 인해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아동의 적응 돕기가 힘들다는 지적들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재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월령에 따라 조정한다. 즉, 일반적으로 영아가 걸음을 걸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6~15개월 월령(1단계)은 1:2, 16~24개월(2단계)은 1:3, 25~36개월(3단계)은 1:4로 반 정원을 구성한다.

일시보육반은 현재 시간제보육반 정원 기준인 1:3을 적용하고 전 연령(6~36개월)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2) 운영시간

운영 시간은 원칙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그러나 해당 시설이 여건이 되고 수요가 있어 운영이 가능하다면 야간 시간제보육(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이나 주말시간제보육(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을 진행할 수 있다.

정기보육반의 경우 일정하게 등원하는 아동의 이용시간을 정하여 동일한 또래들과의 상호작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을 주는 편이 좋으므로, 오전반(오전 9시부터 12시 혹은 오후 1시/ 또는 오전10시부터 오후 1시 혹은 2시 등)이나 오후반(오후 1시부터 4시 혹은 5시/ 또는 오후 2시부터 5시 혹은 6시) 등 상황에 따라 일일 3~4시간으로 반을 구분하여 지속 이용하도록 구성한다.

다) 비용

현행 시간당 보육료 4천원(정부 부담: 부모부담 = 3:1)과 반당 최대 월 32만원의 운영비, 시간 기준과 건 수 기준을 적용한 현행 인건비 지원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라) 기타

정기보육반 정원 대비 현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일시보육 수요가 많고 일시보육반에 빈 자리가 없을 때 당일 예약 등을 통해 정기보육반에서 일시보육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수요가 있을 경우 주말과 야간 일시보육반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교사를 별도 채용해야 하며, 보육료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은 지자체 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지자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어린이집별로 결정하여 진행한다. 또한 야간이나 주말 일시보육반은 연령 제한 없이 영아 또는 유아가 이용할 수 있고 국고지원 보육료가 없으므로 가장 양육 아동뿐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아동 또한 자비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비용 또한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모형 II: 반 정원 내 시간제 포함형

가) 특징 및 장단점

어린이집의 정규 보육반 현원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 빈자리만큼 시간제보육 영아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 이 때 시간제 아동은 해당 연령에 맞는 반의 정원에 포함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즉,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에서 0세 반과 1세 반의 정원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시간제보육 희망 영아를 수용하여 정규 보육 아동과 함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시간제 이용 수요자는 월별로 예약을 할 수 있게 하여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는 시간제보육 이용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중간에 정규보육을 원하는 수요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월 말일까지는 시간제 아동에게 보육 이용 우선권이 있으며 이후 월부터 정규반 보육 아동을 등록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시간제 이용 부모와 사전

합의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한다.

시간제 이용 아동이 지속적으로 있고 정규반 아동으로 3개월 이내 변경할 의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 시간제 아동 지원을 위한 보조교사를 채용하도록 한다. 보조교사가 시간제 아동의 등하원지도, 부모접견, 비용 결제 업무를 모두 담당하도록 한다.

나) 운영 방법

(1) 반 구성

반 정원 충족에 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간제보육 아동으로 반 구성원을 채울 수 있게 하는데, 다만 이 때 시간제보육 아동 수는 해당 연령 반 정원의 4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즉, 0세 반의 경우 24개월 이하 시간제보육 희망 영아 1명을 추가하여 보육이 가능하며, 정원 5명인 1세반 영아는 25~36개월 사이 연령 총 2명까지 시간제보육을 허용하는 것이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1~2명의 영아는 소속된 정규 보육반 또래 아동들과 동일한 보육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정규보육반의 담임교사가 시간제 아동을 함께 보육하도록 한다.

가능한 한 최소 예약된 1개월 동안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주 2회/ 주 3회/ 매일 등)으로 시간제를 이용하는 아동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이는 원래 소속 정규반의 영아와 교사의 보육 안정성을 위한 요건이 된다.

(2) 운영 시간 및 이용 시간

시간제보육의 운영시간은 기본보육과 동일하게 최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다. 그러나 이용은 최소 일일 3시간(첫 이용 초기 2주 적응 기간 제외)으로 제한을 두어 교사가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1~2시간 간격으로 새로운 보육 아동이 자주 교대하게 되면 정규반 소속 일반 아동과 교사에게 불안정성과 불편함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 시간 구성을 예로 들어 보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반,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반 등 2개 타임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이용 비용

보육료로서 시간당 4천을 부과하며 이 때 정부가 3천원, 부모가 1천원 부담하게 된다. 담임교사 인건비지원이나 운영비 지원은 추가되지 않으나 조건에 따라 보조 교사 인건비 최대 월 100만원이 지급될 수 있다.

(4) 기타

점심시간(12시~13시)을 포함하여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게 되는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때 급·간식비는 부모에게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3) 모형 III: 보육실 공유형

가) 특징 및 장단점

지역내 시간제보육 수요가 발생하였고 운영 의사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으나 시간제 운영을 위한 별도 반 구성을 위한 어린이집내 여유 공간 없어 공간 조건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만일 기존 0세 또는 1세반 보육실에 해당 연령에 맞는 시간제보육 1개 반이 추가되어도 될 만한 공간이 충분하다면 (아동당 면적 기준 1.65m^2) 정규보육반과 시간제보육반이 한 보육실을 공유하며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 이러한 모델의 경우는 2개 반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명 (정규반) '2-담임제'와 유사한 방식이며 다만 한 반은 정규반, 한 반은 시간제 반으로 구성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두 반의 아동은 동시에 동일한 보육프로그램으로 활동할 수 있고 다만 시간제 아동이 예약이 끝나는 시간에는 다른 시간제 아동으로 대체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구성원 교체 과정에서 정규반을 포함한 나머지 아동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교사가 주의하여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운영 방법

(1) 반 구성

시간제보육반 정원 3명 중 2명은 일일 3시간 이상씩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이어야 하고 나머지 1명은 필요시 임시적으로 1시간 단위로 보육을 이용

할 수 있는 일시보육으로 배정하도록 한다.

시간제보육으로 정기적으로 이용을 원하는 경우 최소 예약 단위인 1개월 동안은 정기적(주 2~5회씩 4주)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해야 하고 일일 최소 3시간 이상 이용(최초 적응기 2주 제외)해야 하는 것으로 조건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는 정규반과 공간을 공유하는 시간제반으로서 아동들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반내 보육활동이 동요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2) 운영시간 및 이용 시간

운영시간은 원칙적으로 공간을 공유하는 정규 보육반과 동일하게 09:00부터 시작하고 오후 4시 혹은 5시까지 운영하도록 한다. 기본반 교사가 5시 이전 보육활동 일과를 종료하고 6시까지 보육실 정리, 보육계획 등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시간제 담당 교사 또한 이러한 정규반 교사 일정과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시간 계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반이 같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보육을 하기 때문에 교사간 협업과 상호이해가 매우 필요하며 활동 종료 후 공간 정리, 보육활동 계획 및 준비 등에 두 교사가 협의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 예약은 월 단위로 진행하며, 정기 이용자를 위해 오전반(오전 9/10시부터 오후 12/1시), 오후반(오후 1/2시부터 4/5시)으로 구분하여 시간별 이용 아동을 교사가 예측하고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3) 비용

현행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 즉, 보육료 4천 중 정부 3천원 지원, 부모 1천원 부담, 교사인건비 70~100%지원이 있으며, 운영비의 경우는 기존 정규보육반의 환경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현행의 50% 수준(최대 16만원)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나. 시간제보육 운영 모델 초안에 대한 관련자 의견 수렴

시간제를 운영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시간제보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시된 모델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1) 모형 I “시간제 보육 전담형”에 대해

가) 찬성하는 입장

- 6~36개월을 모두 한꺼번에 보육하기보다 개월 수로 단계를 나누어 반을 구성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현재와 같이 다양한 월령을 혼합으로 운영하면 위험한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사 의견)
- 기존 공간 부족으로 시간제를 도입하지 못한 어린이집이 많은 것으로 보므로, 모델1과 같이 단독으로 시간제보육 전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적당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 의견)
-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진다. (원장 의견)
- 가정어린이집은 가까이에서 이용이 가능하므로 모델1의 이러한 전담 방식에 찬성한다 (부모 의견)
- 연령별로 나누어 반을 구성하는 방식이 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된다.

나) 우려하는 입장

-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많은 부모들의 이용 이유가 실제 정규보육에 등록하기 전 해당 어린이집에 아동을 잘 적응시키는 것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수개월을 미리 일일 2~3시간씩 단시간 이용하는데 자녀가 익숙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제 전담어린이집이 되고 말면, 부모의 이러한 이용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런 어린이집을 선택할지 의문이다.

다) 보완 및 개선 방안 제언

- 일시보육반도 개월 수로 나누어 보육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다양한 연령 혼합일 경우는 보조교사가 필수적이다.
※ 일반 정규보육반도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
- 인건비 지원 기준을 현재와 같이 건 수로 적용하여 70%~100%로 지원하면 운영에 안정성이 없어 해당 모델을 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을 것이다.(교사)
- 주말 시간제 보육은 매우 필요한 장치로 보이며, 이에 대한 예약 시스템 마련

이 필요하다.(원장)

- 기존 어린이집을 시간제 전담으로 전환할지, 새로운 전담 어린이집을 마련해야 할지 검토가 요구된다.(원장)
- 사전 시장조사를 통해 시간제보육의 수요가 많은 곳을 잘 파악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원장)
- 모집을 일반보육처럼 진행하는지, 해당 시간에 신청자가 많으면 입소대기를 받아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부모)
- 모델1처럼 전담으로 전환되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부모)

2) 모형 II “반 정원내 시간제 포함형”에 대해

가) 장점

- 시간제 보육은 대부분 아동에게 첫 사회생활이므로 실제 보육에 대한 준비시간으로서 강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일반 반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하는 것은 장점이 있다.(부모)
- 현재 시간제보육반은 대부분 1개반으로 해당 시간에는 1명만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또래들과 함께 생활하는 경험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못되고 있다. 이렇게 정규보육반과 함께한다면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본다.(원장)

나) 단점

- 해당 반에서 정규보육을 받고 있었던 기존 보육 아동의 경우 계속 들고나는 낯선 아동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 불편할 수 있다. 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려움을 예상한다.
- 오전/오후반으로 나누게 되면 오후반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주요 보육프로그램 활동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한 프로그램이 대부분 오전에 몰려 있으므로 오후반은 낮잠시간이 많은 일정을 차지할 수 있어 부모들이 오후반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부모)

※ 아동별로 낮잠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오후반을 선호하는 부모도 있을 것이다.

- 시간제는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장점인데, 시간을 3~4시간으로 정해서 아침 일찍부터 오전반은 보내야 하고 한다면 가정 양육을 편안하게 하면서 잠깐씩 계속 이용하고 싶어하는 부모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다) 보완 및 개선 제안

- 기존 시간제보육 이용 방식처럼 독립반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기존 기관에서 개선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보조교사와 담임교사의 직위가 수직관계로 다른 상황에서 시간제 아동을 보조교사가 담당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정규반/ 시간제반 아동들과 담임교사/ 시간제 보조교사 간 업무 분담을 제대로 하고 역할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요구된다.
- 점심 급식 제공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오전반 시간을 정할 때 현실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시간제보육의 이용보육료 결재, 수시 등하원 지원 등을 담당할 관리지원 보조 인력이 있다면 적절한 대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 의무적으로 시간제보육반을 개설하는 방법이 확충 방안이 될 수 있다.(교사)
- 시간제 보육의 최대 단점이 잦은 환경 변화와 아동별 연령차에서 오는 어려움 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대에 오는 아동들을 비슷한 연령으로 묶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교사)
- 인건비 지원 문제를 체계화할 것이 필요하다. 3-5월은 비수기라 건 수 조건을 맞출 수 없다.
- 이용료 1000원은 인상하더라도 이용할 의지가 있을 것이다 1500원정도까지는 적절하다.
- 시간제보육 이용 대상의 연령대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 시간제보육은 접근성뿐 아니라 교사의 질, 성향, 보육실의 물리적 환경 등이

중요하다고 본다.

- 교사의 휴식시간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 보조교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상황이며 교사의 근무 여건 변화가 필요하다.
- 오후 간식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이 추가되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3) 모형 III “보육실 공유형”에 대해

가) 장점

- 정기적 보육인원 외에 일시보육 인원을 남겨두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부모)
- 시간제보육이 가지는 강점이 세심한 보육서비스이므로 모델2와 달리 모델3은 시간제보육 교사를 단독으로 두고 투담임제를 운영하는 방식이므로 교사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교사)

나) 단점

- 오전/오후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오후반에 등원하는 아동은 종일반 일반보육 이용하는 아이들과 생활패턴이 다르므로 같이 보육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교사).
-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교사들은 책임질 원아가 늘어나는 경우가 되므로 업무 과중이 예상된다.
- 정규보육반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반 아동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 공간을 기존 보육반과 시간제 보육반이 같이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게 되면 시간제교사는 보조교사의 역할 정도로 전락하여 역할에 회의를 갖게 될 것이 우려된다.

2. 시간제보육 활성화를 위한 모델 제안 (최종)

가. 모형 I : 시간제보육 전담형 어린이집

앞서 제시한 모델 1 초안에 대해 시간제를 운영하거나 운영할 의지가 있는 원장, 교사 및 이용 경험 부모들이 제시하고 있는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시간제보육 전담형 어린이집’ 모델은 다음 <표 V-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시간제보육 전담형 어린이집은 시간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가정어린이집이 시간제보육만 제공하는 전담형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한 방안이다. 이 때 기존 가정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임대시설이 아닌 ‘자가’ 시설이어야 하고,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이므로 지자체는 매입 또는 장기 임차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형태로 전환하고 시간제 전담을 추진하도록 한다.

<표 V-2-1> 시간제보육 전담형 어린이집 운영 모형

필수항목	시간제보육 전담형 어린이집				
정원	최대 20명 (가정어린이집이 전환한 경우)				
	반 별 정원				
	반 유형	정기 시간제 보육			일시 보육
	월령	6-15개월	16-24개월	25-36개월	6-36개월
	정원	2명	3명	4명	3명
보육실 면적	※원칙상 '일시보육'은 반드시 1개 반 이상 설치 필수				
	- 시간제 보육실 13.2㎡ 이상(1개반당)				
	- 어린이집 전용면적 4.29㎡(영유아 1인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따른 보육실 기준 충족				
(지원 내용)					
보육료	시간당 4,000원(정부지원금 75%+부모부담금 25%)				
인건비	(지원조건)				
	°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 월 시간제보육 이용 건수, 이용 아동수, 이용시간 등 이용실적(1개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				
	- 이용건수 20건 이상, 이용아동수 2명 이상, 이용시간 40시간 이상 중 2개 조건 이상 해당할 경우 70% 지원				
	- 이용건수 30건 이상, 이용아동수 4명 이상, 이용시간 80시간 이상 중 2개 조건 이상 해당할 경우 100% 지원				
	※ 단,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제공기관과 매년 3, 4월 2개월 간 월 시간제보육 이				

필수항목	시간제보육 전담형 어린이집
	<p>용건수가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100%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겸직 원장의 경우 교사인건비 동일 기준 지원 (인건비 지원 내용) ◦지자체의 장기임차, 매입 등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선결 조건 ◦보육교사 4호봉 단가, 4대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교사수당 18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기타 보육교사 대상 수당은 각 요건 충족 시 별도 지원 가능 <p>※ 별도 리모델링비, 운영비 지원 없음. (지자체 협의 가능.)</p> <p>(운영 방법)</p>
운영시간	<p>(원칙) 월요일~금요일 09:00~18:00</p> <p>※ 지자체와의 협의에 의해 야간 시간제, 주말 시간제 운영 가능. 이 경우 보육료, 인건비 지원은 지자체 보육 지침 또는 조례에 따름.</p>
운영유형	<p>(시간제 정기 보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 당 3~4시간 연결 이용 원칙. 신규 원아 적응기 1~2시간씩 이용 가능. ◦1개월 단위 예약 ◦주 단위 보육료 지불 가능 <p>(일시 보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당 예약 원칙. <p>※일시 보육반 정원 초과일 경우 여유 시간에 한해 정기보육반의 일시보육 수요 수용 가능.</p>
관리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 반 이상 운영 시, 아동 등하원 지원, 시간당 이용료 수납 업무 담당을 위한 관리 인력 배치 ◦교사 겸직이 아닌 전임 원장이 원하는 경우 관리인력 겸무 가능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제 전담형 어린이집 주변의 일반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반 운영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확한 수요 파악과 대응 수준을 검토 후 추진하도록 유의함. ◦어린이집이 원하는 경우 급식 제공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급식 비용은 일반 어린이집 표준급식비용에 근거하여 부모 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음.

주) 위에 제시되지 않은 보육실 설치 기준 등은 기존의 시간제 보육 세부 운영 기준에 따름.

운영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간제 전담형 어린이집의 운영 사례와 비용을 가상으로 산출해 보았다. 2020년 현재 운영 중인 대도시 소재 K가정 어린이집 원장의 의견에 따르면, 자가 시설을 가지고 4~5명의 교사가 20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 17,000~18,000천원의 운영비가 소요된다. 이는 교사인건비가 모두 포함된 비용이다.

가정어린이집을 시간제 전담으로 전환했을 경우, <표 V-2-2>에서 보듯이 교사 데 아동 기준을 준수하여 정기 월령별 보육반 6개와 일시보육반 1개 등 총 7개반을 운영하면서 1개월 간 반 당 아동정원이 다 채워지고 일시보육의 경우 일일 3명

씩 7시간 이용하였다고 가정하면, 월간 수입은 10,640,000원에 이른다. 이 때 보육료 수입은 시간당 4천원이며, 수입 예상액은 전적으로 보육료 수입만으로 산출한 것이다.

〈표 V-2-2〉 시간제보육 전담형 어린이집 운영 시 보육료 월 수입 예상 액(사례 1)

연령	정기 시간제 보육						일시보육 (6~36개월)
	1단계 (6~15개월)			2단계 (16~24개월)		3단계 (~36개월)	
교사:아동	1:2			1:3		1:4	1:3
반 명	A반	B반	C반	D반	E반	F반	G반
9~12시	○			○		○	요청에 따름 (1시간 단위 사용 가능)
9~13시							
10~12시							
10~13시		○			○		
10~14시			○				
13~16시							
13~17시	○			○		○	
14~17시			○				
14~18시		○			○		
총 보육 시간	7	7	7	7	7	7	≒7
아동 수	2	2	2	3	3	4	3
총 아동 수	4	4	4	6	6	8	3~5
(시간당 4천원)							
일 보육료 수입(원)	56,000	56,000	56,000	84,000	84,000	112,000	84,000
월 보육료 수입(천원)	1,120	1,120	1,120	1,680	1,680	2,240	1,680
월 보육료 수입 계	10,640,000원						

※1단계 정기보육A반의 경우 정원에 여유가 있을 시 해당 연령의 일시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위 사례1의 경우, 임대료 지출이 없는 자가시설 전담형 어린이집에서 기준 교사 7명(원장은 교사 겸직 또는 전담), 사무관리인 1명, 보조교사 1명으로 인력이 구성된 경우 월 지출 예상액은 다음의 〈표 V-2-3〉과 같다. 이 때 교사 인건비는 정부 지원으로 충당이 되고 전담 원장이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12호봉으로 책정하였다.

〈표 V-2-3〉 시간제보육 전담형 어린이집 운영 시 월 지출 예상 액

항목	금액	비고
교재교구 구입	200,000	※ 원장대상 조사 결과에 근거함
교사처우 개선비용	100,000	
소모성 물품 구입	100,000	
보험료, 공과금 등	200,000	
보조교사 인건비	150,000	(7개반 시간에 따라 공유)
반 당 총 운영비 평균	750,000	× 7개반
사무관리원 인건비	1,800,000	
시설 운영 총 비용 (월)	7,050,000	사무관리원 인건비 포함
원장 인건비	3,000,000 (12호봉)	
1개월 총 필요 비용	10,050,000	(전담) 원장 인건비 포함

주) 교사인건비는 정부의 시간제 지원으로 충당하므로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음.

위의 〈표 V-2-3〉을 근거로, 시간제 전담형의 월간 총 예산을 산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 인건비 4호봉 기준 2,075,000 × 7명 =	14,525,000 원
월 예산(원장인건비 포함) = 10,050,000 + 14,525,000 =	24,575,000 원
월 예산(원장의 교사 겸직 경우) = 7,050,000 + 14,525,000 =	21,575,000 원

결과적으로, 〈사례1〉의 보육료 수입 예상액이 10,640,000원이므로, 교사 인건비 지원액 14,525,000원이 수입으로 잡히면 해당 어린이집의 총 수입은 25,165,000원이 되어 필요 비용 예상액 24,575,000(비겸직 원장 인건비 포함)원을 넘어서는 수준이 된다.

나. 모형Ⅱ: 정원 내 시간제 포함형

영아 인구가 감소되고 육아휴직 등을 통해 영영아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경향도 높아지면서 가정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들이 눈에 띄고 있다. 이는 최근 발표된 보육통계(보건복지부, 2019)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늘어나고 전체 운영 시설 수 또한 감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어린 영아에 대한 가정 내 양육 선호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주양육자가 시간제 근무나 일시적 업무, 뿐만 아니라 종일 단독 종일 육아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전히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이를 접근성이 높은 가정어린이집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시간제를 가정어린이집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다. 즉, 어린이집 내 시간제보육반 단독 구성을 위한 공간이 충분치 않고 일반 정규보육반 현원이 정원에 비해 적을 때 일반 보육반 정원 일부를 시간제보육 아동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규보육반 담임교사가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아 시간제 아동을 일반 보육프로그램내의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활용을 할 수 있게 지도한다.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다음의 <표 V-2-4>와 같다.

<표 V-2-4> 정원 내 시간제 포함형 운영 모형

정원 내 시간제 포함형	
정원	해당 정규보육 연령반 정원의 40% 이내 0세반은 1명, 1세반은 최대 2명
보육실 면적	- 시간제 보육실 13.2㎡ 이상(1개반당)
	- 어린이집 전용면적 4.29㎡(영유아 1인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따른 보육실 기준 충족
(지원 내용)	
보육료	시간당 4,000원(정부지원금 75%+부모부담금 25%)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조건) ◦ 이전 월 시간제 이용 건수 20건 또는 이용 시간 30시간 이상일 경우 ◦ 월 최대 80만원 지원 - 시간제 아동 등하원 지원, 시간당 이용료 수납, 보육활동 지원 등 업무 담당
	※ 별도 리모델링비, 운영비 지원 없음.
(운영 방법)	
운영 시간	(원칙) 월요일~금요일 09:00~17:00 - 기본보육반 운영 시간과 동일하게 시간제보육 종료 - 연장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 기존 연장보육반 정원 미달이 발생했을 시 6시까지 동일 보육료로 이용 가능. 6시 이후 시간제이용은 어린이집과 부모의 협의에 의한 이용료 부모 부담.
이용 방법	◦ 최소 예약 단위 1개월 ◦ 일일 3~4시간 연속 이용 권장, 주 2회 이상 정기 이용 희망자 우선 선정
유의 사항	◦ 어린이집이 원하는 경우 급식 제공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급식비용은 일반 어린이집 표준급식비용에 근거하여 부모 부담으로 실시함. ◦ 시간제 이용 해당 예약 월의 마지막 날까지 이용 보장. - 중간에 정규보육 수요 발생 시 예약 월 이후 월부터 등록 가능

하나의 가상 사례의 예를 보면, 대체로 수요가 높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정기 시간제 또는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 4시간 정기 시간제보육 제공

을 할 수 있고 4시간 이상 시간제보육 또한 가능하다. 이용자는 월/수/금 또는 화/목 등 주기적으로 날짜를 정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모형Ⅲ: 보육실 공유형

어린이집의 정원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공간구조 상 보육실 면적이 충분히 넓어 기존 보육 반 외에 동일 보육실 공간에 한 개 반이 더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정원 3명인 시간제보육반이 동일한 연령 반과 보육실을 같이 쓸(공유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참고적으로 해외 국가의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면적 기준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아동 1인당 1.98m^2 (2세 이상), 영국은 2.2m^2 (2세 이상)이고, 아일랜드는 3.5시간 이내 시간제보육은 1인당 1.81m^2 , 3.5시간 이상일 경우는 3.5m^2 (0-1세), 2.8m^2 (1-2세)로 세밀히 구분해 놓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경우는 아동당 면적 기준이 2.64m^2 인데 여기에는 어린이집내 모든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 공간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영유아당 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 면적 기준을 참고로 하여, 0세반(0~24개월)은 1인당 3.3m^2 , 1세반(25~36개월)은 1인당 3.1m^2 를 기준하고 결과적으로 0세반 보육실 면적이 19.8m^2 이상, 1세반 보육실 24.8m^2 이상을 갖추고 있을 때 시간제보육 1개반을 한 공간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이 때 시간제 보육반의 정원은 3명이므로 0세반 보육실은 총 6명, 1세반 보육실은 총 8명이 최대 동시 보육 활동 집단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델은 공간 규모가 큰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 시설에서 시간제보육을 제공하고자 할 때 별도 시간제보육실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기존 공간의 면적이 충분하여 이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다.

보육실 공유형 시간제 보육은 기존의 정규 보육반 아동들이 시간제보육으로 인해 안정적 활동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시간제보육반 역시 최대한 일일 3, 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이 구성원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3명 중 1명은 일시보육을 위해 열어 놓는 것도 시간제의 목적 측면에서 필요하므로, 시간제보육 담당 교사에게는 기존 보육반에 대한 이해, 연속적·정기적 시간제 아동의 자연스런 프로그램 내 융합, 일시보육 아동에 대한 배려 등 보육실 내의

모든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역량이 발휘되는 보육활동이 요구된다.

〈표 V-2-5〉 보육실 공유형 운영 모형

	보육실 공유형
정원	◦3명(1개반 기준)
보육실 면적	- 동일 연령 아동 반에 한해 보육실 공유(0세반/1세반 구분) 0세반 최소면적 20㎡, 1세반 25㎡ 이상일 경우 시간제보육반 추가 설치 가능
(지원 내용)	
보육료	시간당 4,000원(정부지원금 75%+부모부담금 25%)
인건비	(지원조건) ◦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월 시간제보육 이용 건수, 이용 아동수, 이용시간 등 이용실적(1개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 - 이용건수 20건 이상, 이용아동수 2명 이상, 이용시간 40시간 이상 중 2개 조건 이상 해당할 경우 70% 지원 - 이용건수 30건 이상, 이용아동수 4명 이상, 이용시간 80시간 이상 중 2개 조건 이상 해당할 경우 100% 지원 ※ 단,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제공기관과 매년 3, 4월의 2개월 동안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100% 지원 ◦ 교사 겸직 원장의 경우 교사인건비 동일 기준 지원 (인건비 지원 내용) ◦ 보육교사 4호봉 단가, 4대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 교사수당 18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기타 보육교사 대상 수당은 각 요건 충족 시 별도 지원 가능
운영비	◦ 운영비 50% 지원(최대 16만원)
(운영 방법)	
운영 시간	(원칙) 월요일~금요일 09:00~17:00 - 기본보육반 운영 시간과 동일하게 시간제보육 종료 - 연장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 기존 연장보육반 정원 미달이 발생했을 시 6시까지 동일 보육료로 이용 가능. 6시 이후 시간제이용은 어린이집과 부모의 협의에 의함. 이용료 부모 부담.
이용 방법	◦최소 예약 단위 1개월 ◦일일 3~4시간 연속 이용 권장, 주 2회 이상 정기 이용 희망자 우선 선정
유의 사항	◦어린이집이 원하는 경우 급식 제공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급식비용은 일반 어린이집 표준급식비용에 근거하여 부모 부담으로 실시함. ◦시간제 이용 해당 예약 월의 마지막 날까지 이용 보장. - 중간에 정규보육 수요 발생 시 예약 월 이후 월부터 등록 가능

3. 시간제보육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가. 이용 시간 관련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나 면담 결과 분석을 보면, 시간제보육 이용 아동의 70% 또는 2/3 이상이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장 다수가 '어린이집 입소 대기 기간 동안 이용'하는 목적으로 시간제에 등록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또한 일일 평균 이용 시간은 3시간 32분으로 나타나, 대다수가 1~2시간의 단기 이용보다는 **일일 3~4시간씩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제보육을 일시적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도 고려하지만 정기적 장시간 이용 수요가 많음을 감안하여 반이나 프로그램 구성, 시설 운영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본이나 아일랜드, 호주 등 본 연구의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4시간 이상 정기적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고려하여 비용이나 반 편성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아예 일시보육과 정기적 시간제보육을 구분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본 보고서 IV장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정기적인 4시간 이상 장시간 시간제는 시간제보육 도입의 원 취지를 벗어난 경우가 되므로 해당 제도가 필요함은 인정하면서도 시간제보육과는 별도의 보육 형태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견해들을 반영하여 정기적 시간제 이용에 대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차후 고려할 만하다.

나. 비용 지원 관련

1)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

조사에 참여한 많은 원장들은 시간제를 운영해본 결과 시간당 4천원인 현 보육료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62.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 시에는 시간 당 5,000원 내지 6,000원이 적당하며 정부지원 대 부모부담은 3:1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운영에서 비용이 높아지면 서비스 질이 좀 더 높아지고 운영이 원활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운영 경험이 있는 원장들이 비용 상향을 요구하므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층면담을 해보면 시간제 반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교구 등 다양한 활동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에 비용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요구가 있으나 대부분 시간제는 어린이집 일반 보육반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교재교구 등 재료를 새롭게 구입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37.5%의 원장은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동의하고 있음 또한 눈여겨 볼 지점이다. 그러므로 비용의 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간제 모델을 적용한 이후 점차적으로 정확한 필요성과 비용 규모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운영비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부족하다는 응답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 인건비 지원

교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간제운영 어린이집에서 100% 지원 기준 준수가 어렵고 특히 3, 4, 5월에는 어린이집 정규 보육반으로 입소하는 아동이 많아 자리가 많이 비게 되어 인건비 지원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가 한 데 집중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III장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 온전히 한 달을 시간제 운영하지 못했던 2020년 11월의 경우조차 대부분 100%기준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존 지원 기준자체를 하향조정하기보다는 학기 초에 해당하는 3, 4, 5월에 대해서만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월에 대해서는 70%기준을 없애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시간제보육 확충 관련

1) 수요

조사에 참여한 원장의 71.2%가 시간제보육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었고, 현재 시간제보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 중 40%가량이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시설로 지원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원장들이 느끼기

에 시간제보육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부모들도 시간제보육 이용에 대해 긍정적이며 특히 정규 어린이집 이용에 앞서서 더 어린 영아들이 어린이집에 적응 준비를 위한 단계로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 영아가 많은 지역에 시간제가 우선적으로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지자체가 시간제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의 인구구조(영아가 많은 지역), 영유아 어머니 취업률(비취업모가 많은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아를 집 가까이에서 손쉽게 맡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일반적으로 영아중심이면서 주거지에 인접해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간제를 확충하는 접근 또한 고려해볼 만하다. 가정어린이집을 시간제 전담 시설로 운영하는 모델을 적용할 때 국공립어린이집 수준 이상의 인건비를 지원해야하는 방식이 될 것이므로, 정부재원 투입에 대한 관리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타인건비지원시설의 관리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즉, 지자체의 시설 매입 또는 장기임차를 이용하여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것을 선제 조건으로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시간제 전용 공간의 문제

높은 수요에 대응해서 많은 어린이집이 시간제보육을 운영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간제반을 위한 독립 공간 마련이 어려워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 어린이집의 경우는 세심한 수요조사를 통해 시간제 보육실을 별도로 구성하여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존 설치된 어린이집은 여분의 공간이 없는 경우 현재 규정에서는 시간제 설치가 불가능하다.

설문조사에서 원장의 58.2%가 기존의 정규보육반에 공간 여유가 있을 때 시간제반과 함께 공유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제반과 일반 영아보육반이 함께 보육활동을 한 공간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몇 번의 간담회에 참석한 여러 원장들은 이러한 상황이 기존 정규 보육반 교사나 아동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부모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물론 일부 원장은 너무 수가 적은 시간

제반 아동들이 다른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환경으로서 정규보육반과 공간 공유방식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시간제보육반의 독립보육실 공간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시간제를 활성화하고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규보육반 보육실의 공유는 특히 교사 간 원활한 협업과 추가인력의 투입 등 지원을 통해 여러 예상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도입될 때 가능한 확충 방법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공간 규모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준수할 수 있는지의 사정을 통해 승인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일본의 경우 초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시간제보육을 위한 독립 보육실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보다 많은 수요에 대응하고 제공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독립 공간 규정을 폐지하였다는 선례 또한 고려해볼 지점이다.



참고문헌

- 김경미·김영신(2017). 영아 초기 적응과정에서 시간제 보육교사가 경험한 어려움과 보람.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2(2), 65-86
-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정·이지혜(2017).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지혜(2015).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 담당 교사의 경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화일보(2020. 12. 15일자 신문기사). “영아수당 신설·육아휴직 확대로 ‘저출산 고령사회’ 막는다.”
- 서문희·권미경 외(2013). 일시보육 성과 분석. 한국보육진흥원·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2014). 2014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육진흥원·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2019.12월말 기준).
- 보건복지부(2020a).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 신수지·이승현(2017). 시간제보육 사업의 성과 및 내실화 방안. 한국보육진흥원.
- 양미선(2015). 2015 시간제보육 사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미발간
- 유해미·강은진·권미경·박진아·김동훈·김군진·김태우·이유진·이민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도아(2017).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하는 어머니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우(2016). 시간제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어려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승·안혜경 (2018). 부산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제보육에 대한 만족감 및 개선점 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9), 469-487.

- 이영환(2015). 시간제 보육 현황과 발전 방안. 육아정책연구, 9(1), 75-93.
-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장영인·최영신(2008). 시간제보육의 필요성과 그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영유아보육학 53. 79-105.
- 정혜진(2017). 시간제 보육 현황과 향후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최영신·장영인(2010). 일본 시간제보육의 기능에 대한 일고찰 자녀양육지원 관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4(1), 59-83.
- 한국보육진흥원(2019).
- 한국보육진흥원(2020). 시간제보육 운영 및 이용 실태 관련 내부자료.
- Early Childhood Ireland 웹사이트 (<https://www.earlychildhoodireland.ie/>. 2020년 12월 3일 인출)
- Child Care Act 1991 (Early Years Services) Regulations, 2016
- Care for Kids(2016). What is Occasional Care? (<https://www.careforkids.com.au/> 2020년 12월 3일 인출)
- Occasional Child Care Australia 웹사이트 (<http://www.occasional-child-care.com.au/> 2020년 12월 3일 인출))
- 호주 교육기술고용부 웹사이트
(<https://www.dese.gov.au/child-care-package/child-care-subsidy>. 2020년 12월 3일 인출)
- Victoria Children's Services Regulations, 2020
- South Australia Children's Services (Child Care Centre) Regulations, 1998)
- Community Care and Assisted Living Act, Child Care Licensing Regulations, 2007
- 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2018).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Canada 2016.



부록1. 시간제보육 활성화 설문지(원장 대상)

시간제 보육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어린이집 원장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간제 보육 활성화와 운영 모델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일반 사항

1.	시설명	() 어린이집	
2.	소재지	_____시/도 _____시/군/구	
		① 대도시 ②중소도시 ③농어촌	
3.	설립 유형	①국공립 ②사회복지법인 ③법인·단체	④민간 ⑤가정 ⑥직장 ⑦부모협동
4.	설립 연도	_____년	
5.	규모	정원 _____명	현원 _____명
6.	시간제 보육 운영 여부	①운영 중 (☑PART 1) ② 운영 예정 (☑PART 2)	

〈Part 1. 시간제 운영 시설〉

1. 시간제 보육은 언제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까?

_____년 _____월

2. 2020년 11월 기준(코로나로 인한 운영중단 및 축소운영 기간 제외)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 현황은 어떠합니까?

반 수	() 개
아동 수	영아 _____명
	유아 _____명
	총 _____명

3. (2020년 11월 기준으로 볼 때)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면, 다음에 해당하는 아동의 수를 적어 주십시오.

1) 매일 몇 시간씩 지속 이용하는 아동	_____명
2) 매일은 아니나 격일 등 주기적으로 지속 이용하는 아동	_____명
3) 주기적이지는 않으나 가끔 이용을 지속적으로 하는 아동	_____명
4) 일회성으로 이용하는 아동	_____명
5) 기타: _____	_____명
계	총 _____명

4.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기준)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부모의 이용 사유에 따라 아동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규 어린이집 입소 대기 기간 동안 이용	_____ %
2) 부모가 파트 타임 직장에 다녀서 해당 시간만 이용	_____ %
3) 부모가 쇼핑, 장보기, 모임 등 일상적 일로 해당 시간만 이용	_____ %
4) 가정양육 부모가 자녀의 사회성 함양 등 보완적 필요로 이용	_____ %
5) 부모가 긴급한 업무, 병원 등 비일상적 일로 예기치 않게 이용	_____ %
6) 기타: 사유 _____	_____ %
계	100 %

5.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골라 주세요.

- ☐ ① 시간제 보육을 요청하는 부모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 ② (시설 건축 구조상) 시간제 보육 운영 공간의 추가 마련이 가능해서
☐ ③ 정원충족이 되지 않아 유휴 보육실이 생겨서
☐ ④ 시간제 보육을 하면 어린이집 운영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⑤ 시간제 보육을 통해 시설의 이미지와 평판이 좋아질 것 같아서
☐ ⑥ 시간제 보육 이용 영아를 확보하면 향후 본 시설 정원 충족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 ⑦ 지자체에서 시간제 보육 운영시설이 될 것을 요청받아서
☐ ⑧ 기타: _____

6. 시간제 보육료 수입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 1) 2020년 (정상운영 기간일 때) 기준 월 _____만원 (□ 2020년 운영 해당 없음)
 2) 2019년 기준 월 _____만원 (□ 2019년 운영 해당 없음)

7. 시간제 보육 운영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과 금액을 2020년 11월 (또는 10월 혹은 가장 최근 정상 운영한 월 기준)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월: _____월)

※교사인건비 지원액은 수입에서 제외하며, 시간제가 2개반 이상일 경우 이용자가 많았던 1개반을 선택하여 해당 반을 기준으로 작성해주시시오.

수입		지출	
항목	금액(단위: 천원)	항목(예시이므로 추가가능)	금액(단위: 천원)
-보육료		-교재교구 구입	
-운영비 지원금 (교사인건비지원제외)		-교사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	
-기타:		-간식 구입	
-		-소모성 물품 구입	
-		-보험료	
-		-공과금	
		-보조교사 인건비	
		-기타	
		-	
계		계	

8. 현재 시간제 보육료 수준(1인 기준 시간당 4천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충분함
- ☐ ② 적절한 정도임.
- ☐ ③ 조금 부족함. (#8-1 응답) (부족한 이유: _____)
- ☐ ④ 매우 부족함 (#8-1 응답) (부족한 이유: _____)

8-1. 시간제 보육료 수준은 시간 당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4,000원 ~ 5,000원 이하
- ☐ ② 5,000원 ~ 6,000원 이하
- ☐ ③ 6,000원 ~ 7,000원 이하
- ☐ ④ 7,000원 ~ 8,000원 이하
- ☐ ⑤ 8,000원 이상

9. 시간제 보육료를 시간 당 정부 3천원, 부모 1천원 지불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정부와 부모가 3:1로 지불하는 현재 방식이 적절함
- ☐ ② 정부와 부모가 2:2 방식으로 지불하도록 변경 필요
- ☐ ③ 정부와 부모가 1:3 방식으로 지불하도록 변경 필요
- ☐ ④ 부모가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필요
- ☐ ⑤ 기타: _____

10. 현재 정부의 시간제 보육 운영비 지원 수준(반 당 월 22.4만원~32만원 사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충분함.
- ☐ ② 적절한 정도임.
- ☐ ③ 조금 부족함. (☞8-1 응답) (부족한 이유: _____)
- ☐ ④ 매우 부족함 (☞8-1 응답) (부족한 이유: _____)

11. 2020년 올 한해 시간제 보육 운영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① 매우 불만족
- ☐ ② 불만족
- ☐ ③ 보통
- ☐ ④ 만족 (가장 만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_____)
- ☐ ⑤ 매우 만족 (가장 만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_____)

12. 시간제 보육 운영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아동 수를 예측할 수 없음
- ☐ ② 부모들이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않음.
- ☐ ③ 시간제 보육 교사 채용이 어려움.
- ☐ ④ 시간제 보육에 적용할 보육프로그램이 부족함.
- ☐ ⑤ 시간제 보육을 확장하고 싶으나 여유 공간이 없음.
- ☐ ⑥ 기타: _____

13. 귀하가 보시기에, 시간제 보육 담당 교사가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 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처음오는 아동의 적응
- ☐ ② 혼합 연령을 동시에 돌보는 것
- ☐ ③ 매번 바뀌는 아이들끼리 교류하는 것
- ☐ ④ 등.하원 지도를 수시로 해야 하는 것
- ☐ ⑤ 활동계획안을 작성하는 것
- ☐ ⑥ 다양한 부모들의 요구사항에 응해야 하는 것
- ☐ ⑦ 기타: _____

14. 시간제 보육 운영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개선 불필요	개선 필요		
	① 현재 방식 유지	② 개선 우선 필요	③ 장기적으로 점차 개선 필요	개선 우선 순위 (3순위까지 표시)
1) 월 80시간 이용까지 제한된 보육료 지원	☐	☐	☐	
2) 일일 9시부터 18시까지의 운영 시간 (⇒② 또는 ③ 체크시, 14-2-1 문항으로 이동)	☐	☐	☐	
3)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예약 방식	☐	☐	☐	
4) 당일 이용 전화 신청 방식	☐	☐	☐	
5) 시간당 보육료 4천원	☐	☐	☐	
6) 시간제 보육 전용 공간 기준 요건	☐	☐	☐	
7) 시간제 보육프로그램의 다양화	☐	☐	☐	
8)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	☐	☐	
9) 운영비 지원 기준	☐	☐	☐	
10) 교사대 영아비율 1:3 (⇒② 또는 ③ 체크시, 14-10-1 문항으로 이동)	☐	☐	☐	

14-2-1. 현재 시간제 보육 운영 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 ☐ ① 시작시간을 9시 이전(예, 8시)으로 당김
- ☐ ② 시작시간을 10시로 늦춤
- ☐ ③ 종료시간을 6시 이후(예, 7시)로 늦춤
- ☐ ④ 종료시간을 5시로 당김
- ☐ ⑤ 기타: _____

14-10-1. 현재 시간제 보육 기준인 1:3 교사대 영아 비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보십니까?

- ☐ ① 1:2
- ☐ ② 1:4
- ☐ ③ 1:5
- ☐ ④ 기타: _____

15. 시간제 보육 운영을 다른 어린이집에도 권유할 생각이 있습니까?(해당 어린이집과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경쟁적 관계에 있지 않음을 가정하고 응답하세요.)

- ☐ ① 권유할 생각 있음. (이유: _____)
- ☐ ② 권유할 생각 없음. (이유: _____)

16. 향후 정부가 시간제 보육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 ☐ ① 시간제 보육 확대는 매우 필요함
- ☐ ② 시간제 보육 확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봄.
- ☐ ③ 시간제 보육 확대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봄.
- ☐ ④ 시간제 보육 확대는 전혀 불필요 함.

17. 다음은 시간제 보육의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각 안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① 매우 찬성	② 조금 찬성	③ 조금 반대	④ 매우 반대
1) 기존 영아반 보육실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독립된 교실이 아니더라도, 일반 영아와 함께 시간제 보육을 운영할 수 있게 함.	☐	☐	☐	☐
2) 6시 이후 야간 시간제 돌봄을 제공함	☐	☐	☐	☐
3) 점심시간(12:00-13:00)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추가비용을 부과함.	☐	☐	☐	☐
4) 현재 1시간 단위인 이용 예약을 2시간 단위로 묶어서 하도록 함.	☐	☐	☐	☐
5) 시설이 원하는 경우 일반 보육 없이 시간제 보육만 전담으로 할 수 있게 함.	☐	☐	☐	☐

감사합니다.

〈Part 2. 시간제 비운영 시설〉

1. 시간제 보육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 ① 전혀 모름 (☞ '시간제보육 설명' 후 3번.) ☐ ② 거의 모름 (☞ '시간제보육' 설명 후 (☞ 3번)
☐ ③ 대충 알고 있음 (☞ 2 응답) ☐ ④ 잘 알고 있음 (☞ 2 응답)

2. 귀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 운영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음 (☞ 2-1 응답) ☐ ② 없음 (☞ 2-2 응답)

2-1. 시간제 보육 운영을 고려하였으나 실제로 운영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부모들의 이용 수요가 충분하지 않음 ☐ ② 시간제 보육실을 둘 공간이 충분치 않음
☐ ③ 담당 교사 채용이 어려움 ☐ ④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음
☐ ⑤ 인근에 시간제 보육 제공 시설이 있음 ☐ ⑥ 운영비가 충분할 것 같지 않아서
☐ ⑦ 시간제 시설 신청하였으나 심사에서 탈락함 ☐ ⑧ 기타: _____

2-2. 시간제 보육 운영을 전혀 고려해 보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시간제보육 이용 수요가 별로 없을 것이므로 ☐ ② 시간제 보육실을 둘 공간이 없으므로
☐ ③ 담당 교사 채용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므로 ☐ ④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 ⑤ 인근에 시간제 보육 제공 시설이 있어서 ☐ ⑥ 운영비가 충분할 것 같지 않아서
☐ ⑦ 기타: _____

3. (1번에서 ①, ②응답자 대상) 귀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 운영을 운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 ☐ ① 있음 ☐ ② 없음 (☞ 3-1 응답 후 5번으로)

3-1. 시간제 보육 운영할 의향이 없으신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시간제보육 이용 수요가 별로 없을 것이므로 ☐ ② 시간제 보육실을 둘 공간이 없으므로
☐ ③ 담당 교사 채용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므로 ☐ ④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 ⑤ 인근에 시간제 보육 제공 시설이 있어서 ☐ ⑥ 운영비가 충분할 것 같지 않아서
☐ ⑦ 기타: _____

4. 2021년도에 정부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여 제공기관을 모집한다면 신청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 ☐ ① 있음 ☐ ② 없음

5. 다음은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 관련 규정들입니다. 혹시 귀 어린이집이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되는데 어려움을 주는 항목이 있습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 시설이 시간제 보육을 도입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정도를 표해 주십시오.

시간제 보육 운영 방법	① 크게 문제가 됨	② 조금 문제가 됨	③ 문제되지 않음
1) 월 80시간 이용까지 제한된 시간제보육료 지원	☐	☐	☐
2) 일일 9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제보육 운영 시간 (⇒① 또는 ② 체크시, 5-2-1 문항으로 이동)	☐	☐	☐
3) 시간당 보육료 4천원 (정부3천원 +부모1천원)	☐	☐	☐
4) 시간제 보육 전용 공간 기준 요건 - 시간제 보육실 13.2㎡ 이상(1개반 당) - 영유아 1인당 전용면적 4.29㎡ 이상 (⇒① 또는 ② 체크시, 5-4-1 문항으로 이동)	☐	☐	☐
5) 시간제 보육 프로그램의 불충분	☐	☐	☐
6)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 이용아동수, 이용시간 등 이용실적에 따라 70%~100% 지원	☐	☐	☐
7) 시간제 보육 담임 교사 경력 기준 - 보육 경력 3년 이상 -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 채용 원칙	☐	☐	☐
8) 시간제 운영비 지원금 수준 - 지원 조건에 따라 월 22.4만원 또는 32만원 지원(1개 반당)	☐	☐	☐
10) 교사대 영아비율 1:3 (⇒① 또는 ② 체크시, 5-10-1 문항으로 이동)	☐	☐	☐

- 5-2-1. 현재 시간제 보육 운영 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 ☐ ① 시작시간을 9시 이전(예, 8시)으로 당김
☐ ② 시작시간을 10시로 늦춤
☐ ③ 종료시간을 6시 이후(예, 7시)로 늦춤
☐ ④ 종료시간을 5시로 당김
☐ ⑤ 기타: _____

- 5-4-2.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이 되려면 시간제 보육 아동을 위한 전용 보육실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 기준을 완화하여, 소수의 시간제 아동을 연령별로 정규 영아 또는 유아반 공간 일부를 사용해서 보육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간제 보육을 운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 ☐ ① 있음 ☐ ② 없음

5-10-1. 현재 시간제 보육 기준인 1:3 교사대 영아 비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보십니까?

- ☐ ① 1:2
☐ ② 1:4
☐ ③ 1:5
☐ ④ 기타: _____

17. 다음은 시간제 보육의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각 안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① 매우 찬성	② 조금 찬성	③ 조금 반대	④ 매우 반대	⑤ 모름
1) 기존 영아반 보육실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독립된 교실이 아니더라도, 일반 영아와 함께 시간제 보육을 운영할 수 있게 함.	☐	☐	☐	☐	☐
2) 6시 이후 야간 시간제 돌봄을 제공함	☐	☐	☐	☐	☐
3) 점심시간(12:00~13:00)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추가비용을 부과함.	☐	☐	☐	☐	☐
4) 현재 1시간 단위인 이용 예약을 2시간 단위로 묶어서 하도록 함.	☐	☐	☐	☐	☐
5) 시설이 원하는 경우 일반 보육 없이 시간제 보육만 전담으로 할 수 있게 함.	☐	☐	☐	☐	☐

감사합니다.

〈Part 2 문항 1번 관련: 시간제 보육 설명〉

시간제보육 사업이란?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을 하는 영아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

1. 시간제보육 설치 기준

항목	어린이집 기준
시간제보육 정원	3명(1개반 기준) - 시간제보육반 정원은 총정원 내 포함
보육실 확보	(공통) 시간제 보육실 13.2㎡
	아동당 전용면적 4.29㎡
보험가입	안전공제회 '시간제보육 특약' 가입 의무

2. 시간제보육 지원 기준

구분	세부 지원 내용
보육료	보육료 시간당 4,000원 (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
인건비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 호봉별 단가, 4대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시설) 보육교사 4호봉 단가, 4대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공통) 교사수당 18만원, 담임교사지원비 등 기타 보육교사 대상 수당은 각 요건 충족 시 별도 지원 가능
운영비	지원 조건에 따라 월 22.4만원 또는 32만원(1개반 기준)

부록2.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 (전문가 제안 자료)

〈사례 1〉

시간제 보육프로그램 계획에 있어, 영아의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제공하기보다 영아가 집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됨.

〈적응〉 영아가 가지고 다니는 애착이불, 애착인형 등을 활용한 놀이(1세)

* 촉감을 언어로 표현한다.

* 정서적 편안함을 느낀다.

- 영아가 가지고 온 애착이불(애착인형)을 소중히 다루어주고, 애착이불(애착인형)의 느낌에 대해 언어로 표현해준다(부드러워요, 따뜻해요, 엄마 냄새가 나요, 부들부들해요, 잠이 올거 같아요, 편안해요)
- 애착이불의 경우, 영아의 애착이불을 이용해 까꿍놀이를 하거나, 이불에 얹혀 김밥놀이를 한다. 이불을 연결해서 이불기차놀이를 한다.
- 애착인형의 경우, 교사도 애착인형을 준비하여 영아의 애착인형과 서로 인사를 하고, 두 애착인형 간의 닮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선생님 애착인형이랑 oo이 애착인형은 둘다 부드러워요, 선생님 애착인형보다 oo이 애착인형이 더 커요~)

〈사례 2〉

★ 인성 발달 그림책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하루 일과와 통합적으로 진행

「책과 함께 자라요」 인성프로그램(0~2세)



□ ‘책과 함께 자라요’ 인성프로그램 활동 그림책

□ 「책과 함께 자라요」 ‘안녕! 인사해요’ 인성프로그램 운영 사례
〈의사소통, 사회관계〉

1. 활동목표

- 그림책과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
- 친구에게 ‘안녕’하고 인사를 해 본다.

2. 영역별 목표

의사소통 》 책과 이야기 즐기기 》 책에 관심을 가진다
사회관계 》 더불어 생활하기 》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

3. 활동재료

그림책(안녕! 인사해요<출판사:블루래빗>)

* 인성 발달 그림책 선정은 어린이집에서 유사한 그림책으로 선정할 수 있음

내용범주	책과 이야기 즐기기
내용	

- 책에 관심을 가진다.

영아가 다양한 형태의 책을 탐색하는 경험을 하며 책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책과 자신의 경험을 관련짓고 모방행동을 할 수 있다.

영아 경험의 실제	책에 관심을 가진다
-----------	------------

영아 경험 이해

- 영아는 이전에 교사와 함께 읽어보았던 그림책에 관심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동물들이 인사하는 모습에 관심을 갖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
- 영아는 그림책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이름을 알고 교실에 있는 동물인형이나 동물모자를 가지고 확장하여 놀이를 시도한다.
- 영아는 그림책을 통해 친구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을 알고 등·하원시 친구와 교사에게 인사를 할 수 있다.

교사 지원

- 공간
- 영아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 상호작용
- 영아가 그림책을 읽는 과정을 따라가면 반응하였다.
- 영아가 책을 반복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영아가 관심을 보이는 부분을 반복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 책을 보는 영아의 시선, 몸짓, 표정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영아에게 말해주고 후 영아의 반응을 살피며 소통하고 친구와 어른에게 인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시범을 보여주었다.



- 영아가 책꽂이에서 「안녕! 인사해요」 그림책을 가지고 와 교사에게 내민다.
- 교사와 함께 그림책을 넘겨보고 영아가 그림을 가리키며 “토끼가 인사했지. 원숭이도..”라고 말하며 토끼처럼 손을 머리위에 대고 까딱까딱 해 보이기도 하고, 원숭이처럼 손 발을 쭉 뻗으며 좌우로 몸을 흔들며 보이기도 한다.
- 영아 스스로 그림책 책장을 넘겨 다른 페이지에서 새로운 동물을 가리키고 “나 이거 엄마랑 아빠랑 동물원에서 어.”라고 말하며 지난 기억을 회상하고 이야기 한다.
- 하원할 때 교사가 “우리 그림책에서 동물친구들 인사하는 거 봤었지? 선생님이랑도 인사 해 볼까?” 하고 말하자 배에 손을 얹고 머리가 바닥에 닿도록 숙인다. 친구들에게도 큰 소리로 “안녕, 또 만나.” 라고 인사해 주었다.

내용범주	더불어 생활하기
------	----------

내용

-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

영아가 교사 외에 다른 영아와 함께 지내는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과 구별되는 다른 존재로서 또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래에게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다.

영아 경험의 실제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
-----------	--------------



영아들이 그림책을 가지고 노는 모습에 관심을 보이는 ○○이의 손을 잡고 영아들 가까이 다가간다. “○ ○아, 친구들이랑 같이 책볼까?”라고 물어보자 고개를 끄덕인다. 친구들과 함께 그림책을 보며 “토끼가 지나가다 친구를 만났네. 귀를 쫑긋쫑긋하며 ”안녕? “이라고 인사했어. 원숭이는 대롱대롱 매달려서 ”안녕?“하고 인사하는구나.”라고 말해주자 ○○이가 토끼와 원숭이 그림을 찾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교사가 “동물친구들이 인사를 잘 하네. 우리 ○○이도 친구들에게 인사해 줄 수 있을까?”라고 말한다. 그러자 ○○이가 오른손을 흔들며 조그만 소리로 “안녕”이라고 말하더니 웃으며 교사 품으로 고개를 숨긴다. “인사를 예쁘게 잘 하는구나, 옆에 있는 동생에게도 인사해 줄 수 있을까?”라고 말하자 동생을 꼭 안아준다.



엄마가 들어오시자 “엄마”하고 부르며 달려가 품에 안긴다. 엄마가 “우리 ○○가 잘 놀고 있었구나.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하고 말하자 “응, 아기 좋아.”하더니 동생을 가리키며 엄마에게 소개를 시켜준다. “우리 이제 친구들이랑 선생님께 인사하고 집에 갈까?”하고 엄마가 말하자 “응” 하고 손을 흔들며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교사에게도 손을 흔든다. 교사가 손을 배에 올리고 허리를 숙이며 “우리 ○○이 안녕히 가세요.”하고 인사하자 ○○이도 교사를 따라 배에 손을 올리고 앉았다 일어나며 인사한다.

영아 경험 이해

- 영아는 또래가 놀이하는 모습에 관심을 가졌으며 또래를 모방하여 놀이하였다. 또래와 나란히 같은 놀이를 하면서 다른 영아의 행동을 살피며 같은 행동을 하려고 의도하였다.
- 동물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교사와 함께 흉내내어 보고, 교사가 영아에게 반복하여 “안녕”하며 인사를 하자 영아도 “안녕”하고 인사를 건넨다. 여러 차례 인사를 건네자 교사와 친구들이 눈이 마주치면 “안녕”하고 말하며 까르르 까르르 웃음소리를 내며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다.
- 영아는 그림책을 통해 친구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을 알고 등장했던 동물들의 특징이나 울음소리 등을 흉내내어 볼 수 있었다.

교사 지원

- 자료
- 신입영아가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적응하도록 영아가 흥미를 가질 만한 그림책을 제공하였다.
- 일과
- 영아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편안해질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천천히 놀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 상호작용
- 교사는 영아가 놀이할 때 미소, 끄덕임 등 긍정적인 표정으로 영아의 놀이를 지지해주었다.
- 교사는 영아의 언어적 요구와 비언어적 요구를 민감하게 듣고 공감하며, 영아가 원하는 것을 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

〈사례 3〉

놀이주제중심, 매체중심, 일상생활중심 등으로 다양화

영아기는 감각으로 물체와 물질을 직접 탐색하고자 하므로 비구조화된 매체 중심으로 영아의 경험실제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교사의 지원(상호작용, 시간, 공간, 자료, 안전)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자, 천, 밀가루, 물, 모래, 점토 등)



상자야 같이 놀자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박스들은 튼튼한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변신을 하였어요!

박스들에게 길다랗게 끈을 묶어 주니 끌고 다닐 수 있는 재미 있는 자동차가 되기도 하고, 아늑한 집이 되어 쏙~ 들어가 앉아 놀기도 했어요. 그리고 편백나무 큐브들을 가득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되기도 하였지요~

신나게 상자 놀이를 한 후 상자자동차를 타고 유희실로 놀러가 만나는 선생님들마다 자동차 자랑도 합니다. ^^



〈사례 4〉

■ 「시간제 보육프로그램」개정을 위해서는「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를 참고하되, 그간「시간제 보육프로그램」에서 실행 되었던 영아들의 놀이, 일상 생활 경험 사례가 반영되어야 함.

- 참고용으로「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사례 제시:

0~1세 신체운동영역의 ‘신체활동 즐기기’를 영아교사가 이해하기 쉽게 ‘영아 경험의 실제’로 제시하였음(p. 71~73)

※ 교사 중심에서 영유아 중심의 보육과정,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강조하고 있음.

내용범주 신체활동 즐기기

내 용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0~1세 영아가 목 가누기, 뒤집기, 앉기, 서기 등의 대근육 조절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신체 균형을 잡으면서 안정되게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내용이다.

기본 운동을 시도한다.

0~1세 영아가 몸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기기, 걷기 등의 이동 운동과 제자리에서 몸을 축으로 하여 원하는 방향이나 물체를 향해 움직여 보는 뽀기, 흔들기 등의 제자리 운동을 시도해보는 내용이다.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0~1세 영아가 몸을 움직이는 것에 활발히 참여하고 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시도 하며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신체활동을 하고 인근 놀이터나 공원, 지역사회 시설 등을 활용하여 신체활동을 즐기는 내용이다.

㉔ 영아 경험의 실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p>나연이가 놀이실 안에서 오르기 매트가 있는 곳까지 이동한 후 경사를 기어 올라가서 매트 위에 앉자 “우리 나연이, 매트 위까지 올라왔구나.” 하고 교사가 말한다.</p>
	<p>잠시 후 양팔과 다리에 힘을 주고 경사진 매트를 기어서 내려가려 시도한다. 이 모습을 본 교사는 아이에게 두 팔을 벌리고 “나연이 내려오고 싶구나. 천천히 내려와~ 어려우면 선생님이 손 잡아줄게.”하고 말한다.</p>
	<p>유희실로 이동한 지은이는 미끄럼틀 계단을 올라간 뒤, 내려오려고 하다가 미끄럼틀에 배를 대고 몸을 뒤집는다. 교사가 “선생님 여기 있을 테니 천천히 내려오세요.”라는 말을 건네자 웃으며 미끄럼틀 타고 내려와 교사에게 안긴다.</p>
	<p>형일이는 미끄럼틀 위에 잠시 앉아있다 천천히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온다. 이를 본 교사는 미끄럼틀을 잡고 서있던 친구와 함께 박수를 치며 격려한다. 교사: 정민이가 승~ 하고 잘 내려왔구나.</p>
	<p>바닥에 서 있는 준영이가 공을 잡아 미끄럼틀 위에 있는 동희에게 주니 동희가 공을 받아 던진다. 교사: 동희가 공을 아래로 굴렸구나. 공도 미끄럼 타고 데굴 데굴 내려오네.</p>

영아 경험 이해

- 영아는 낮은 스펀지 매트 바닥에서 시작하여 위쪽까지 **기어서 움직이며 공간을 이동하였다.**
- 영아는 스펀지 매트를 기어서 오르고 반대로 내려오기 위해 양팔과 다리에 힘을 주어 **대근육을 조절하였다.**
- 영아는 미끄럼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붙잡고 서기도 하고, 계단을 오르거나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가 보는 경험을 하면서 **신체활동을 즐겼다.**
- 영아는 친구와 공을 주고 받으며 함께 놀이함으로써 **또래에게 관심을 가졌다.**

교사 지원

⊗ 공간

- 영아들이 기어서 이동하면서 부딪치지 않도록 충분한 넓이의 실내 공간을 제공하였다.
- 미끄럼틀을 배치하고 미끄럼을 타기 위한 영아의 동선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였다.

⊗ 자료

- 영아가 안전하게 기어 오르내릴 수 있도록 신체발달에 적합한 커다란 계단 모양의 경사진 스펀지 매트와 안전하게 오르며 재미있게 미끄러질 수 있는 높이와 각도의 영아용 미끄럼틀을 제공하였다.

⊗ 상호작용

- 영아가 대근육을 이용하여 몸을 움직여보고 시도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오르내리는 과정을 말과 표정, 행동으로 지원함으로써 영아가 즐겁게 기본 운동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 영아가 매트 오르내리기를 할 때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각자의 속도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발달의 개인차를 존중하였다.

⊗ 안전

- 영아가 오르내리기 할 때 미끄러지거나 다른 영아와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관찰하였다.
- 기어서 오르고 내리는 동안 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건을 집어 삼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 청소에 신경을 쓰고 관리하였다.

〈사례 5〉

주 제	뚜껑으로 놀아요
목표	뚜껑을 반복적으로 탐색하기를 즐긴다. 뚜껑놀이를 통해 신체활동을 즐긴다
연령	24개월~35개월
준비물	다양한 뚜껑들(지름이 3.5cm이상인 뚜껑), 본체와 뚜껑세트(pet병, 물통, 분유통, 주스 병, 우유병 등)
영역	신체운동> 신체활동 즐기기>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자연탐구> 탐구과정 즐기기>사물과 자연을 반복하여 탐색하기를 즐긴다.
영아의 실제 경험	1. 뚜껑을 탐색해보아요 (실제 관찰된 사례) 2. 뚜껑으로 놀이해요 (실제 관찰된 사례)
영아 경험 이해	영아는 뚜껑을 잡아보고 조작해보면서 대소근육을 조절해본다. 2. 영아는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뚜껑을 탐색하기를 즐긴다 (만져보기, 꺼워보고, 돌려주기, 굴러보기, 쌓아보기, 나열해보기...)
교사지원	(공간) 영아들이 뚜껑놀이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줌 (재료) 색, 종류, 형태, 뚜껑의 열리는 방식 등이 다양하도록 뚜껑을 제공해줌 (상호작용) 영아들이 탐색과정에서 말로 표현해주거나, 영아들의 탐색 과정을 지지해주고 기다려줌.
활용tip	0세: 뚜껑과 본체를 탐색한다(시각, 촉각, 청각 등) 1세: 뚜껑과 본체를 탐색해본다. 뚜껑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놀이해본다(굴리기, 짹짹뚜뚜뚜)

〈사례 6〉

놀이집, 신체놀이(붕붕카, 낮은 미끄럼틀, 소형 시소 등), 악기놀이 책놀이 소꿉놀이 등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놀잇감을 제공한다.

놀잇감을 가지고 영아가 자유롭게 놀이하도록 지원한다.

간식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간식공간을 제공한다.

하루 일과를 시간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아가 자유롭게 놀다가 쉬고 싶어 하거나 자고 싶어하면 수면실 혹은 휴식 공간에서 쉬거나 잘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간 주제와 관련된 놀이를 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새로운 놀이를 경험해보도록 한다.

시간제 보육의 놀이 경험

연간 주제	놀이 경험
나	놀이 1 : 나의 이름을 알아요
	놀이 2 : 나의 몸을 움직여요
	놀이 3 : 나는 냄새 맡을 수 있어요
	놀이 4 : 나는 보고 들을 수 있어요
	놀이 1 : 내 물건 찾기
	놀이 2 :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
	놀이 3 : 같이 사용하는 물건
가족	
친구	
동네	
자연	

주제 : 나 / 소중한 나의 물건

놀이 1 : 내 물건 찾기

학습목표 - 내 물건과 다른 친구의 물건을 구분한다(자연탐구영역)

내가 사용하는 물건의 이름이나 용도를 말한다(의사소통영역)

보육실을 돌아다니면서 내 물건을 찾는다(신체운동영역)

놀이 전 단계 - 영아의 물건들을 보육실 내에 숨겨놓는다.

놀이 단계

- ① 영아의 물건들이 보육실 내에 있다고 알려주고 찾아보자고 한다.
- ② 영아가 찾은 물건을 자신의 이름이나 상징이 붙어있는 바구니에 놓는다.
- ③ 영아가 친구들 앞에서 내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은 물건의 이름을 말한다.
(연령이 낮은 영아는 자신의 물건을 찾아서 친구들 앞에서 보여주고 연령이 높은 영아는 물건을 이름을 알면 말한다)

시간제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델 개발 연구